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6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6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청소년 지도사 양성하자"

문화부 '자원봉사센터' 275곳 개설 추진
운영 능력있는 종교단체 등에 위탁 계획

불교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키우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2백75개 시군구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원,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

문화부는 관리 능력과 센터가 들어설 건물을 보유한 단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할 방침이다. 센터 관리 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5명 안팎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공간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인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는 문화관광부·자치단체지원금, 국가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부 청소년기획과 최용길 서기관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자치단체, 교육부와 연계해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에 설립될 자원봉사센터는 그 대상을 일반인에까지 넓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분류, 매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통해 선발되는데 올해는 11월22일에 자격검정이 있을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청소년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경력자는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3백70여명, 2급 지도사는 1천6백여명, 3급 지도사는 1천3백여명이다. 이에 비해 불교계에서는 1급 지도사 10여명 정도만 활동하고 있다. 2·3급 지도사 숫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17개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를 통한 청소년 심성정화와 부적응학생 교화 등의 효과도 올리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와 충남지부(지부장 성공스님) 두 곳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YMCA는 경기도, 가톨릭은 원주, 흥사단은 전라도의 2곳을 맡고 있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원한 종실스님은 "사찰에서 청소년·어린이 법회를 하며 청소년들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포교가 되지 않는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불교와의 연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인 포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연 기자〉



◇2천여명이 동참한 수덕사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예산=고영배 기자〉

"참회로 열린마음 경제회생"

수덕사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2천여명 동참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신흥사에 이어 5월25~26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원하는 한편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돕는 기금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조계종 수덕사가 주관한 이번 법회는 파사현정 실천을위한 철야 참선과 사찰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축·수·임산물 공동직거래 장터가 열려, 정진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에 앞장섰다.

26일 오후2시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회향법요식은 수덕사·향천사 합창단의 은은한 찬불가 속에서 경과보고 대회사 법어 기원사 발원문 우리의다짐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담 수덕사방장스님은 조계종중회의장 설정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회사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파사현정의 의지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월덕스님은 기원사에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신나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길을 총무실장이 대독한 기원사를 통해 "국민 모두 주인의식으로 힘을 합칠때이며 불교계의 지도적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도 부처님의 고행정신을 받들어 더욱 정진하자고 기원했다.

이어 서석재국회정각회장과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은 기원사와 발원문을 통해 "이 참회대법회가 온 국민에게 확산돼 국난이 시급히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는 "2천만 불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참회하고 동체대비 정신의 실천을 통해 국난극복에 앞장서겠다"는 김한곤조계종중앙신도회장직대의 우리의 다짐이 울려퍼지면서 회향됐다.

☞ 3면에 계속

사찰림에 화장장 납골당 허용

규제개혁위, 장묘시설 신고제로 완화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총리서리·이진설안동대총장)는 5월24일 올해안에 사찰림 등 공익임지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묘지공원내의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폐지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교계에서 추진중인 영탑공원 및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묘시설의 설치 촉진으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장묘문화 개선은 물론 국토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묘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법규인 산림법시행령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목요이슈는 청소년 상담



김광조씨(51)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대전시 동구 대성동 영복선원을 찾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의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 부처님 전에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꿈주린 애정을 분노로 표현하기 일쑤인 아이들을 보살의 마음으로 감싸주려는 발원이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심사를 받기 전에 보름에서 두 달가량 머무는 임시수용소로 부모와 면회와 인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곳이다.

"언젠가 일일담임을 맡아 하루종일 심사원에 머물던 날,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여학생의 울부짖음에 가슴이 아파 살며시 안아주었으나 여학생은 몸을 피하더군요." 가출한 엄마 대신 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심사원에 들어온 그 여학생이 김씨를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더 먼 사람으로 대했던 것이 끝내 가슴아팠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역시 '개물면 아픈 손가락'이기에 김씨는 꾸준히 그들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희망을 심어주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두 번 무료강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 대전시 교육청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9년째 해오다가 대전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이 닿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무료강의를 시작했다.

처음 마주 앉아서는 눈길을 피하던 아이들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다소곳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김씨는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강의가 끝나고 찾아와 자신의 심경을 털어 놓는 아이들도 그에게는 소중한 인연이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내 자식같다는 김씨. 상담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되찾을 때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날때마다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된다.

〈강지연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청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 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지방 국립박물관 위탁 반대 2면

먹는 물 걱정하는 세상 20면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인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사 설

남북화쟁 대중공사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가 두달에 한번씩 열린다. 이미 5월30일에 제1차 포럼이 송현클럽에서 개최되어 "새정부통일정책"에 관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통일에 대한 불교계의 의지를 확인하고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경제, 사회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발기인들의 면모를 보면 이 포럼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회각계의 중견지도자들이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참여하는 통일포럼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이미 지난번 제1차 포럼에 이어 금년말까지 5차례의 주제가 확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여 통일로 가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려고 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고통을 우리 민족은 겪어오고 있다. 남과 북의 문화가 단절되어 이질화되어 왔다. 이러한 분단의 고착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경제·문화 등 각계각층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직도 통일에 관한 논의나 대응을 집권세력이 독점하여 지배의 이데올로기로써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 이미 80년 이후 새롭게 전개된 민족·민주운동의 질적인 성장과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정권이 들어선 후에 통일정책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여 남북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가 이 땅의 중생을 위한, 이 사회의 민중을 위한 종교라고 한다면, 이 땅·이 계레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는 동일의 길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불교는 이제 통일을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할 때이다. 통일의 문제는 반세기에 이르는 단절로 인하여 남과 북의 문화가 이질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내는 일부터 풀어야 한다.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상호접근과 적대감·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일에 불교가 뛰어들어 주도적으로 실마리를 한 가닥씩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족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된다. 우리 남과 북의 계레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선조와 역사의 공유의식에서 출발한다.

제1차 포럼에서 '민족화합선언문'을 통해 "서로 베풀고 나누며,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 이익되는 일을 추구하며, 민족발전을 위하여 상호연합하는 실천의 원칙을 다방면으로 구현해 가야한다"고 표방한 것도 바로 동사섭의 가르침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불교계가 그동안 다른종교에 비해 이러한 통일운동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이미 북한 선교자 단기양성과정인 "통일선교대학"을 열고, 북한교회재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미국등 여러 체널을 가동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오고 있다.

남북화쟁 대중공사의 출범을 계기로 불교계의 통일운동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통일정책방안이 제시되어 통일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사부대중 불자들이 이 대중공사에 적극 동참하여 한민족 통일정토가 이루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다시한번 호소한다.

국립박물관 위탁 반대

문화계 "수익사업 우선… 질저하 초래"
불교계 "국가위신 훼손시키는 탁상행정"



◇정부가 추진중인 박물관 등의 민간위탁운영이 박물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 전경.

정부 위탁운영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불교계와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여론에 밀려 철회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제기돼 '새 정부의 문화정책 포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기획예산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민간위탁운영은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검토대상사업 96개 중의 하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많이 있고 외부자원활용시 민(民)·관(官)간의 경쟁 촉진 및 민간의 창의성이 기대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물관관계자들은 문화의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국립박물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 관리의 중추인 박물관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오히려 박물관의 문화재관리 업무를 강화해 국가가 문화재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장도 "박물관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현재 박물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조사사업이 수익사업에 밀려 박물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와 불교는 뗄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보보존위원회 범하스님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못박은 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산하단체는 몰라도 박물관은 결코 장삿속으로 운영되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부문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명대교수도 "단순히 운영문제만을 가지고 박물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불교계도 불교박물관 문제 등과 연계해 성보보존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획예산위는 96개의 민간위탁 검토대상 사업을 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최종확정, 내년부터 이들 사업의 인건비와 기타사무비를 융역비로 바꿔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기석 기자〉

사설사암 종단등록 촉구

조계종 담화문, 법인 종단관장 명문화도

조계종 총무원은 27일 사설사암과 법인의 종단관장 명문화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조계종 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사로이 사찰과 암자와 사유재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종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종헌위반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종헌에서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종헌 사항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담화문은 "만약 조계종의 종도로서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 종단 집행부로서는 종헌에 규정된 제반규제조치를 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헌에 규정된 규제조치는 종무원법상일체의 종무직 취임금지,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 취임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 취임 금지, 해당승려의 도제까지 각 교육기관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등.

조계종 총무원은 94년 개혁이후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꾸준히 권유해 94부터 현재까지 2백36개 사찰의 등록을 받았다. 이는 90년부터 94년까지 등록한 98개에 비해 두배가 넘는 것. 등록사찰의 절반가량은 재산등록까지 마쳤다.

현재 조계종내에는 1천1백여 사설사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담화문이 발표된이후 강도높게 재산과 명의 등록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에 대한 종단관장 명문화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선학원과의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엄사 종걸스님 송광사 현지스님

산중총회서 후임주지 선출 총무원에 추천



◇종걸스님



◇현지스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후임주지로 종걸스님(태안사 주지)이 선출됐다. 화엄사는 25일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주지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총투표인 1백2명중 90명이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종걸스님이 51표를 명섭스님(전 천은사주지)이 34표를 각각 얻어 종걸스님이 후임주지로 선출됐다.

종걸스님은 "중책을 맡겨준 문중의 여러 어른과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문도의 화합을 통해 본말사의 종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수행여건 가꾸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걸스님은 화엄사에서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70년 사미계를 73년에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해인사등지서 2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사 강원을 졸업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는 9일 산중총회에서 후임주지로 현지스님(광주 원효사주지)을 선출, 25일 총무원에 추천서를 접수했다. 현지스님은 "송광사의 승보종찰 전통을 이으며 사회복지와 환경운동 전개 등으로 포교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송광사의 위상을 21세기에 걸맞게 고양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지스님은 71년 구산스님은 은사로 득도 법주사 강원과 용주사 중앙선원등지서 수행 이력을 쌓았다.

"산중총회결의보다 종헌종법 우선"

조계종 법규위, '해인사 재적승 제명건' 기각

조계종법규위원회(위원장 현해)는 15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해인사 현응스님이 청구한 '해인사 산중회의의 본사재적승 제명 및 산문퇴방 결의와 사찰 출입통제 조치는 종헌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기각했다.

법규위원회는 심판결정문을 통해 "산중회의는 종헌종법에 의거한 종무기관이 아니므로 산중회의에서의 본사재적승 제명 및 산문퇴방 결의와 사찰 출입통제 조치는 종헌종법 규정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심판청구권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산중총회의 결정사항이 종헌종법을 앞 설 수 없다는 첫 판례로 관심을 모았다.

설조·현고스님 제적

조계종 초심호계위 의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월서)은 제15차 초심호계원을 열고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을 종단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제적키로 의결했다. 또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주지 철형스님을 성보도난과 관련 문서견책키로 했다.

초심호계원은 이에앞서 11일 제14차 초심호계원을 열어 성보도난과 승규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된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고스님에 대해 제적을, 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법조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1년을 의결했다.

초심호계원의 의결사항에 대해 징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원공단 임원 교체

환경보존 구체화 포석인듯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보존 위주의 공원관리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상임이사급 임원을 전면 교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20일 부이사장에 송낙오 前 동아일보 공무국장을, 기획이사에 정권섭 前 덕유산관리소장을, 운영이사에 함상근 前 환경관리공단관리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급에 대한 인사는 공원관리를 환경보존 위주로 전환한다는 환경부와 공단의 방침을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3명, 상임감사 1명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6일 신임이사진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관리공단과 불교계는 마찰도 많았고 서로 돕기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원입장료폐지등 서로가 합심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만큼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이사들은 "국립공원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의 강화와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공원관리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아는만큼 보입니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매장문화 개혁 '국민 계몽'

장묘시설 규제완화 의미와 교계대책

교계 영탑공원등 20여곳 운영-청약중 종단차원 납골공원 설치 관심가져야

그간 대부분의 사찰림은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중 공익임지(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산림보호림)에 속해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규제를 받아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시에도 필요한 화장장·납골당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장례식장은 관련조항이 없어 설치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산림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공익임지에 속하는 사찰림에도 경관과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한 산림청 심사(사실상 거치지 않음)를 거쳐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내의 묘지공원에도 그 운영에 필요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교계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묘시설의 설치 촉진으로 '화장후 납골안치' 형태의 장묘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납골당 1기의 이용 비용이 6평 규모 묘지 조성 비용의 10~15%에 해당돼 IMF시대에 맞는 매장문화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심의관실 문종력 사무관은 "건교부와 농림부의 동의를 얻어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교계등이 앞장서 화장·납골시설을 설치한다면 IMF시대 장례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묘지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화장률을 높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올해 안에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불교계에는 지난해 10월15일 개원된 부천 석왕사의 종합 '장례예식장'인 왕생극락전 을 비롯 20여개의 장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청약을 받고 있다.

탑과 부도로 이루어져 사찰조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영탑공원'은 △한마음선원 금왕·제주·진주지원과 △충북 음성 고심사 등이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덕사(일명 '탑림공원') △서울 삼보사 △인천 일광정사 △오봉정사 등이 건립(또는 계획)중이다.

9~17인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 형태의 납골공원은 △재단법인 보현원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장묘시설 양평공원을 비롯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 △상락향수도원 등이 운영중이다.

이밖에 △경기도 포천 다보정사 △서울 영각사 △경남 밀양 부은사 등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 △장성 백양사 △서울 봉국사 등이 납골당 건립을 진행중이다.

불교계는 90년도 이후 장묘시설에 대한 허가취득과 더불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타종교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장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납골공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납골공원의 운영과 설치는 화장문화와 납골공원의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명부전 등 불교의 사후관이 반영된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도 모색돼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종단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등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장이나 납골공원을 포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장례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1면 '수덕사'서 이어짐

회향법요식에 앞서 5월25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황하루에서 정진한 철야 참선은 설정 법장스님등 대중스님과 신도등 2백여명이 동참해 참회를 통한 국난극복의 지혜를 밝혔다. 한편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농·축·수·임산물협동조합이 참여해 열린 우리 산물 공등직거래 장터는 동참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모금함에 모아진 성금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에 기탁된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행사일정

3차: 7월4일(토)오후9시~회향법요식 7월5일(일)오전11시 천태종 관문사(서울)=동체대비 구현철야관음정진

4차: 7월10일(금)오후1시 관음종 대전EXPO 광장=영산대재

5차: 9월22일(화)오후9시~회향법요식 9월23일(수) 총지종 정각사(부산)=진호국가 기원 철야정진

6차: 10월15일(목)오후9시~회향법요식 10월16일(금)오전11시 진각종 총인원(서울)=민족통일발원 철야옴마니반메훔정진

7차: 11월15일(일)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16일(월)오후2시 태고종 선암사(전남 승주)=대참회관음예문 연비

8차: 11월27일(금)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28일(토)오후2시 법륜종 보현정사(전남 목포)=지역화합기원 3천배

예산=위영란 김원우 기자

목어 실직자 돕기

"도시에는 노숙자가 넘쳐난다는데 농촌에선 일손을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영농합숙소를 지어놓고 실업자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하루세끼를 제공하고 3만~6만원을 준다는데도 일손이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농촌뿐 아니라 3D업체에서는 외국의 불법체류자라도 불러들여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서울의 노숙자들은 이런 일자리를 두고 왜 나서지 않을까.

"돈 조금받고 하루종일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느니 차라리 맘편히 빌어먹는 것이 났다."

이러현상은 노숙생활에 익숙해지고 무료급식기회가 늘어나면서 근로의욕을 잃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느 택시기사는 우려했다.

"무료급식은 실직자들을 더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농촌에 다녀온 한 불자는 말한다.

"지하도에서 자면서 건강을 해치느니 농촌에 가서 땀흘려 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느낄텐데…"

'아침을 여는집'을 운영하는 김동흔씨(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는 불자들의 '쌀모으기 캠페인'을 호소하고 있다. 2~3백명의 급식을 계획했는데 6~7백명씩 몰려오니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그는 염려했다.

"정부와 부유층에 대한 실직자들의 불만이 쌓일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불교계는 곳곳에서 실직자돕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무료급식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취업알선과 취업의욕을 북돋우는 심리상담, 건강돌보기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고픈 이들은 마음이 허할 수 있다. 정부도 2백만에 육박하는 실직자 생계돕기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도록 입체적 대책을 세워야겠다. IMF와의 전쟁, 복밭이 되어주는 실직자들이나 복씨를 심고 가꾸는 이들이나 서로 부처님 바라보듯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6월을 '상대방 부처님으로 보는 달'로 정했다. "이웃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7월이 되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난극복 수덕사 법회 이모저모

교·정계 인사 다수 동참

○…쪽빛 하늘을 이고있는 대웅전(국보49호) 앞마당에서 열린 회향법요식에는 응담 조계종원로의원, 인곡 태고종총무원장, 운덕 천태종총무원장, 김성초 진각종통리원장, 무진 원효종총무원장, 정각 법륜종이사장, 제원 조계종 기획실장, 지성 보문종부원장, 손금광 진언종종리원장 등 종단지도자와 심대평 충남지사, 서석재 정각회장,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 권오창 예산군수, 이영웅 농협충남대전본부장,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신광식 불교언론인회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신도들은 햇볕을 피해 나무와 법당앞등에 수백명씩 무리져 동참했다.

2백여 대중 철야 참선정진

○…5월25일 밤9시부터 황하루에서 입제에 들어간 철야 참선은 총림 수좌이자 조계종종회의장인 설정스님의 법어와 주지 법장스님의 인사말, 선원장 스님의 참선의 자세에 대한 설명후 정진에 들어갔다. 상단에는 설정 법장스님 등이 자리하고, 2백여 대중들은 등을 대고 2열 병렬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찰중 주경스님(수덕사 교무)이 큰 죽비를 메고 대중을 점검하는 속에서, 1시간 정진하고 10분 포행하고 다시 1시간 정진하고 또 10분 포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정부터 12시30분까지 새참공양은 모두들 꿀맛같다는 표정들이었다.

부처님 도량같은 마음의 집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은 특히 법회장인 대웅전에 대비시킨 내용이어서 더욱 감동이 컸다는 분위기. 내용은 "이곳 수덕사 우뚝한 대웅전이 보여주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도 탐욕과 아집의 철근을 걷게 하시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맞물리고 문틀과 마루장이 맞물려 지붕을 떠받치는 부처님의 도량같은 마음의 집을 짓게 하시어 모두가 제구실을 찾아 서로 맞물리고 받쳐주어 아름답고 행복할수 있기"를 발원했다.

사는 이 파는 이 모두 만족

○…사찰에서는 처음 열린 농·축·수·임산물 공동직거래 장은 싱싱함과 저렴함으로 판매자나 구매불자 모두 만족해했다. 생물은 물론 가공식품 저장식품 등이 선보여 다양한 장터를 이루었는데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농산물. 이영웅 농협충남대전본부장은 "사찰에서 예불과 법회를 하고 장까지 보는 새로운 생활신행문화의 가능성을 엿볼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교TV 5일 녹화중계

○…불교TV는 수덕사 법회를 3회에 걸쳐 녹화중계한다. 5일(금) 오전9시10분~11시, 오후10시~10시50분과 12일(화) 오후1시25분~2시15분까지 방송한다.


◇2천여명이 동참한 수덕사 국난극복법회.



◇25일 밤부터 들어간 철야 참선은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 2백여명이 용맹정진했다.


◇황하루에서 6시간동안 진행된 철야정진으로 참회를 통한 지혜를 밝히고 있다.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농·축·수·임업협동조합이 참여해 설치된 우리 산물공동직거래 장터가 불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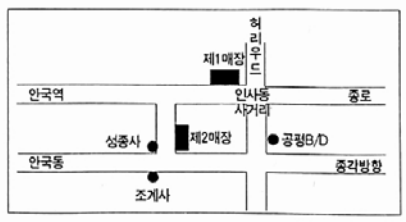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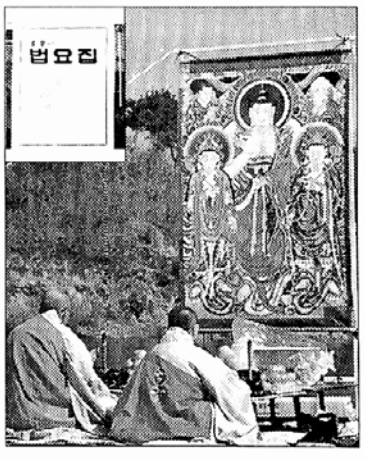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 괘 불 〉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연등축제 봉축상에 미타사

우수상 봉은사 특별상 한마음선원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25일 올 봉축 연등축제 참가 우수 사찰 및 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봉축상은 손수 제작한 등으로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등 연등법회 제등행렬 부분에서 신선하고 질서정연한 행진을 보여준 강서구 미타사(주지 송강)가 받았다. 우수상(연등상)은 전통번과 깃발을 제작해 제등행렬을 장엄하고 어린이 목탁행진 등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봉은사(주지 무상)가 차지했다. 또 원력상에는 수국사(주지 자용)와 진관사(주지 진관)가 정진상에는 진각종(통리원장 성초), 청룡사(주지 진우), 구룡사(주지 정우)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은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JTS가 뽑혔다.

25일 시상식에서 봉축상을 받은 미타사와 봉은사, 수국사, 진관사, 청룡사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일체를 실직자 돕기 사업에 써 달라며 종단에 희사했다.

봉축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신용식씨와 서용호씨, 광화문전화국 이응운씨에게 감사패를 총무원 재무부 방광일계장과 대한불교 봉화회 정욱심씨에게는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임연태 기자

금강경 알기쉽게 한자 풀이

한글세대 위한 독습서 펴낸 조돈규씨



"평소 한문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는데 한문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옥편과 불교사전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글세대를 위한 알기쉬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내게 됐습니다."

1년여에 걸쳐 옥편과 불교사전 등을 뒤지며 〈금강경〉의 가르침과 한자의 음과 뜻을 상세히 정리한 독습서를 자비를 들여 펴낸 경찰청 정보2실장 조돈규씨(동국대 불교대학원 4학기 재학중).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당시 어려운 경전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나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이뤄낸 조씨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불교책을 계속 펴낼 겁니다"며 서원을 밝혔다.

이 책은 한문 금강경, 한글해설, 한자의 음과 뜻, 문장상에 내포된 불교적 의미 등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어, 불교공부는 물론 불자들의 한자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이은자 기자

고침 175호 4면 성운스님 인덕노인복지회관 1주년기념 법회를 1일에서 7일로 바로잡습니다.

교차로

'북한불교와 통일' 법문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5월26일 봉은사에서 '북한불교와 통일운동'을 주제로 법문하고, 금강국수공장 후원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운정사 주지에 취임



삼중 서울 잠비사 주지는 5월24일 제주 선운정사 주지로 취임하고 봉불절안식을 봉행했다. 선운정사는 복지불사에 뜻을 둔 제주시 독지가 성명자보살이 창건해 스님에게 시주했다. (064)99-8599

소청심사위원장에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5월237일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생명나눔회 광주지부 창립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장 스님(증심사 주지)은 13일 오후3시 관음사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062)234-6602

대장경 이운 6백돌 법회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4일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제주서 치과의원 개업



황면 前 조계종 기획국장 스님은 5월24일 제주 애월읍에 '애월 박치과 의원'을 개원했다. (064)99-2972

대전불교신도연합회 창립



한만우 대전불교신도회장은 5월27일 대전시민회관에서 대전불교신도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진해서 '불교를 알면…' 특강



윤청광 방송작가는 8일 오후7시 창녕 법성사(주지 법성), 10일 오후7시 진해 경남불교교육원에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를 주제로 특강한다.

서초에 우곡선원 개원



장명화 우곡산업사장(신수회 회원 및 현대불교신문 1기 명예기자)은 5월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광명빌딩 3층에 우곡선원을 개원했다. (02)529-5027

'국제 시민스포츠' 유치



선상규 동국대 교육방송국장은 5월23일 영국 리딩시에서 개최된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총회에 참석, 2003년 개최되는 제8회 국제시민스포츠 올림피아드를 한국에 유치했다.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뉴욕·위싱톤서 법회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본지 회장)은 미주지역 순회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3일 출국한다.

20일간의 미주 순회법회는 7일 버지니아주 커뮤니티 문화대극장, 14일 뉴욕 커뮤니티대학, 21일 뉴욕한마음선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23일 귀국한다.

교도소에 3백만원 기탁



정각 목포 보현정사 주지(법륜종 이사장)는 5월22일 수상한 교정대상 본상(자비상)의 상금 2백만원 전액과 1백만을 보태, 총 3백만원을 목포교도소 시설개선 비용으로 기탁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은 "세상살이가 힘이 들수록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더욱 보살피는 것이 종교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간모금 총액 6,202,740원 △개인모금 총액 1,424,000원(82명) △봉제산 용문사 300,000원 △문경여고동창회 50,000원 △김해김씨문중 80,000원 △일본인 사또우 부부 3,000엔 △한 주 한끼굶기 1,369,240원(106명)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2,307,170원(32명) △맑은세상만들기 100,000원 △포럼2001 125,000원 △자비회 310,000원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노래패 137,330월

〈5월27일 현재 총 1,041,366,75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불교운동)

"신도 전국조직 체계화"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정덕중씨



태고종 전국신도회 새 회장에 정덕중씨(효천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전국신도회는 4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정덕중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번 신도회장은 총무원장의 지명에 의한 선출 방식의 관례를 깨고 이사들의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추대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정회장은 5월28일 봉원사에서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전국신도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낮춰 살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호하고 종무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추대되신 후 한달여 동안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정스님의 인준을 받기까지는 온전한 신도회장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전례없이 이사회 추대로 회장직을 맡게 된 만큼 5백만 태고종도가 하나되는 '화합의 신도회' 건설을 위해 제 나름대로 구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원 교무부와 공조해 각 교구에 6월말까지 신도회 결성을 당부한 협조공문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각 신도회 간부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전국신도회 당연직 이사로 영입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범 종단적인 신도회연합회를 구성해 신도회가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불교계에는 언제 입문하셨고,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모친이 경기도 남양주에 보덕사를 창건하시고 줄곧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모친의 간곡한 교훈을 받들어 20여년전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아직 진리법에 어둡고 턱없이 불심도 얕지만 '참불자'의 모습을 견지할 것입니다.

도필선 기자

환경의 날에 만난 불자

"공해문제 해결에 안성맞춤이죠"

3년동안 환경수 7만그루 보시한 정원호씨



"3년간 도시공해에 강한 환경수 7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던 정원호씨(36·동방원예종묘 대표)는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법을 찾던 중 나무묘목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92년 경기도 파주와 경북 봉화에 땅을 구입하고 환경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어떤 곳에서든 잘자라고 도시공해에 강한 자작나무 산목련 산수유 두충나무 등의 환경수 묘목을 직접 심었다. 96년부터는 식목일을 전후해 '푸른공간 만들기' 운동을 필치며 1인당 5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군요. 어느 공간이든지 나무가 심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환경공해가 해결됐으면 하지요."

도선사 신도였던 돌아가신 어머니와 절어 다니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며 '환경 사랑'을 배웠다는 정씨는 내년 2월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환경보호단체 '푸른공간만들기모임'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회원은 2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정씨는 "푸른공간만들기모임은 이론적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산과 강에 나무와 수생식물을 심어 생태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실천적 환경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스포츠 통해 재활의 꿈 다져요"

장애인 체전서 동메달 딴 한준희 군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쉽지만, 포상금을 받아 게임기를 살 수 있어 기뻐요. 그동안 도와준 소쩍새마을 스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쩍새마을 원생인 한준희(16·정신지체2급)군이 지난 5월 19~21일 경기 성남시 상무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강원도 대표선수로 육상종목(멀리뛰기 및 제자리멀리뛰기)에 출전, 동메달 두 개를 획득했다.

장애인학교인 원주청원학교 중등부 1학년에 재학중인 한군은 지난해 소쩍새마을에 입소해 이번 장애인체전에 처음 출전했다. 운동을 좋아해 학교 육상부에 들어간 그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 재활에 효과가 큰 스포츠를 통해 멀지 않아 정상인과 다름없는 삶의 기쁨을 누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공 고

◆ 제 1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 변경 ◆

오는 10월 14일 개최되는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공모요강 중 입상자 상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작가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상내역	작품구분	수 상 내 용
대 상 (종정상)	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금 상 (총무원장상)	2명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은 상	3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동 상	4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특 선	10명	상 패
입 선	OO명	상 장

※ 상금내역을 제외한 기타 공모요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문의처 : 총무원 문화부 (☎ 739-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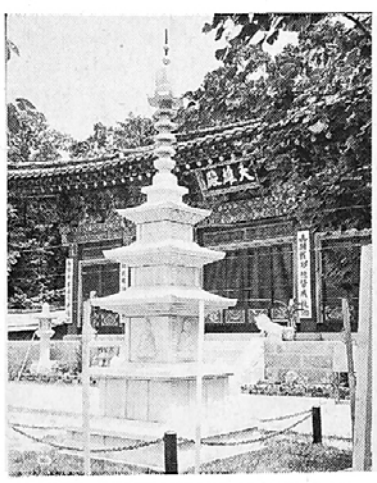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 설법 게송집 ·

'멋대로 부른 노래'

-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게송집① -



170쪽/값 4,000원

⊙ 속이 답답하신 분은 이책을 읽으세요.
⊙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이책을 읽어 보십시요.
⊙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펴낸곳 : 경서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 02)733-3345~6 F. 02)722-7787

우리 모임에선

불교산악인련 1돌 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장 손현수)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 주관으로 14일 12시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 및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 결의대회를 갖는다.

백련장학회 구치소 위문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위안법회및 불자연예인공연이 5월29일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주최로 구치소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위문법회및 공연에는 이근찬씨(불교방송)의 사회로 불자가수 송춘희 금사향 은방현 남광수 김활선 오은주씨, 무용가 이소자씨등 12명의 연예인이 출연했다.

우리는선우 정기수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5월 23.24일 장성 백양사와 남원 실상사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봄 정기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대회에서는 토진스님으로부터 참선강의와 실수, 금강스님의 참사람결사, 도법스님의 '이 시대 귀농의 의미' 강의를 듣고, 회원간 '마음나눔의 장'으로 진행됐다.

성북구청 법륜회 성지순례

성북구청 법륜회(회장 정후시)는 5월 16.17일 3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충북 보은 법주사와 복천암으로 무박2일 성지순례겸 정진법회를 다녀왔다.

법륜회는 이번 정진법회에서 IMF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정진을 했다.

법륜회 정후시회장은 "정진법회에서 탐진번뇌를 버릴때 부처님이 자리할 공간이 생긴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명예기자=장인식〉

PC통신 불교동호회 소모임활동 '전성시대'

지역·봉사·취미·띠별 친목 다지며 자기계발



◇하이텔불교동호회 강원모임은 5월16일 낙산사 등 강원도 일대에서 새희망 철야 용맹정진 및 불교문화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컴퓨터통신 불교동아리에 지역, 봉사, 취미, 띠모임등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넷츠고가 다양한 소모임 중심으로 회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니텔과 채널i도 모임방을 만들기로 했다.

소모임들은 각 통신 불교동호회 조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서울·경기모임을 비롯하여 강원 광주 울산 경남 진주 등 지역모임과 한달에 2~3회 만나 전통차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명등계', 보살정신과 사섭법 6바라밀을 실천하는 '취모리' 모임이 활동중이다.

또 거동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철연회'와 불교예술인들이 서로의 힘을 응집하여 전시회를 열고 있는 불교예술인 모임방 등이 있다. 특히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세대 광장'과 25세부터 39세까지 활동하는 '햇빛좋은 창가'가 개설돼 있다.

'오손도손' 코너에 9개의 소모임을 운영중인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 '보은회', 영화 등산 당구 등의 취미활동하는 '보람찬 생활방'과 전라지역 모임인 '백제인의 쉼터', 대전·충북·충남모임, 대구·경북모임, 서울·경기모임, 부산·경남모임 등이 있다. 띠모임방 '12간지'의 경우 '죠다쉬(말)' '되새김(소)' '니야옹(호랑이)' '양들의 침묵(양)' '꿀꿀이(돼지)' 등 띠별 활동으로 친구도 쉽게 만나는 장점이 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회장 박춘동)은 '이런 모임 어때요'라는 소모임방을 운영하여 번개모임 등을 갖고 있다. 넷츠고 불교동호회(회장 권상목)도 전통차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모임인 '지대방'과 '글마을' '답사모임', '어린이 청소년지도교사모임' 방이 개설돼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송암동산 봉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모임방 개설을 준비중이다.

6월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터넷 전문채널 채널i 불교동호회 준비위(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도 회원모집과 함께 지역모임과 취미모임 등의 소모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실직자 쉼터 '아침을 여는 집' 개원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5월25일 오전 '아침을 여는 집'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경불련 '자비의 집' 회장 동광(도선사 주지), 경불련 부회장 종후(노적사 주지)스님과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김윤환 경실련 공동회장, 김동일 중구청장,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을 비롯 실직자 6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자예술인연합 대법회 봉행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회장 이성웅)는 5월28일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연합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비롯 수국사주지 자용스님, 남장사주지 성웅스님, 금하선원주지 청암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웅회장은 "예술인 불자의 사명감으로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투지 되살려 실직아픔 극복

김흥국 서울역서 '홈리스축구단' 창립



실직자들을 위한 홈리스축구단이 조직돼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가수 김흥국씨(사진)가 조직해 5월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창단식을 가진 홈리스축구단은 실직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흥국씨는 "실의에 빠져 역앞을 배회하는 실직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축구단을 조직하게 됐다"며 "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경기를 통해 실직의 아픔을 극복하며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창단식에서 이들 홈리스 축구회원들에게 운동복과 축구화 등을 나눠주며 이들을 격려했다. 실직자 축구단은 코메디언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파사현정 가르침 배워요"

사법연수원 29기 다르마법우회 선배와의 대화·참선법회 등 신행활발

사법연수원 29기 다르마법우회(회장 배성효, 한마음선원 청년회원)가 4월9일 창립 이후 참선, 선배불자 법조인과의 대화, 정기법회등 다양한 활동으로 신행을 강화하고 있다.

49명의 예비법조인들로 구성된 다르마법우회는 5월27일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박준수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초청하여 매월 1회 갖는 '선배법조인과의 만남'을 가졌다.

다르마법우회원들은 박준수판사로 부터 불교교리는 물론 불자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듣고 외문사항은 질문을 통해 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이어갔다.

다르마법우회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법원예식장 폐백실에서 법문테잎을 듣고 참선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첫주 화요일에는 능인선원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배성효회장은 "사법연수원 생활이 불심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29기 다르마법우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해사상선양회 대경지부 설립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대구 경북지부(지부장 이영창, 대구벤처기술투자연구소장)가 5월23일 대구진각회관에서 화산스님 명호근회장 경희대 김재홍교수 이상번 前대불청회장 서지원 시인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성덕스님(통화사주지) 유상종회장(대구신행단체연합) 김성규교수(영남대 의대)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탐방 육법공양회

"참회 정진 '연꽃향기' 전해요"

1992년 창립…불교의식·차문화 보급 자원봉사·여성불교대학 내달 개설

참회와 정진하는 생활을 모임의 가장 중요덕목으로 삼고 있는 육법공양회(회장 정승연)는 5일 오전 용인 관음사에서 보현행원품 독경과 1백8배 참회법회를 갖고 오후에는 다례원에서 다도수련회를 갖는다. 부처님 말씀과 전통예절을 배워서 하심과 불자덕목을 갖춰야만 이웃과 사회로 연꽃향기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6월경에는 총무원 1층에 여성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92년 10월 구룡사 만불전에서 열린 우리는 선우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육법공양의식을 재현하여 발표하면서 육법공양회는 발족됐다. 육법공양회는 교계의 중요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참가, 도량과 불단을 장엄하며 부처님에게 여섯가지 공양을 올리고 있다. 또 3개월에 한번씩 보름날에는 봉은사 미륵전에서 차회를 여는 것도 정기적인 행사다. 94년에는 관정의식을 발표했고, 또 불교의 관혼상제의식을 제현하기도 했다.

1979년 최범술스님(경남 다솔사), 전각가 안광석선생, 천승복선생, 로비스트 박동선씨와 쌍용그룹 김석원회장의 모친 김미희보살 등이 차인회를 만들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그러다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식감수에 고산 월운스님, 고증에 혜경스님 복식에 유희경 이화여대교수가 참여하여 그동안 끊어진 육법공양의식을 최초로 재현했다.



◇육법공양회는 지체 봉사활동도 갖는 등 불법홍포의 최일선에 있다.

올해에는 전국장애인불자연합회(회장 나경선) 창립기념법회에 참가하여 육법공양의식을 펼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김원우 기자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 워크숍

조계종 농촌살리기위원회, 실상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우리는선우, 불교환경교육원은 22일 오후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 주제의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불교귀농학교장 도법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 참선기초수행법, 화선호흡법, 행선염불, 금강경봉독법, 특별기도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삼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돌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혼돈되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않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 서있는 상태부터 숨을 내쉬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는 호흡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스승이라 비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수행하라.

⊙ 염불 辨 철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지 않으며 잡수룩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염불을 통해 허를 완벽하게 이완시키면 중풍, 치매, 고혈압이 예방치유되며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된다.

⊙ 신비의 도인 건강법

피로회복(20분), 소화불량(3분), 분면증(즉시), 화병(1달), 무좀(3회), 변비(순간), 비만, 고혈압(100일)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상태서도 쉽게 치유된다.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主人公이 되자 -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궤도이탈(軌道離脫)로 혼돈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빚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凉)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작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저 한다.

• 참 고 사 항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 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희를 맞아 평생의 숙원을 결실코자 함.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5월 18일 ~ 6월 19일
■ 개강일시 : 1998년 6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법회안내



운월스님(여래원 주지) 매달 넷째 일요일 10시 육군교도소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 기원법회. 매월 음력18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02)532-6800



우황스님(천은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기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일요법회. (0342)701-0770



지도스님(관오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인등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7시30분 가정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30분 청년회법회. (053)784-3669



재연스님(무량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가족법회 기초교리강좌. (062)971-8626



지광스님(삼선포교원 주지)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 7시30분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청년회법회. (02)922-965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6·25 순국선열 위령재
호국 금강사

한반도를 포화로 뒤덮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48년. 전쟁중 숨진 240여만의 고혼을 위로하고 휴전선 인근 성지와 전적지를 순례하는 '6·25 전몰장병 및 회생영령 위령대재'가 25일 당시 격전의 현장인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된다.

호국 금강사는 85년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함과 아울러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금강사리탑과 금강보궁을 건립한 호국성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6·25참전 16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가천도의식과 위령대재, 방생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후에는 도피안사와 심원사지, 노동당사, 월정리역, 제2땅굴 등을 돌아본다. (02)749-8646

직장인 위한 참선공간
길상사 열린 시민선방

일반인들을 위한 시민선방과 주말 참선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길상사(주지 청학)가 점점 늘어나는 수련자들을 위해 설법전 큰 방에 '열린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열린시민선방은 아침 7시~오후 12시 및 오후 1시~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주간반과 새벽 4시~오전 9시 및 오후 4시~밤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매 시간 50분 좌선과, 10분 포행이 진행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수련회가 없는 때에는 평일과 같이 열어두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참 수련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2)3672-5945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도 제4기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오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에서 참선이론, 앉는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한다. (051)466-4080

"혼돈떠나 자유찾자"
직지사 연수원에서

속박과 혼돈을 떠난 세상. 묵언속의 좌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통해 참된 자신을 찾게 해주는 여름 수련회가 마련된다. 김천 황학산 직지사(주지 녹원)에서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여동안 10여곳의 직장및 신행단체 여름 연수회가 열린다.

◇신행단체 직지사연수 일정

단 체	일정
조계사불교교양대학	20~21
동국대 산사와 생활	21~23
동국대 교직원	26~28
동국대 사회교육원생	7.2~4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7.4~5
은석초등교 연화어린이회	7.17~19
직지사어린이 자비학교 및 중고등불교학생회	7.20~22
대구불교방송 직원	7.24~26
지지사 교사불자회	7.30~31
한국불교연구원	8.13~15
부산불교교양대학	8.22~23
직지사 신행회 1일 출가	8.31



◇길상사는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참선수련을 할 수 있는 열린 시민선방을 열었다. 사진은 길상사 주말수련회.

설법들으며 명찰기행
불교신행硏 성지순례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두 번째 신행체험순례법회를 떠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불교신행을 곰소 체험하고, 사찰의 성보들을 공부하는 신행체험순례법회는 공주 마곡사와 아산 보문사로 11일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

특히 이번 순례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불교신행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02)582-6613

신라불상·건축미 감상
신라문화대학 개강

신라문화진흥원은 신라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제1기 신라문화대학 연구반 과정이 오는 7월30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마련된다.

연구반과정에서는 선불교의 종조(성본스님), 불교회화사(황상주 관장), 사천왕사와 황룡사(김상현교수), 통일신라의 공예(김유식학예연구사), 한국의 불교사(이봉춘교수), 불상의 이해(최민희선생), 불국사의 아름다움(윤경렬 옹)등 기초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심도있는 내용들이 언급된다. (0561)746-1950

삼배·합장에 깃든 의미
통도사 불자예절 강의

"나는 불자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사찰에 가서나 스님을 만났을 때 법당에 들어섰을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 그런 초발심자들을 위한 야간 신행학교가 개강된다.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0일부터 5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불자예절과 의식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합장하는 법부터 삼배, 법당예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절을 통해 단순한 의식을 넘어 그 의식에 녹아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삼배, 합장속에 온 우주를 담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불자가 되는 길을 야간 신행학교에서 배워보자. (051)816-2241

나의 수행일기



배 호 성
〈前 삼우화학 사장〉

"삼독심 버리고 검소하자"
부처님께 대신 가 달라고 빌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앙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 나또한 그랬다. 내 할아버지께서 아주 옛날 잠시 승려생활을 하셨던 인연으로 나는 불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봉은사에 다니며 소극적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갔었다. 그리고 항상 가슴속에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나름대로 불자로서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로 내 삶을 열어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96년 가을 내가 경영하던 삼우화학이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나는 나와 20여년 생을 온갖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한 반려자와 서울의 한 사찰에서 밤새도록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부처님 앞에서 울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의지해 온 부처님께서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었다.

지난해 여름 순천에서 대구로 가던 길이었다. 고속도로의 해인사로 가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해인사 길로 접어들었다. 회사가 엉망이 되고 난 후 나는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래도 처음 그렇게 되었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져야 할 것인데, 시일이 갈수록 점점 더해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의 고뇌는 더해갔다.



다시 다잡을 길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가야산의 부처님께 부탁 드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아만 때문일까. 입구의 비구니스님이 계시는 암자에서 나의 마음을 풀기로 하였다. 나는 법당 안의 부처님 앞에 섰다. 그리고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렸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보았으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또 갈 길도 모르면서 부처님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빌었다.

가야할 길도 없고 갈곳도 없는 우리 중생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나는 한없이 급해서 가야한다.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는 것만이 최선인 것으로 생각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앞에 섰다. 내가 갈 길을 부처님보고 대신 가시라고 빌었다. 나를 업으시고 말이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도 다른 불자들의 기도의 신통력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나는 많은 절을 하였다. 무엇이 부처님의 신통력인지 모르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탐욕심인 것을.

그리고 나는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래도 부처님을 뵙기 전보다는 훨씬 나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무난히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들려가는 나의 육신과 마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참회 하였는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업을 쌓고 인연을 만들고 그 물결에 휩싸여 갈곳도 모르고 갈곳도 없으면 떠내려 가는 또 하나의 업을 짓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의 기도며 참회란 말인가?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내가 뿌려놓은 업의 씨앗들이 세속의 길이지만 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하고, 내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나는 나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께서 못난 후손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주하신 공덕과 나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갸륵하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나는 전에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는 총지사의 참선기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나름대로 내 자신을 반추하고, 다시 재기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나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며 나를 도와 주신 여러 불자님들을 위하여 기도 하면서 살아 가야겠다. 나무 관세음보살.

게 시 판

♣ 강좌

△건강요법=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12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발반사 건강요법·향기요법·베이비마사지요법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3강좌 일괄 2만원. (053)784-3669

△불교입문=부산불교교육원은 제23기 불교입문자교육을 9일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주간반(오전 10시30분)과 야간반(오후 7시)으로 나눠 6개월간 불교기초교리, 사찰구조, 부처님의 생애, 불교수행법 등을 강의한다. (051)466-4080

△교양강좌=능인선원(주지 지광)은 위빠사나, 컴퓨터, 생활영어, 꽃꽂이, 서예, 수지침, 노래교실 등 교양강좌를 개설했다. 6월부터 3개월과정으로 진행된다. (02)577-5800

△어린이 총명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학습의욕이 상실되어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매일 방과후 1시간 무료 개인학습지도를 한다. (02)282-1100

♣ 모집

△컴퓨터 후원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에서 사용할 컴퓨터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03-0677

△한글·영어 강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한글·영어 강사를 모집한다. 월·수·목요일 수업가능한 50세 이상 주부로 관련학과 졸업자면 된다. (02)985-0161

△밑반찬 조리·소독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4시 사이에 밑반찬 조리를 맡을 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매주 1회 한 시간씩 불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집안소독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 답사

△강천사~불갑사=좋은인연모임은 6일~7일 순창 강천사, 부안 개암사, 내소사, 고창 선운사, 문수사 영광 불갑사 등지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051)647-8744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봉축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 날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칙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미조선사의 앉은 선 자삭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총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



◇이재순作 '석가모니불'.

■지금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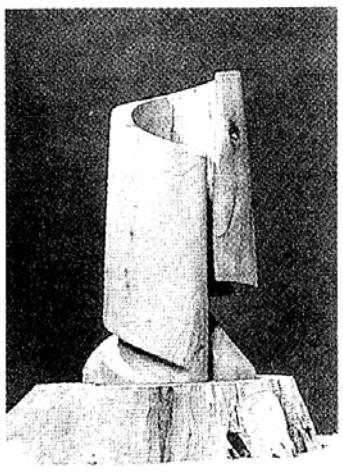
佛母 19명 대표작 전시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을 불모(佛母)라 한다. 불 보살상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그 시대상과 사회분위기도 은연중 드러난다. 이때문에 불상의 얼굴은 영락없이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고 한다. 이 시대 불모들이 제작한 대표적인 불상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여주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대 우리나라 불모 19명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서 전시하는 기획전시회 '불모(佛母)전'을 개최한다. 목아박물관 1층 전시실과 야외 조각공원에서 열리는 '불모전'에는 작품 경력 20년 이상 되는 장인들 19명이 참여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를 비롯 우백현 김기식 양봉철 이진형 이재순 한봉석 류수관 김광현 박찬봉 씨 등이 나무 돌 점토 등으로 제작한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해수관음 수월관음 약사여래 금강역사 지장보살 나한 등 다양한 모습이 공개된다.

또한 이영섭씨의 '사유상'과 남기설씨의 '구상'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상화시킨 불상의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 대부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 조각수리 기능인들로 불교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화려하고 전국 사찰의 불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찬수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불교조각의 전통을 잇고 오늘과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실험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조각의 발전을 위해 불모전과 같은 기획전을 연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기설作 '구상'.

(0337)85-9952

한편 12~15일 여주 도자기를 대표하는 태동회가 도자기 전시회도 함께 갖는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30〉

기쁨도 그저 그렇게

登嶺採茶 (등령채다)	고개 올라 찻잎 따고
引水灌花 (인수관화)	물 끌어 꽃밭에 대다
忽回首山日已斜 (홀회수산일이사)	머리 돌리니 햇살은 이미 기울다
幽庵出磬 (유암출경)	그윽한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古樹有雅 (고수유아)	늙은 고목에 까마귀 깃들어
喜如此閒如此樂如此嘉 (희여차한여차락여차가)	기쁘다, 이렇듯 한가롭고 이렇듯 즐겁고 이렇듯 아름다워
身着袈裟 (신착가사)	몸에는 가사를 입고
頂戴婆娑 (정례파사)	가즈런히 조아려 예 올리며
朝飮露夕餐飛霞 (조음로석찬비하)	아침엔 이슬 마시고 저녁엔 안개 밥
達磨何物 (달마하물)	달마가 무엇이며
臨濟誰家 (임제수가)	임제는 뉘 집인가
會見毫光乘雲氣託蓮花 (회견호광승운기탁연화)	마침 호광을 보고 구름을 타고 연꽃에 기탁하다.

연과대사의 사(詞)이다. 사는 장단구로서 우리나라 시인들에게는 흔히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연파대사에게는 여러 수의 사가 있으니 역시 대사는 여러 체의 시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시는 '화중봉낙은사(和中峰樂隱詞)'라 하여 16수가 전하며 10수는 유실되었다 한다. 사는 장단구로 여러 시형이 있어 사객이 자유로이 자신의 시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율시나 절구보다 사의가 개방 활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2수를 이어 소개한 것이다.

앞의 사는 산중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상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산에 올라 차를 뜯고 내려와서는 꽃밭에 물을 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해가 기울어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온다. 산사에서는 저녁 예불의 종이 울리고, 잘 새는 집을 찾아 되돌아온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다음의 사는 선승으로서의 생활이다. 가사 입은 단정한 모습에서 예불의 장중함과 달마다 임제다 하는 조사에게도 집착이 없는 선사의 일상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반가사유상 美 나들이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기념
국보 9점등 문화재 121점 8개월간 전시

한국 불교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국보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우리 문화재 1백21점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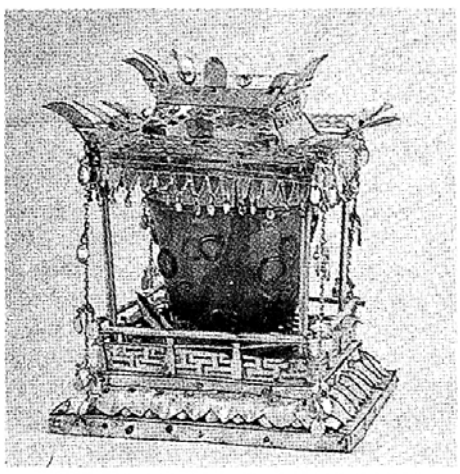
세계3대 박물관의 하나인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한국실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미술특별전'에 출품되는 유물은 국보 9점, 보물 24점 등 총 1백21점. 전시기간은 6월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9년 1월24일까지 약 8개월간. 해외의 단일 박물관에 이처럼 대규모로 장기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

한국미술전에 출품되는 문화재중 금동미륵반가상은 한국적 불상 모습을 완성시킨 가장 오래된 작품.

이외에 7세기 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입상(국보 183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국보 215호), 14세기 중반의 불화인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 고려시대 은입사정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청동은입사정병(국보 92호), 송림사5층전탑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보물 325호) 등도 8개월동안 현지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과시할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국립경주박물관, 호암미술관, 호림미술관 등 14곳에서 출품했다.

한편, 문화계 일부에서는 진품 문화재들이 대규모로 장기간 해외에서 전시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윤기석 기자



◇보물 325호로 지정돼 있는 송림사 5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에 8개월간 전시된다.

지역문화유산 책 내용 알차다

사료 · 답사안내등…포켓용도

지방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산 관련 책자들이 지역 문화재를 단순히 소개하는데서 탈피, 지역문화 연구이 기초사료를 제공하거나 주제별로 지역문화를 안내하는 등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문경문화원의 〈문경의 문화재대관〉, 상주문화원의 〈상주문화유적〉, 경기 광주문화원의 〈광주향토사료집〉, 홍천문화원의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은 향토사와 문화유적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기초사료가 되고, 영암문화원의 〈월출산의 불교유적〉, 안동문화원의 〈안동의 뿌리찾기〉, 충주문화원의 〈충주를 중심으로 한 옛 과거길〉 등은 답사객들을 위한 주제별 안내서. 또 성환문화원의 〈천안 매장문화재 관련자료집〉 춘천문화원의 〈춘주문화〉



등은 방치돼 있는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한 보고서이다. 특히 강릉문화원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켓용 수첩 〈강릉의 문화유적〉을 제작, 택시기사·관광안내원 등에게 배포해 지역문화유산을 알리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진의 옛 지도를 통해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든 당진문화원의 〈당진의 옛지도〉와 역대 서산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과 설문조사, 전문가의 연구 등을 통해 서산문화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서산문화원의 〈서산시 문화상징 조사 및 문화축제 기획방안〉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석〉

문화 단신

백두대간 남북사진전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조국 산하를 한눈에 보며 '하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남북한 공동 사진전이 11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안승일 문순화 김근원 등 남한 작가와 김용남 리성일 리태권 등 북한 작가 등 모두 71명의 사진작가들의 작품 12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02)705-0999

東大 국악과 발표회

동국대 국악과(학과장 박상진)는 5일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불교음악 논문·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동국대에 국악과가 지난 95년 생긴 이래 첫 졸업생이 될 4학년생들이 발표하는 이번 논문과 작곡 발표회는 전통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을 위해 헌신하게 될 국악과 학생들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당일 오후2시부터 시작되는 발표회에는 '식당작법의 의식에 대한 비교연구'(백명연)등 논문 4편이, 오후5시부터는 '예불'(심규헌) 등 창작곡 9곡이 발표된다.

봉은소년소녀합창단 모집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초등학교 2년~중학교 3년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소년소녀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 및 지도교수는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이며 선발되는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 각 불교행사와 해외에서 연주활동을 갖는다. (02)511-6070

북한본 고려사 CD롬 제작

한문 · 국역 검색-미공개 문화재도 수록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정사(正史)로 꼽히는 고려사가 CD롬으로 나왔다.

데이터베이스 전문개발업체인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는 최근 북한 사회과학원이 66년 번역한 고려사를 저본으로 〈CD롬 고려사〉를 제작, 고려시대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총 1백39권의 〈고려사〉를 두 장의 CD롬에 담은 〈CD롬 고려사〉는 어휘별 검색, 주제별 검색, 한문원본과 국역본 동시검색 등이 가능하며, 북한소재의 미공개 고려시대 문화재 슬라이드도 다량 수록하고 있다. 북역 고려사는 중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고유명사에 줄을 긋거나 주요단어와 문장에 주석을 다는 등 친절하고 상세한 번역이 특징이다.

누리미디어는 남북통일을 대비, 북한과 저작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 출판교류의 봇물을 트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거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쫑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초펠 스님 편역●
56 변형 178쪽/값 4000원
여시아문 펴냄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여시아문은 '붙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새로나온 책

▲극락세계2=부처님이 관무량수불경을 설하시게 된 이유는 불쌍하게 죽은 영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16가지 선정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이 16가지 관법과 함께 끊임없는 염불과 찬탄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길임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공파스님이 번역했다. 〈불광출판부, 6천원〉



▲동양철학 서양철학과 어떻게 다른가=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저자 양재혁교수(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는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비교 분석하면서 동양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양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살폈다. 〈소나무, 9천5백원〉



▲정화의 빛=정화사 혜명선원장 현호스님이 내놓은 심신정화의 명상시집. '봄봄봄 들음들음들음 앎앎앎/ 그것을 모르면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그것을 알면 날마다 좋은 날일세'(부처님께 절하며 中)에서 나타나듯이 스님의 구도열정과 불법의 이치가 시어로 녹아 내리고 있다. 발심수행에서부터 견성, 돈오, 보살도의 회향에 이르기까지 혜탈열반의 세계를 생활 속의 언어로 형상화했다. 〈연꽃마을, 5천4백원〉



▲우리 아이 큰사람 만들기=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인 함종한의원의 수상집.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보다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 문제가 곧 아이들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미래문화사, 7천원〉



중국철학의 요체는 불교

'중국 고대철학문제 발전사' 번역 5권 출간

인성-지성-이상적 삶 등 심층 분석
고승·철학자의 사상 통사적 접근



사람들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앎과 행위중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하는가. 그리고 이상적 삶은 어떻게 규정돼 왔는가.

중국 인민대학 방립천(方立天) 교수의 저서 〈중국고대철학문제 발전사〉를 번역한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중국철학과 이상적 삶의 문제〉(예문서원 刊)는 불교의 지행(知行)·인성(人性)·이상적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른 종교나 사상과 비교해 살피면서 이런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이 3권의 책은 선진시대의 노자 공자에서부터 위진남북조, 수당, 양송, 명청시대 등의 스님과 철학자 등 인물이나 학파를 위주로 한 통사체(通史體)적 접근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는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이자 하나의 철학이다. 맹자의 성선론과 순자의 성악론과 같은 인성론에서도 불교의 관점은 명백히 나타나 있다. 중국 진대의 불교학자 축도생(355~434)과 혜능선사는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선한 성(善性)'이라고 규정했다. 불성이 중생의 본성이자 최고의 지혜이며 궁극적인 진리이자 중생의 실체라고 본 것이다.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의 철학적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철학의 특징이 선명히 드러난다. 〈중국철학과 인성문제〉(박경환 譯)는 이외에도 도가의 자연중심주의적 인성론과 함께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담겨있다.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김학재 譯)는 불교의 다양한 지행관을 설명하고 있다. 동진시대 혜원스님의 선과 지(智)를 함께 중시해야 한다는 '선지병중(禪智幷重)'론과 축도생의 '돈오성불설' 천태종 창시자인 수당시대 지의의 '정혜쌍수'는 앎과 행함 모두가 중요하다는 '지행병중(知行幷重)'의 지행관임을 드러내 보인다.

저자는 불교의 종교적 지행 학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양방법과 결합한 것은 서양의 지행학설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철학과 이상적 삶의 문제〉(이홍용 譯)는 불교가 삶의 문제를 해명하고 그 해답의 제시를 기본과제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인과응보론과 같은 조건론을 이상적인 삶의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칫 인생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방립천은 중국불교와 철학을 연구해 왔으며, 이 책 역시 중국 불교철학이 중국 철학에 끼친 영향 및 작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고대철학문제 발전사〉는 모두 5권으로, 이들 3권에 앞서 〈중국철학과 우주본체의 문제〉 〈중국철학과 인식의 문제〉 두 권은 이미 번역 출간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진제스님 법어집 '염화인천'

"온국민 생활속에서 선수행을"



"참선이라는 것은 스님네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마음 속에 번민과 갈등이 없어지므로 마음 광명의 지혜가 밝아져서 만인에 앞선, 선견의 눈을 갖추어 태어날 때마다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년간 중생교화의 길을 걸어 온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이 4년전 〈돌사람 크게 웃네〉에 이어 두 번째 법어집 〈염화인천〉을 펴냈다. 여기에 실린 법어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씹다보면 남자와 모든 국민에게 선수행의 길을 가라는 깨우침이 행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종교와 인격 교육' 발간

교육풍토비판 대안제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펴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아름다운 세상 刊)은 종교의 기능과 종교교육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인격교육에 접근하고 있다. 또 인격교육에 대한 각 종교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했다.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가 현대의 인격교육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살폈다. 불교의 인격교육 이념은 누구나 부처와 같은 지혜와 자비를 지닐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교육도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창조적인 지혜인, 실천적 자비인, 주체적 자유인을 기르는 교육의 실현은 인간을 본래 불성의 존재로 파악하고 불성과 깨달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불교가 피교육자의 존재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독교적 인격교육은 피교육자의 인격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오인탁 교수(연세대)는 개방적이고 대화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의 교육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현재의 교육 풍토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각 종교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일깨우고 있다.

덧없는 세월속에… 혜민스님 지음

출가인연과 수행 담담하게 적어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 하나 얻게나〉는 혜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걸쳐있는 잔영들을 모은 자전적 에세이. 출가의 인연과 세상의 덫을 벗어난 자유로움, 맑게 헹궈낸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선다. 어렸을 적의 아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통렬한 해학, 그리고 침묵, 거친 세상 속에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가다듬으란 가르침인가.

"불교의 밀림 속에서 들여다 본 자유는 낭만이 아닌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처절한 허망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담담하게 독백하듯 내밀한 독경소리로 열린다. 〈들녘, 7천원〉

화제의 책

백년도 못살 인생… 윤청광 지음

자장율사 구도적 삶 소설로 형상화



'사람의 한평생은 참으로 잠깐이다. 좋은 일, 착한 일만 하기에도 모자라거늘, 하물며 어찌 감히 나쁜 짓, 치사하고 더러운 일에 정신이 빼앗길 것인가. 저 백골을 똑똑히 보아라' 선종랑은 원녕사라는 절을 짓고 백골관을 닦기 시작했다.

백골관(白骨觀)이란 백골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여 제법무아, 제행무상을 깨닫는 수행방법. 〈백년도 못살 인생 무얼 그리 탐하는고〉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구도적 삶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승단의 계율을 바로잡고,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해 국태민안을 발원했으며, 대국통의 자리를 박차고 산중수행에 들어간 스님의 인간적 고뇌와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언어문화, 8천원〉

'우리말 왕생의례집' 나왔다



영가를 천도하는 왕생의례의식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말 왕생의례집〉이 나왔다.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가 펴낸 〈우리말 왕생의례집〉은 상례·천도·제례 등을 집전하는 이와 동참한 이들 모두를 고려했다. 각종 의식문을 한글화해 동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식 순서대로 편집해 놓아 집전하는 이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추도의 노래인 왕생의식곡을 실어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

월주스님 '애장도서 특별전' 동참

문화관광부와 KBS는 5월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민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재도약의 지혜를 책속에서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독서캠페인, 일일책방 및 알뜰 문화장터 등의 행사와 독서진흥 특별기획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도서 특별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추천한 〈보현행원품〉이 애장하게 된 사연과 함께 전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장도서 특별전은 5일까지 계속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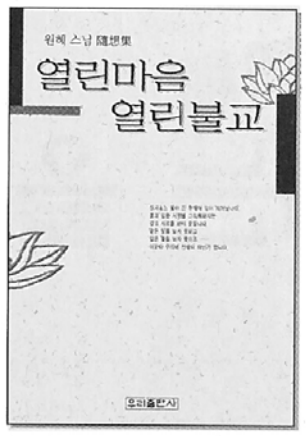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6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신 규 탁	장 경 각
7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8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10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원·혜·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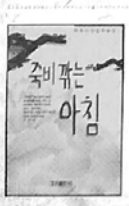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꺾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업고 먼 길을 흐르며 엮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아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훈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립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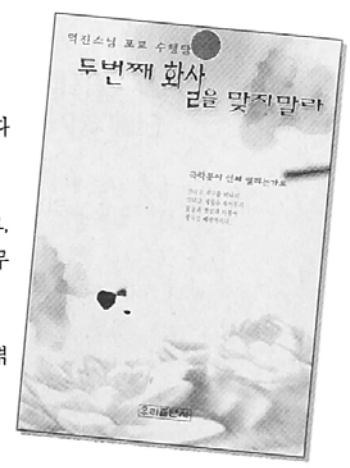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93-9

"유식·화엄을 동아시아 사상으로"

"7~8세기 한·중·일 보편담론이었다"
고영섭씨 '…불학스펙트럼'서 주장



"범부의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해 주는 길받침으로써 식(識)과 심(心)의 스펙트럼이 7~8세기 동아시아 사상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불교사상은 이 시대 보편적 담론(談論)으로써 역사의 정면에 다시 등장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소통구조'를 주제로 29일 열린 동국대 대학원 춘계학술제 학술발표회에서 고영섭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는 '7~8세기 동아시아 불학(佛學)의 스펙트럼-인식(識)과 마음(心) 패러다임의 긴장과 탄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씨는 "의식과 마음의 패러다임으로 표현되는 유식과 화엄은 대립(反)의 '긴장'을 넘어 역동성 부여를 통해 깨달음과 지혜라는 '탄력'으로 완화, 7~8세기 동아시아 사상계의 중심을 형성했다"며 "교학적 언어에 치우쳐 있는 오늘날의 불교사상도 실천적 모습을 되찾고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7~8세기는 유식과 화엄의 인식틀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다수의 사상가들이 출현, 불교의 문예부흥을 꽃피웠던 시기. 화려한 수사와 난해한 개념을 동원하는 이 시기의 두 사유는 현장(중)-원측(한)-선주(일) 등으로 대표되는 유식, 지엄(중)-의상(한)-심상(일) 등으로 대표되는 화엄, 유식과 화엄을 동시에 아우르는 원효와 법장, 선의 혜능(중)-무상(한) 등으로 자리매김된다.

고씨는 "이 시기 담론의 중심이 유식과 화엄이었음은 〈기신론〉과 〈화엄경〉의 구절을 차용하여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며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임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의 보편성(一心)을 발견한 원효의 '오도송'에 압축돼 있다"며 〈성유식론〉 〈화엄경〉 〈대승기신론〉 각각에 나타난 담론을 제시했다.

〈성유식론〉의 담론은 유식수행은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번뇌가 있는 의식(인식)을 돌이켜 번뇌가 없는 지혜(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화엄경〉의 담론에 따르면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이라 설한다.

특히 원효와 법장이 주목하였던 〈대승기신론〉의 담론은 〈성유식론〉과 〈화엄경〉의 논의를 포괄하면서 이 시기 주요 담론의 전반을 형성했다. 〈대승기신론〉의 담론에 따르면 일심의 두 측면인 심진여문(理·覺·性起)과 심생멸문(事·不覺·緣起)을 통해 중생심에 대해 설하며, 일심을 중생심이자 대승심이라고 설하고 있다. 즉, 이 세 텍스트에서 말하는 식과 심의 문제는 깨달음을 향한 중생의 식과 부처의 식을 단절시키느냐 연속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고씨는 "중생들의 성불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부처와 범부의 간격을 없애려는 노력이 7~8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 불학의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인식과 마음의 패러다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섭씨는 "최근 일고 있는 동아시아 정체성 회복 움직임은 서구 중심의 거대담론과 과학 및 합리로 포장된 '서구'라는 환상에 대한 만성을 통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거울 앞에선 동아시아인들의 '뜨거운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동아시아에 형성됐던 식과 심의 패러다임은 오늘날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동아시아 학문에 관한 담론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일제하 불교개혁론 시대적 산물"

김광식씨 '근대불교개혁론…'서 주장



근대 불교개혁론은 한국불교 발전을 도모하는 자주적 개혁론이기보다는 일제치하 보수교단에 대한 '촉구'라는 한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는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29~30일 대진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춘계학술대회에서 '근대 불교개혁론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 근대 불교계의 동향을 토대로 "불교개혁론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라는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당시 불교계의 안일한 보수 상황을 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유신을 통해 불교계를 발전시키려는 입장이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제국주의의 문명론 및 종교의 본질을 완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기 정체성 수호 및 민족불교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상로와 박한영의 불교개혁론과 관련 김씨는 "국권상실이 역설적으로 불교의 중흥 및 발전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개혁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영재, 백용성 스님의 개혁론은 3·1 운동 직후 현실인식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영재의 '불교혁신론'은 일제 식민지의 모순을 극복하되 개혁의 추진을 교단혁명 및 불교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백용성 스님은 '전통불교 수호'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혁신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의 개혁론은 모두 10년간의 일제 불교정책의 폐해를 이해하는 토대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학술단신

8일 신라문화학술회의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8일 오전 10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제17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갖는다.

'신라고분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라의 마구(馬具)(김두철·동국대 박물관) △적석목관분 소멸기의 재문제(박보현·대전보건전문대) 등이 발표된다.

'백제논총' 6집 발간

백제문화개발연구원(원장 김보현)은 최근 〈백제논총〉 제6집을 발간했다.

'백제의 건국과 한성시대'를 주제로 열렸던 제2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백제의 국가형성과 백제토기(박순발·충남대) △백제 한성시대의 기와와 성 등이 수록돼 있다.

"조선시대 승려도엔 억불 사회상"

최순택교수 '조선 승려도 연구' 발표



수묵담채로 그려진 승려도(僧侶圖) 연구를 통해 "한국의 승려도에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승려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정서가 반영, 다양하게 표출됐다"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98년도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최순택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는 '조선시대 승려도 연구'를 통해 "중국의 승려도는 풍류를 즐기는 스님들을 즐겨 그린 반면 한국 승려도의 특징은 성(聖)과 속(俗)의 양면성을 표현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별로 나타난 승려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수묵 승려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선증기 연담(蓮潭) 김명국(1600~1662)의 '투기도(鬪碁圖)'는 바둑을 두다가 심하게 다투는 스님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표현, 김명국이 스님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또 조영석(1686~1761)의 그림에 표현된 스님의 이미지는 바싹 여윈 스님의 얼굴이나 유난히 튀어나온 광대뼈 등 탈속과는 거리가 먼 속(俗)된 분위기의 스님상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사고가 은연중에 드러나 있으나 김홍도(1745~1806)의 '노승영불도' '염불서승도' 신윤복(1758~?)의 '니승영기(尼僧迎妓)'에서와 같이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승려도는 한국적 정취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최교수는 "이러한 양상은 5백년간 지속된 조선왕조의 숭유배불정책에 따른 시대적 환경이 화가들의 사고와 작품의 주제선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조선이후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그려진 승려도에는 전시대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우수와 고독감이 배어있는 점에서 그점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화·예술

'인코어' 등 7백여 사이트 가동
각국 불상·조각 등 비교 감상

네티즌이 널리 사용하는 검색엔진 인포-식(infoseek.com)으로 색인 가능한 불교문화·예술 사이트는 총 7백여개. 컴퓨터와 모뎀, 인터넷 주소만 숙지하고 있으면 다양한 불교문화·예술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인코어(INCORE·http://www.incore.com/india/) 사이트는 세간에서 인도 불교문화·예술의 진수로 꼽는 산치(Sanchi), 바르후트(Bharhut), 보드가야(Bodh-gaya) 등의 유적지에 산재한 불교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서 경전·불교설화로부터 주제를 얻어 조각한 각가지 부조물들로 이루어진 산치대탑을 비롯해 인도 보팔(Bhopal) 지방의 빌사 언덕에 흩어져 있는 유적 소개가 백미. 이 사이트에서는 석가모니가 니련선하에게 보인 기적, 사위성의 신변(神變), 사문흘유, 코끼리왕·서민의 보리수 예배, 삼도보계(三道寶階) 등의 조각품을 선명한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전설-예술과 수공예(Everest Legendary Art and Handicraft·http://www.world-products.com/everest-legendary/) 사이트에서는 네팔·티벳 등 히말라야 지역의 탕카 불상 등 40여종의 예술품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전시된 탕카는 주로 부처님 생애, 점성술, 티벳불교 교리 등을 주제로 제작된 아미타불, 보생불, 석가모니불 등이 있다. 또 카트만두 분지에서 볼 수 있는 금강살타, 승락존 등의 네팔불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티벳인들이 사용하는 기도깃발의 다양한 모습도 생생한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티벳인들은 자주 다니는 산길에 경전 내용이 쓰여진 깃발을 세워놓고, 이동 중에 예불 시간이 되면 이 깃발을 향해 불교의식을 올린다고 한다.

△동경국립박물관(http://www.kyohaku.go.jp) 사이트의 일본불교 예술품도 볼만하다. 일본에서 불교문화는 6세기경 쇼토쿠 태자가 집권하면서 융성해졌다. 그림·조각·서예·염직 등의 장르로 구별, 전시하고 있는 동경국립박물관에서 불교미술품은 '8관'에서 볼 수 있다. 이곳의 미술품 중에는 쇼트쿠 태자의 죽음을 슬퍼한 왕비가 불(佛)의 세계를 자수로 구상화한 천수국 만다라, 쇼쇼인의 마포보살, 태장계 만다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아시아학회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알부쿼어퀴 가상박물관(Albuquerque·http://asianart.com/exhibitions/)은 고다 티벳불상을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상에는 12세기 관음보살상, 10세기 석가모니상과 아미타불상, 결연꽃자리 위에 앉아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14세기), 칼마파(9세기) 등 13종의 불상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문화사학자 △핏츠윌리엄의 피츠위(http://fitzw.com/fwbooks.htm) 사이트는 불교예술 관련 총 80여종의 서적을 소개해 놓고 고대 불교예술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들은 사이버 서점 아마존(http://amazon.com)에서 통신구매도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



◇미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에게 종교자유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도지슈겐 추종 티벳스님들.

"달라이라마는 종교자유 보장하라"
도지슈겐 추종 승려들 美서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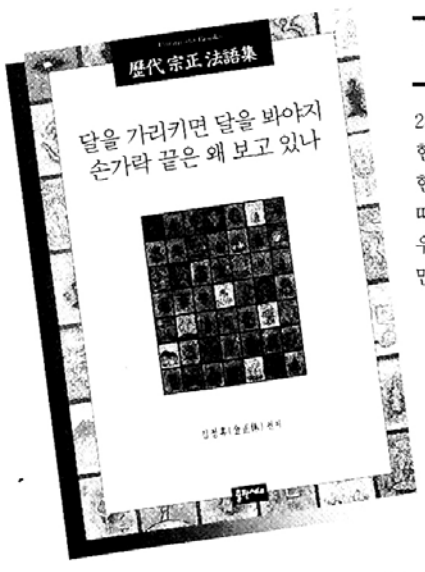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 5월6일 1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맨하탄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티벳 종교지도자로서의 예우가 아닌 티벳승려 시위대를 만나야만 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130여명의 티벳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에게 티벳불교 승려 도지슈겐(Dorje Shugden)의 추종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 시위를 전개했다는 것.

도지슈겐은 350년전 금강계 티벳불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탄트릭 요가수행을 강조한 티벳승려. 최근 티벳불교계에서 도지슈겐의 수행을 따르는 승려들이 늘어나고 도지슈겐을 부처님과 동일시하자 달라이 라마는 티벳승려들이 도지슈겐의 수행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했다.

뉴욕 티벳하우스 소장 로버트 써만(콜롬비아대 교수)은 "도지슈겐의 교리와 수행은 티벳불교계의 다양한 종파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달라이 라마는 도지슈겐의 추종자들이 배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종자들은 "국제사회 속에서 티벳의 입지를 악용해 수백만의 도지슈겐 수행자들의 정신적 삶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미 유럽, 인도, 미국 등에서 1천5백여명에게 '금지령 철회 요구 성명서'에 서명을 받았다.

출판시대 TEL (02)3443-4307 FAX (02)3443-4308
Paramita Books
歷代宗正法語集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2천만 불교인 뿐만 아니라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억저.
현 종정이신 월하 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 등 역대 종정 법어집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처음 보이는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法語)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역대 종정 스님들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하—마음 밖에 부처가 존재치 않으니
성철—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담—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효봉—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동산—부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서옹—선(禪)이란 참 나를 찾는 길
고암—부처님은 광명이오, 불변의 진리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편저/496면 값 15,000원 ●법보시용으로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시대의 걸승(傑僧) 정휴 스님의 불교신문 인기칼럼 모음집
천수천안(千手天眼)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지음/200면/값 6,000원

되살아나는 붓다의 가르침
석가의 본심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득도(得道)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놓은 책. 팔정도(八正道)와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 공(空)의 사상 연기법(緣起法) 등 석가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ㅆ 불교에 밝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불(成佛) 가이드.
●오카와 류호 지음/강영숙 옮김/값 10,000원

불교TV회제의 프로그램 드디어 출간!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密敎)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높은 책으로 안내서.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밀교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성불(成佛)에 대한 밀교의 견해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불교TV에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단행본으로 펴냈다.
●대한불교진각종 혜정 지음/값 12,000원
절망 뒤에도 희망은 있다
'역학의 대가'로 알려진 백운학 운명감정 40년 상담 에세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인생상담에 응한 사례를 엮은 책
●백운학 지음/256면/값 7,000원
너의 運命 얼골에 있다
마의천(麻衣天) 선생의 얼굴빛 관상학!
제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이 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마의천 지음/400면/값 15,000원
T 3443-4307 F 3443-4308 출판시대

한형조 무문관 탐방 51

마조의 딱지돈 ③

"평상심이 道, 오염시키지 말라"

초월적 실재 없어 "진리 찾겠다" 또다른 지옥업

깨달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불법(佛法)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싱겁기 그지없다. 조주는 학인이 부처의 진리를 물을라 치면, "차나 한 잔 들지(喫茶去)"라고 권했다. 여기엔 아무런 신비적인 낌새가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이다. 너무나 싱거운(?) 이 진리에 범신론적 억지나 무리한 형이상학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선은 신학이 아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초월적 실재나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 오죽하면 자기 종교의 창시자에게 '똥 치는 막대기'라는 불경을 서슴지 않겠는가. "부처를 말했을 때는 세번 입을 씻어라" 정도는 차라리 온건하다. 단하(丹霞)는 흡다고 법당의 목불을 도끼로 쪼개 캠프파이어를 해 버렸다. 놀란 주지가 억장이 막혀 발을 구르자 태연히 "우리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라며 재를 뒤적였다. 목불에 무슨 사리냐고 다그치자 단하는 "사리가 없다면 부처님이 아니지"라며 쏘아부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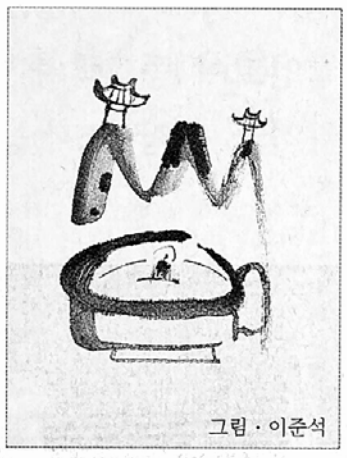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선은 더 이상 구원의 문제와 신학과 종교로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충고한다. 초자연적 실재란 없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實際)를 이 법계(法界)의 해인삼매(海印三昧)를 선가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상징과 역설을 통해 엿보인다. 그것은 '우물이 나귀를 엿보는' 세계이며, '돌계집이 아이를 낳는' 세계이며, '앞산이 물 위로 가는' 세계이며, '해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세계이며, '춘향이가 술을 마셨는데 이도령이 취하는' 세계이며, '뜰 앞의 잣나무'의 세계이며, '불성이란 없는' 세계, '부처도 태어나지 않고 달마도 건너오지 않은' 세계이며, '마음이 곧 부처'인 세계, 또 '마음이 부처가 아닌' 세계이며, '마음도 부처도 아무것도 아닌' 세계이다. 언설에 붙잡히면 실제를 놓친다. 양귀비가 소옥을 부를 때 등장하는 것은 숨겨놓은 낭군인 것을.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들은 기실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마조는 말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아닌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일상의 공간에서 때가 되면 옷을 걸치고 종이 치면 밥 먹으러 간다. 길이 성스러운 태(胎)를 기르고, 진정한 자유의 흐름(任運)을 얻는다. 이밖에 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질투와 시기, 선망과 기대, 욕망과 좌절의 흔적이 없을 때, 일상적 마음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없이, 욕망의 흔적과 조바심 없이 관할 수 있을 때, 그곳이 곧 구원이고 법계이다. 진리란 피곤하면 눕고 졸리면 자는 것일 뿐, 이밖에 무슨 특별한 소식은 없다. 오늘 지은 업이 마음의 창고(如來藏)에 아무런 찌꺼기나 흔적(種子)을 남기지 않고 또 내일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부처이다. 불교는 특이한 행동이나 남다른 독창, 혁명이나 성취에의 열정을 고취하지 않는다. 반대하지도 않는다. 반대는 또 다른 분열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마조는 말한다. "도(道)는 굳이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무엇을 오염이라 하는가. 생사(生死)를 의식하여 조작하고 선택하는 일체가 그것이다. 도와 곧바로 만나고 싶은가.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니라(平常心是道).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인위적 조작과 주관적 가치관단이 없고, 의도적 선택이 없는 것, 존재에 대한 고착이나 방기가 없고, 진리에 대한 환상도 없는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 경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범부의 행(行)도 아니고 성인의 행도 아닌 것, 그것이 보살행이라고. 다만 이렇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상황에 따라 응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이고 그 세계가 바로 법계이다."

아무런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 안한(安閑)의 아타락시아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다. 불교는 바로 그 자리를 꿈꾼다. 어느 시인은 "내가 풍경이 되어 피어날 때 그때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라고 읊었다. 산책길에 문득 핀 한 송이 꽃을 볼 때, 그때 보는 나와 보이는 꽃은 분리되지 않는다. 오직 보는 과정만이 있다. 내가 그 삼매(三昧)에서 벗어나 꽃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쓰다말고 나온 논문을 떠올린다면 그때 전일(全一)의 평화는 깨어지고, 그와 함께 자아는 실제(實際)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분리는 자아와 타아에 대한 이미지(相)를 낳고 이 분열된 이미지들이 착종하고 갈등하여 혼란과 고통이 증폭된다.

그렇다. 부처를 자유롭게 하자면, 모든 인위적 형식과 타율적 규율을 치워주어야 한다. 그때 정신은 자신의 자유로운 운용을 구가한다. 분절과 이원화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은 레세페르의 창광자자(猖狂自恣)로 이어지지 않고 자발적 힘의 불사의(不思議)한 공능(功能)을 회복한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를 무위(無爲) 또는 무공용행(無功用行)이라 한다. 진리를 찾겠다는 것조차, 진리를 위해 살겠다는 것조차 또 다른 지옥업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순수한 마음으로 善을 행하라"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2



우리가 유정 무정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 너, 우리, 그들 등과 같은 분별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티벳의 고승 칼루린포체(Kalu Rinpoche · 1905~1989)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원한 뜻이 담긴 시를 남겼다.

당신은 사물의 감각적인 느낌과
미망(迷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삶은 현실이지만 당신은,
자신도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사

정업 ②

실을 잘 모른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애초 존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일
수도 있는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팔정도의 가르침이다.

그는 이 시에서 우리에게 바른 행동의 토대가 되는 미덕은 해를 끼치지 않는 과정에서 나오며 불가사의하면서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삶은 유정 무정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각(知覺)에서 나오는 것이며 경험의 세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가사의하며 실제적이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심신(心身), 말, 마음 등 모든 것과 연관지어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팔정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덕-어떻게 말할 것인가? 친철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은 우리가 더욱 행복할 수 있게 해

남 해치지 않는 긍정적 사고에서 바른 행동 나온다

주는 방편이다. 정당하고 진실한 행동,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명상수행하며 정심(靜心)을 유지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방편)이 팔정도의 길이며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강인한 수행력을 안겨준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전진하라, 비구여! 자비의 세계와 인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소리높여 외쳐라, 비구여! 놀라운 불법과 너의 삶이 배우는 신성함, 완벽함, 순수함을"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재가불자들이여! 우리의 주요 수행은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수행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이 길은 항상 미덕과 함께 있다. 따라서 수행이란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 세간(世間)에서 아힘사(해를 끼치지 않는 것)를 배우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하는 고민의 과정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수천의 군사와 싸워 이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신과 싸워 승리를 얻었고.
더욱 위대해졌다. 왜냐하면
타인(他人)이 아닌 자신을 다스리고 수행해.
진정한 자유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진정 우리는 강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는 명예롭고 정직함에서 오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또다른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힘을 적절히 사용하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놀라운 수행력을 견지할 수도 있다.

바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길러야 한다. 먼저 유정 무정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제력'이다. 이때 자신이 얽매여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가지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긍정적인 사고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한 사람이 "부처님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침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좋다. 해를 끼치는 것을 삼가고 너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요지다"라고 대답했다. 이 세상의 유정 무정물에 마음을 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1

불교와 수학 56

플러스 사고

김 용 운

세포는 ON, OFF 두 가지 선택을 하는 (0, 1)의 2진법의 구조이며, 인생을 거대한 건반을 갖는 피아노에 비유할 수 있음을 말했다. 이 인생 피아노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 가고, 또 앞으로 등장하는 전인류의 수보다 더 많다. 또한 앞으로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인생의 묘미가 있다.

공자는 "사람이 이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발이 무거워지는데 애인을 만날 때는 날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달려간다. 공자는 그리운 애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학문을 대하면, 안되는 공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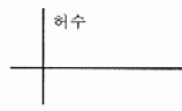
인류 흥망사에 관통하는 진리는 어려서부터 성을 자극해 온 민족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는데 반해, 학문을 숭상하고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민족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일부 열대 지방에서처럼 어려서부터 온몸을 흔들며 성의 자극을 일상화하는 곳에서는 문명이 발전할 수 없는 미개의 상태로 있다. 한국이 어려운 역사를 지녔음에도 문명국으로써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을 숭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성은 본능이기에 누구나 쉽게 자극을 받는다. 그것을 억제하여 남은 에너지를 학문이나 정신 생활에 쏟을 때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며 민족적으로는 문명을 꽃피우게 된다.

과학은 실증주의를 전제
연기의 얽힘 보는 눈 열려야

불교의 '일체 유심조' 지혜
긍정적 사고 전환 도와

필자는 인생이 거대한 피아노임을 거듭 말한다. 그 가운데 성에 관한 부분만을 계속 두드린다면 정신의 건반은 계속 잠자고, 결국엔 퇴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요컨대 ON과 OFF의 선택이 다양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며, 쉬운 말로는 '플러스적 발상'을 하는 것이다. 플러스적 사고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도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불교적인 지혜가 요청된다.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도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ON으로 돌릴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연기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또 하나의 연기의 씨가 되어 다음 순간의 일을 결정한다. 가령 지금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는 상태를 가정해 보자. 돈도 들고, 활동도 못하니 블림없이 불행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상에 있음으로써 조용히 신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간관계와 미래의 설계를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학의 시대에 심각한 폐단은 모든 것을 합리의 틀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과학은 실증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이 사고에 얽매이게 되면 합리의 틀을 초월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의 얽힘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질적 현상은 표면상 합리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물질적 관계를 일으키는 요소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플러스적 사고로 유전자를 자극하고, 그것을 적극적인 국면으로 돌리는 것이다. 복소수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의 세계는 수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불교의 마음의 철학은 플러스적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수의 세계를 현실의 물질적인 세계이며, 마음의 세계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허수의 세계이다. 같은 실수일지라도 그 뒤에 붙는 허수의 위치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유전자가 신비스러운 움직임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허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세포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유전자의 세계는 그보다 한 단계 차원이 작은 극미의 세계에 있다. 그 방대한 유전자의 수 가운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겨우 10% 정도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마음의 세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눈부신 과학의 성과에 매여 그것만을 주목할 때,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수의 세계를 실수만으로 보고 있을 때는 차원높은 복합적인 세계를 외면했었다. 마음 세계, 특히 플러스적 사고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일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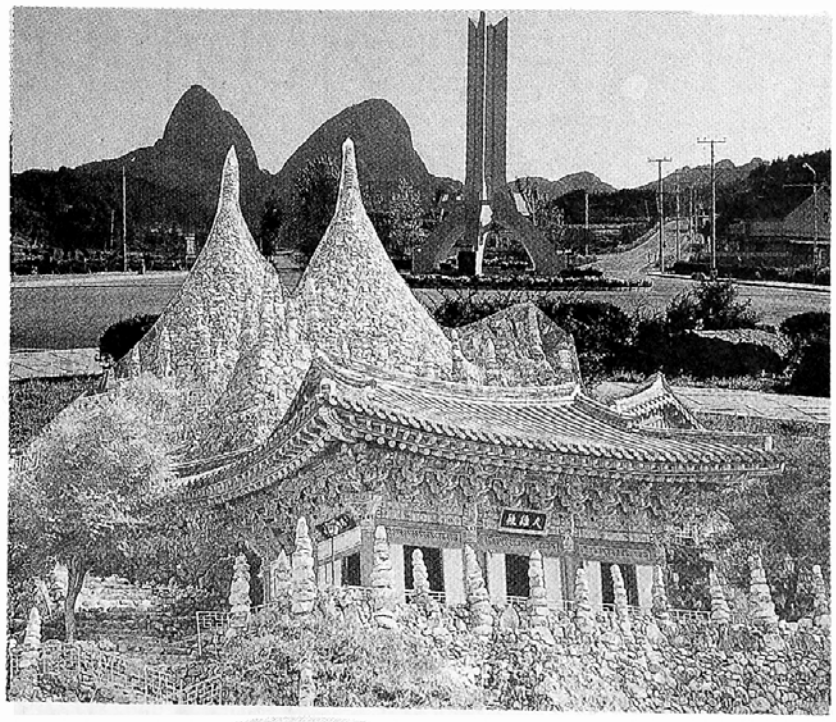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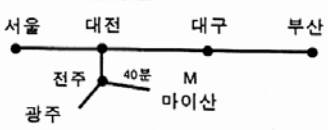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몸짓으로 얻는 '열반의 희열'



◇숲, 물, 바람, 흙, 태양…. 자연속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과 호흡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홍신자씨.



◇ '순례'는 삶의 호름이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이며, 그 깨달음은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산문밖의 禪

전위무용가 홍신자씨

"춤은 완전한 자기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관객도 자아도 의식않는 에너지의 흐름
나를 보이려는 춤은 춤이 아닙니다"
30년동안 몸짓으로 끝없는 마음공부
'춤=자유=명상=구도'는 그녀의 화두



춤, 자유, 명상, 구도, 홍신자!
어디에서건 아무때고 춤추기를 잘하는 여자.

그녀가 무대에 섰다. 구도의 춤. 춤은 그녀에게 종교와도 같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구속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춤과 간난다. 그리고 춤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이룰 수 없는 저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관객과 서로 만난다.

그러하기에 예술의 전당 개관 10돌 기념으로 5월 27, 28일 양일간 선보였던 최신작 '순례'와 '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번에 공연된 '순례'와 '새'는 지난해 세계연극제 기간동안 열린 한국 현대무용가 초청공연에서 초연되었고,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호랑이 해-한국축제' 공연에서 "열반의 희열"이라며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순례'는 영적인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종교적 여행을 뜻한다. 평화와 마음의 고요는 누구에게나 '갈망'의 대상이다. 그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길고도 험난하다. 50cm의 목발을 신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무용수의 경직되고 느린 몸짓은 강인한 힘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인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순례의 끝은 삶 그 자체처럼 급격이 바뀐다.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찾아 떠난 여행이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의 제 경험을 토대로 표현했습니다."

'새'는 춤꾼 홍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적인 사물의 관찰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우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의 존재에는 그 속에 내재된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고, 저는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흐름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고, 인간은 변화의 과정에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죠. 삶의 흐름은 곧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61번 공연은 각각의 작품인 순례와 새를 한 작품으로 구성한 복합다층구조다. 자아에의 탐구라는 그녀의 삶의 형식을 춤이라는 틀을 빌어 표현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나의 춤은 완전한 자기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관객을 의식해서도 안되고, 자아를 의식해서도 안되고, 오직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몸에 실려서 저 영원의 율동으로 남게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아(無我)의 상태입니다. 무아의 상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의 상태죠. 춤은 그 자유로 가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춤추는 자와 보는 자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그 감동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린 자유의 희열을 교감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추는 순간 사라지는 춤. 춤은 보이지만 춤추는 자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자의 영혼에만 와 닿을뿐, 그 흔적은 남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춤은 무엇을 증명하거나 제시하기 위해서 추는 것이 아니예요. 춤은 등의 아름다운 선을 자랑하고 팔다리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춤은 보이지 않고, 춤추는 자의 몸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춤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봐주세요'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춤은 보는 이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것은 춤이 아닙니다."

춤에 대한 그녀의 의식은 단호하고, 순결하다.

73년 첫 창작무용 '제례'를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의 전위무용가 홍신자는 한국여인들의 응결된 한을 작품화 한 독무 '나선형의 대각선'을 통해 죽음의 연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회오리 바람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다. 그리고 웃는돌 무용단과 함께 한 '섬'은 혹성의 하나인 지구를 우주라는 바다에서 침몰할 수 있는 섬으로 해석해 내 문명비판적인 눈높이 작품이라는 극찬을 또한번 받았다. 희노애락,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그녀 춤의 화두다.



◇춤꾼 홍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새'에서 그녀는 배일간 작은 새 한마리로 무대에 섰다. <사진=고영배 기자>

그녀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몸짓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첫 작품 '제례' 이후 그녀는 자유를 위해 어렵게 시작했던 춤을 버리고 또다른 자유를 찾아 인도로 떠났다.

홍신자의 인생에서 인도는 새로운 정점이다. 76년~79년 인도에서 머문 3년은 무용가로써의 그녀의 삶을 더욱 질기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라즈니쉬는 홍신자의 춤을 보고 말했다. "너는 무용을 그만둬서는 안된다. 나는 네 몸과 다리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얼마나 춤속에서 스스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다. 너는 타고난 무용가다. 결코, 무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계속해라. 너에겐 춤이 곧 구도의 길이 될 것이다. 춤의 신비, 춤의 순수, 춤의 자유, 그것이 너의 길이다. 너는 그 길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야한다."

그녀는 라즈니쉬로부터 마 푸렘 바티아(Ma Prem Vartya)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계(戒)도 받았다. 푸렘은 사랑을, 바티아는 회오리바람을 뜻한다. 사랑의 회오리 바람.

라즈니쉬를 만난이후 그는 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다. 라즈니쉬는 춤을 떠나려던, 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마냥 추기만 하던 그녀에게 춤을 새로이 일깨워 주었다.

라즈니쉬 곁에서 보낸 2년 가까운 세월은 바로 자신을 부수고 죽이는, 또 언제 그것이 되살아나더라도 죽일 수 있는 연습을 해두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오랜동안 언제나 그녀에게 있어 구도의 중심은 춤이었다.

꿈꾸는 듯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또,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녀만의 독특한 춤, 알듯말듯한 그 춤의 세계를 사람들은 명상춤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 춤을 체험하는 관객들이 그 일부분인 명상적인 요소들을 보고 명상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춤은 자연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을 모토로 한 자연적인 움직임이죠. 내 춤은 자연속에서 시작돼 마음의 필터를 거쳐 나와 몸을 도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상태다. 너무나 자연과 멀어지고 있는 요즘같은 하이테크시대에 물질적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정신적 마음 상태로서의 자연 모두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두가지가 충족된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시골 야산 중턱에 야외공연장과 함께 그녀가 정성들여 지어놓은 흙집과 통나무집, 그리고 몽고텐트가 웅기중기 어울려있는 한적하고 아담한 '웃는돌 명상센터'. 이곳에서 전위무용가이자 자유인이며 자연인인 홍신자는 비정기적으로 명상캠프, 물단식, 포도단식, 마사지캠프, 태극권 등의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로마테라피 겸 명상캠프, 주말노동 명상캠프도 열었다.

깊은 사색과 명상에서 이끌어진 결단력과 그에 뒷받침된 실천으로 항상 앞선길을 춤으로 보여주는 홍신자.

30년전 27살의 나이로 낯선 이국땅에서 육체를 찢는 고통을 이겨내며 자신의 자유를 펼치기 위해 무용을 시작했던 그녀는 육신의 나이를 잊은지 오래다. 그녀는 춤에 대한 구도에 대한 정열을 분출하는 젊음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아직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도 '영원히' 구도의 춤꾼으로 무대위에 서 있을 것이다. 춤을 출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듯 저또한 많은 무대에 섰었지만, 마지막 무대는 결국 자연이 아닐까요!"

이은자 기자



◇구도의 춤꾼 홍신자는 깊은 사색과 명상속에서 새로운 길을 춤으로 보여준다.

죽산국제예술제

자연과 환경친화 예술의 만남
4일~7일까지 안성 '웃는돌 명상센터'

오는 4일~7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웃는돌 캠프에서는 홍신자씨의 춤과 명상, 그리고 동아시아 예술인들이 어우러진 한바탕 바람이 일어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위예술인들이 함께 펼치는 죽산국제예술제가 바로 그것.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죽산국제예술제는 홍씨가 93년 영구 귀국한 후 95년부터 매년 열어왔다. 죽산국제예술제는 신비한 자연과 예술의 어우러짐을 보여주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동아시아의 현대 예술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홍씨와 웃는돌 단원들의 원력으로 이뤄내고 있는 죽산예술제는 예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향한 끊임없는 순례다.

'자연과 환경친화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죽산국제예술제는 무용, 음악, 설치와 행위예술, 영상,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동아시아의 바람'을 부제로 공연되는 음악은 임동창씨의 피아노, 홍신자씨의 소리, 일본 오치 형제의 타악연주 등으로 꾸며진다. '자연에서의 재활용성'을 부제로 진행되는 설치작업은 목각장 인간문화재 박찬수씨의 목각조형을 비롯해 일본 오키게이스케의 컴퓨터 설치작업 '뇌파' 등이 선보인다. 이와함께 태극권, 기무용, 명상워크숍과 진흙목욕, 요리축제 등 관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0344)676-8901



◇한·중·일 삼국의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죽산국제예술제는 음악·무용·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세계가 펼쳐진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사문품(沙門品) ③

當學入空 당학입공
靜居止意 정거지의
樂獨屛處 낙독병처
一心觀法 일심관법

마땅히 공에 들기를 배워
조용히 머물며 뜻을 쉬고
홀로 그윽하고 고요한 것 즐겨서
한마음으로 진리를 비춰라

常制五陰 상제오음
伏意如水 복의여수
淸淨和悅 청정화열
爲甘露味 위감로미

항상 오음을 억제하고
뜻을 항복받아 고요한 물 같이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고르고 즐겁기가
마치 단 이슬 맛 같으리라

不受所有 불수소유
爲慧比丘 위혜비구

止身止言 지신지언
心守玄默 심수현묵
比丘棄世 비구기세
是爲受寂 시위수적

몸이 쉬고 입이 쉬며
마음이 깊고 고요하여
비구가 세속을 버리면
이는 적멸을 이룬 것이다

當自勅身 당자칙신
內與心爭 내여심쟁
護身念誦 호신념체
比丘惟安 비구유안

마땅히 스스로 몸을 경계하고
안으로는 번뇌심 이겨내어
몸을 지키고 진리를 생각하면
이런 비구는 오로지 편안하리

我自爲我 아자위아
計無有我 계무유아
故當損我 고당손아
調乃爲賢 조내위현

나는 스스로 내로다 하지만

나는 있지 않다고 헤아려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를 버려
조섭하면 어진 이가 된다

喜在佛敎 희재불교
可以多患 가이다회
至到寂漠 지도적막
行滅永安 행멸영안

기쁨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으면
그 기쁨이 많다 할 수 있으니
적멸에 이르게 되면
함이 있는 행은 사라져 영원히 평안하다

儻有少行 당유소행
應佛敎戒 응불교계
此照世間 차조세간
如日無礙 여일무예

혹 조그마한 행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맞으면
이는 세간을 비추는 빛이다
마치 구름없는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龍眼

"삶을 깨끗이하고 좋은 스승·벗 구하고 몸과 입 쉬며 번뇌심 이기면 편안하리"

掘根知足 섭근지족
戒律悉持 계율실지

남의 것 받지 않으면
지혜로운 비구라 한다
육근을 다잡아 만족할 줄 알고
계율을 다 수지하여라

生當行淨 생당행정
求善師友 구선사우
智者成人 지자성인
度苦致喜 도고치희

삶을 항상 깨끗이 하고
좋은 스승과 벗을 구하라
지혜로운 이 그렇게 닦아
괴로움 벗어나 기쁨 이루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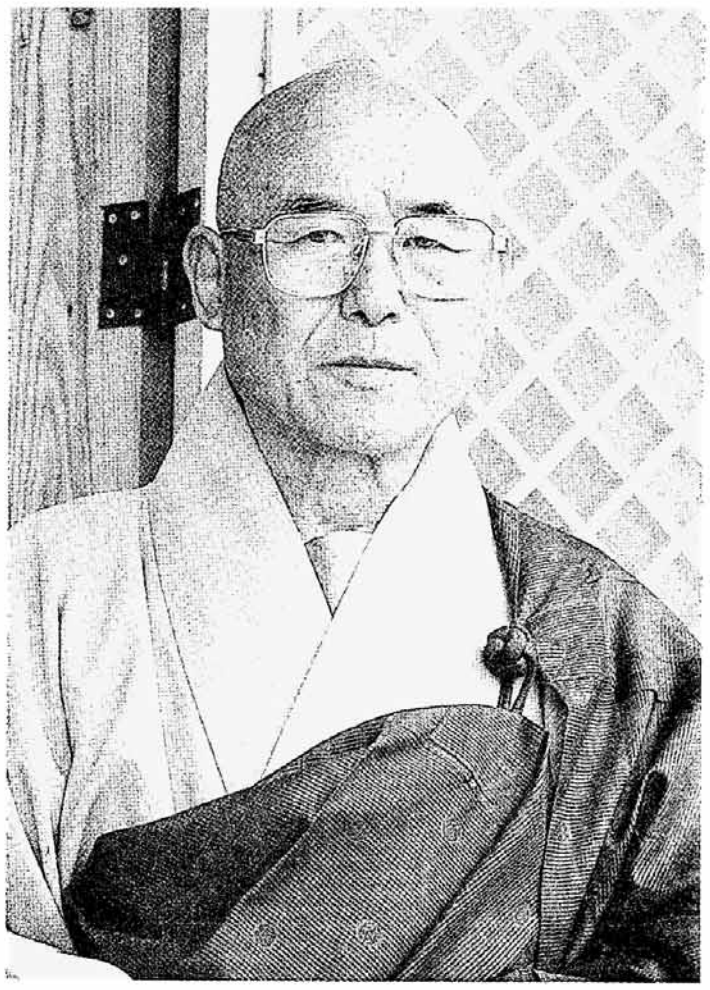
如彼師華 여위사화
熟如自墮 열여자타
釋姪怒癡 석음노치
生死自解 생사자해

마치 저 위사화 꽃이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듯이
음욕 성냄 어리석음 풀리면
생사관문도 절로 풀어진다

큰스님 수행한 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탄성스님 〈공림사 주지〉



약력
- 1928년 충남 신도안 生
- 1944년 갑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 1955년 범어사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72년 법주사 주지
- 1980년 조계종 수습대책위원장
-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역임
- 1997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現)
- 現 괴산 공림사에 주석

"중이 글 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아라." 은사이신 금오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참선수행으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 셋째도 참선이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스스로 참구하고 도를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었지요. 은사스님은 제자들이 글 공부나 경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호통을 치셨습니다. 출가자가 된 것은 확철대오하여 견성성불하자는 것인데, 설익은 글 공부, 설익은 경 공부로는 확철대오할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신념이요,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스님께 "참선만 해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쭈었지요.

"여기 한 사람이 방안에 들어 앉아 종이 위에다 금강산 이름을 천 번 쓰고, 천 번을 외웠다고 치자. 그 사람이 금강산 이름을 천 번 쓰고 천 번 외웠다고 한들, 금강산에 단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금강산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상업학교를 삼년 다닌 사람과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삼년 해 본 사람과 어느쪽이 장사에 대해서 더 알겠느냐. 글자나 경구에 얽매이면 그것은 지식을 챙기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금강산 이름을 천 번 넘게 쓰고, 금강산의 높이와 면적은 얼마이다 라는 것을 달달 외운다 해도 한 번도 금강산에 가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지식만 보탤 뿐 정작 금강산이 어떠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수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오거나 법문할 때 금오스님이 해 주신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다들 쉽게 이해하더라구요.

나는 8·15해방 전인 1944년 어머니를 따라 계룡산 신원사에 갔다가 젊은 스님들이 열심히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경전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은사스님께서는 경전공부는 고사하고 〈초발심〉도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참선공부만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선을 하여 마음을 깨쳐야 생사해탈을 한다"고 주장하신 스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무슨 글 공부의 인연을 만났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경을 경으로 안보고 경을 글로 보면 안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경을 글로 보면 알음알이를 토대로 언어를 희롱하고 마음을 가식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오스님께서는 경전의 문자풀이에나 얽매이고 뜻에만 집착해 이상만 짓는 것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아예 문자를 가까이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가한 그해 10월부터 금오스님을 모시며 행자생활을 시작해 이듬해 3월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법문이다' 라고 강조하시며 용맹정진하시는 금오스님을 모시며 선방 수좌들의 뒷바라지를 했으니 나 역시 자연스럽게 참선공부에 몰두했지요.

무엇보다 금오스님의 투철한 수행모습과 법문은 많은 수좌들의 사표가 됐습니다. 은사스님의 수행은 곧 제자들에게는 말없는 법문인 셈이지요. 젊은 수좌들에게는 호랑이스님으로 통하셨지만 진짜 호랑이 같이 무서워 보일 때는 용맹정진하실 때 였습니다. 며칠씩 끄덕없이 밤을 새워가며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강조하신 "수마를 이기는 것도 큰 수행"이라는 말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금강산 이름 천번쓰고 천번 외워도 가본일 없으면 안다고 할 수 없고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읽어도 스스로 행하자 않으면 이익 없어요"

화엄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금오스님께서는 일년에 한 두번씩은 꼭 모든 대중들에게 탁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끼니때만 되면 일곱집을 도는 탁발을 하며 중생들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수좌들도 그 의미를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수좌들에게 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탁발을 하면 무엇보다 하심(下心)의 도를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보시의 청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후 나는 만행을 할 때면 가끔씩 탁발을 하곤 했습니다. 스님들의 열불보시와 재가인의 재물보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탁발은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겐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좌들이 참선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화두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간혹 화두를 일러주는 사람은 바로 일러줬는데 화두를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헛수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을 할 때는 반드시 화두결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뭣고' 라는 화두를 결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스님이 법문을 하려고 법당에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많은 것을 지탱하고 아래로는 땅을 버텼으며, 밝은데 비유하면 백천일월보다 더 밝고 어두운데 비유하면 칠통보다 더 어둡다. 큰데다 비유하면 천지허공을 다 삼켜도 차지 아니하고 작은데 비유하면 티끌보다 더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대중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다 묵묵부답하고 있는데 신해선사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답하기를 "제불지본원신해각성(諸佛知本原信解覺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육조스님께서 "내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 이름을 붙이느냐"고 하시니 신해선사가 "이름 없는 것을 이름 없다고 이름 붙였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답입니까. 이름 없는 것을 이름 없다고 이름 붙였으니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두를 받는 것은 이처럼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이는 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입니다. 무분별심이 되어야 화두가 타파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 양택풍수측면: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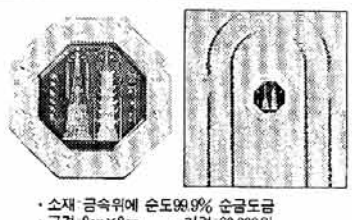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드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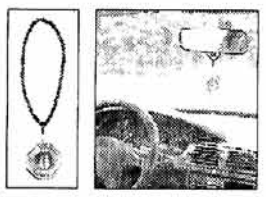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8cm×8cm ·가격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심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떼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꼭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살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시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어떤방위에는 주역의 괄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관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상(八相)은 이떻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괄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탁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큰스님 수행한담

삼매에 들면 그곳이 선방"



◇94년 11월 25일 7개월간의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을 역임한 탄성스님이 종무행정 인계 절차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급한 생각을 내게 되면 몸은 병들기 쉽고 분별심 생기니 황소가 걷듯 천천히 참구하세요"

데 너는 왜 이름을 짓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물건이 뭐냐하면 바로 '마음(心)'입니다. 이 물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마음 마음 하면서 사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무엇인고 한다고 해서 화두이름을 '시심마(이뭣고)'라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화두이름이 '이뭣고'라고 해서 덮어놓고 '이뭣고 이뭣고' 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두를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서 뜻도 모른 채 '이뭣고 이뭣고'하며 입으로만 읊조린다고 수행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잘못 드는 것이지요. 화두를 결택하고 선을 할 때는 반드시 화두를 분명하게 들어서 올바르게 참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화두를 참구할 때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고양이가 쥐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를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개나 닭, 사람이 옆에 와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아보는 그 순간에 쥐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환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쥐구멍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느 한순간도 잡념을 두지 말고 고양이가 쥐잡는 것처럼 일념으로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식게 되면 알이 곯게 돼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알을 품고 있다가 배가 고파 내려와 모이를 먹을 지라도 알이 식지나 않을까 해서 조금만 먹고 빨리 올라가 알을 품습니다. 화두 참구는 그와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집중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깨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조급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가야하는데 빨리 갈 생각으로 뛰어만 간다면 얼마 안가서 숨이 차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자의 경우 이같은 실수를 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도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깨치지 못하니 모두다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망상을 부린다면 깨침과는 더욱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은 이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걸맞게 황소가 걸음을 걷듯이 천천히 참구하며 서울을 가게 된다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도 너무 조급한 생각을 내게되면 몸은 병들기 쉽고, 마음이 산란하고 분별심이 생겨 공부가 어렵게 됩니다.

예전에 선방수좌 한분이 나를 찾아와 깊은 산골에 농가 한 채를 얻어 혼자서 농사일 하며 정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열심히 정진하라고 일러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스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선방에서 한철을 보내고 와보니 수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세간살이가 아니냐고 물으니 그 수좌는 세간속에서 정진하는 것을 이겨내야 진짜 선객이 아니겠느냐고 되묻더라구요. 그렇다면 열심히 정진해보라고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수좌는 공양주도 들이고 신도도 생긴 것입니다. 선수행하는 토굴이 어느덧 포교당화된 셈이지요. 이 스님이 잘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화중생의 본래 임무인 중생구제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선수행의 열의가 변질됐다고 보아야 합니까.

"깨달음에는 승속도 남녀노소도 없는 법"

"내가 눈을 떠야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교를 하든 참선을 하든, 빨래를 하든 시장을 보든, 모든 일이 삼매속에서 여여하게 이뤄질 때 그곳이 바로 깨침의 선방인 것입니다.

부처님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용맹정진해서 빨리 깨치려 하다가 병까지 났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부처님은 그를 불러서 "네가 세속에서 무엇을 좋아했느냐"고 물으니 거문고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문고 소리를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부도 그와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급히 서두르면 몸이 허락치 않아서 공부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깨치는 것은 승속도, 남녀노소도, 귀천도 따로 없지요.

해와 달이 밝아서 우주를 비추는데 친소도 없고 원근도 없이 어느 곳이든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춥니다. 우주를 평등하게 비춰주는 해와 달이 차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가 뜨다보니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인만을 제도하려 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착하고 신심있는 사람을 먼저 제도하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법이지요. 듣고 읽는다는 것은 불교와의 인연은 될지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옛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은 활줄에다 비유했고 염불 주력은 화살 등에다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활줄은 곧으니 가깝고, 활등은 굽으니 멀다는 뜻입니다. 즉 참선을 하면 쉽게 깨치지만 염불 간경 주력 등은 더디 깨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다보니 부득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먼저 깨치고 염불이나 주력을 한다고 해서 더디 깨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랐지요.

요즘 도심속에서 시민선방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만큼 쉬운 것은 없다"고 하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가수행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생활중에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각박한 생활속에서 참선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살아도 좋은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금생에 마음껏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참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견성을 위한 수행에 다함께 용맹정진합시다.

정리=김종근 기자

나와 경전 〈55〉

금광명경



이 만
동국대 교수 · 불교학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잘 쓰고 있는 무슨 경전 할 때의 경(經)은 본래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의 하나인 경도(經度)에서 온 말로서, 이것이 직물(織物)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날을 보면 그 모양에 있어서 쭉 뻗어서 똑바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생활 속의 교훈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경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이란 그 내용이 긴 것이든 짧은 것이든 간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으로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마치 실(絲) 등을 가지고 꽃 등을 꿰어서 화환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온갖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를 자각한 뒤에 진리 그 자체를 설하신 내용이 경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지난다 해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신상보살, 견로지신, 사천왕, 대변천신, 공덕천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수명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량이 없고, 경전에 설해진 내용은 미묘하기가 그지없어서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뛰어나므로 이를 '최승왕경'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 찬란하고 빛나는 내용이 마치 금과 같으므로 이를 〈금광명경〉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해서 〈금광명최승왕경〉이라고도 하는 이 경전에 관한 우리 나라의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를 또한 금고경이라고 이름할 때가 있다. 이는 의정(義淨)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 중의 제4 몽견금고참회품에서 그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금광명경〉의 구성을 보면 권본의 차이에 따라서 이에 설해진 각 품의 숫자도 다른데, 담무참(曇無讖)의 것은 19품으로 되어 있고, 보귀(寶貴)가 엮은 것은 24품이며, 의정이 번역한 것은 총 31품으로 되어 있다.

'여래수량품'에서는 왕사성의 신상보살이 부처님의 수명이 80세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갖자, 사방에서 부처님들이 출현하여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설했다"는 것이며, '분별삼신품'에서는 여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과 보신과 화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금고참회품'과 '시방보살찬탄품' 등에서는 금고광명의 가르침과 금광명참법의 공덕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또한 '중현공성품'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몸은 허망하기가 마치 빈 마을과 같으며,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 즉 6근은 번뇌의 도둑들이 따로 있어서 제각기 하는 일을 서로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한 몸에서 나온 모든 번뇌를 끊고 제법의 진실한 자리를 알아서 걸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천왕호국품'에서는 만

'사천왕 호국품'에 의거 사천왕사 건립
수지독송하면 국가보호 '호국 삼부경'

일 이 경을 호지하거나 독송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천왕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또한 모든 공포로부터 구제해 주며, 침략자들을 물리쳐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이를 면케 하여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질병에 결렸을 적에도 조속하게 그를 낫게 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호국경전으로 알려진 〈인왕경〉과 함께 사천왕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앙심의 발로에서 거의 모든 대승국가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를 호지, 독송하고서 의례나 법회 등을 여는 의식이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일부의 국왕이나 고승들이 이러한 사천왕의 가호를 얻기 위하여 사천왕사 등을 지었으며, 백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할 때에 이 경전도 함께 전해져서 매년 사천왕의 왕림을 기원하는 행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이 경이 그만큼 영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이 경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다시 각색해서 큰 법회라도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세속과 피안 연결 사바중생 인도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8

다리



◇선암사 승선교. 홍교의 대표적인 다리.

다리는 이 쪽과 저 쪽을 잇는 역할을 한다. 속계와 법계, 피안(彼岸)과 차안(此岸),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등 각기 상반되는 개체의 연결과 경계를 상징한다. 다리는 또한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과 신천지의 입구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산사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다리가 있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세속의 번뇌를 다리 아래에 흐르는 계곡물에 씻고 다리 건너 피안의 세계, 도솔천으로 향하는 것이다.

사바세계와 불국토를 잇기 때문에 사찰앞에 있는 다리를 피안교(彼岸橋)라고도 부른다. 괴로움의 이 언덕(此岸)에서 열반의 저 언덕(彼岸)에 다다르기 위한 가교다. 피안교는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다는 상징성이 내포돼 있다. 이처럼 불국토를 향하는 수행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다리는 징검다리에서부터 무지개 같이 생긴 홍교 등이 있다. 험난한 수행의 과정을 계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중생의 욕심이 끊어지기 전, 성불에 대한 번뇌소멸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한번쯤 멈춰 서서 밑을 내려다 보기 마련이다. 흘러가는 물을 보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추하기도 하고 또 물이 맑으면 자기를 비추어 보며 자신을 점검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밭에 선행을 심으면 복이 풍성하게 열린다며 8복전을 설하셨다. 이 8복전중 하나가 험한 길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다리를 놓아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곤 해 스님들 가운데 뛰어난 가교기술자가 많았다.

당신이 외기 소침해 있을 때나
당신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당신곁에
있어주리라.
고난이 몰아쳐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거센 파도위의 다리와 같이
나 당신에게 바치리라-

-〈험한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중-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희망과 행복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 보자. 아니, 스스로 다리가 되어 보자.

불국토 향한 수행과정 상징

선암사 승선교 신선이 오르듯 아름다운 아치형

불국사 백·청운교 45도 경사…석교·홍예의 시원



◇대구 동화사 해탈교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통일신라시대의 석교로 국보 제23호이다. 불국사의 대웅전앞 자하문으로 오르는 다리로 현존하는 신라의 다리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두개의 돌다리가 45도의 경사로 높다랗게 걸려있는데 계단을 다리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화강암의 장대석으로 계단을 깔고 양쪽난간에는 원통형의 돌을 이었으며 계단위에 설치된 세줄의 등연석(登道石)은 각각 너비 70cm, 길이 6.2m나 되는 거대한 한개의 돌을 다듬어 놓았다. 장방형의 돌기둥위에 받쳐진 홍예는 반원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서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의 홍예의 시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다리는 750년경 불국사 중창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때 불국사가 불타버린뒤 1686년 1715년 두차례에 걸쳐 중수됐고 1973년 불국사 복원공사 때 없어졌던 난간을 맞추어 옛모습을 복원하였다.

■선암사 승선교

선암사 입구에 있는 조선후기의 석조 홍교. 길이 14m, 높이 7m, 너비 3.5m로 보물 제400호. 길다란 화강암으로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연결하여 반원형의 홍예를 쌓았는데 결구솜씨가 정교하여 홍예 밑에서 올려다보면 부드럽게 조각된 둥근천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홍예를 중심으로 좌우의 계곡 기슭까지의 사이에는 둥글둥글한 냇돌을 사용하여 석벽을 쌓아 막았다. 다리 좌우의 측면 석축도 난석 쌓기로 자연미를 그대로 살렸으며 원형을 잘 지니고 있다.



◇산사로 가는 길에는 늘 다리가 놓여있다. 사바세계와 불국토의 가교를 상징한다. (사진=안장헌)

■흥국사 홍교

조선시대의 무지개형 다리. 길이 40m, 너비 3.45m, 높이 5.5m. 홍예지름 11.3cm로 보물 제563호이다. 부채꼴 모양의 화강석 86개를 맞추어 틀어올린 홍예는 완전한 반원을 이루고 있다. 단아하고 시원스러운 홍예의 양옆에는 학이 날개를 펼친듯 둥글둥글한 잡석으로 쌓아올린 박이 길게 뻗쳐 조화를 이룬다. 측면의 석벽은 이른바 난적(亂積)쌓기로 무질서하면서도 정제된 석축을 보여준다. 끝부분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어 곡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미를 보여준다. 잡석위에는 시렁돌 네개를 가로 지르고 그 위에 다시 세로로 돌기둥을 올린다음 맨 위쪽에 흙을 덮어 자연스럽게 노면을 만들었다.

■송광사 삼청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이며 일명 능허교(凌虛橋)라고도 불린다. 이 홍교는 다리 구실도 하고 우화각(羽化閣)이라는 건물을 세워 사람의 통행을 돕는 이중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송광사성공중창록〉에 의하면 이 홍교는 1700년에서 1711년 사이에 조영된 것으로 60여년이 지난 1774년(영조 50)에 중수하였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계곡을 이용하여 19개의 4각 장대석을 각지에 맞춰 홍예형을 이루고 양쪽 측면으로는 막돌이 아닌 4각 판석을 쌓아올렸다. 또 난간 받침돌과 돌출된 중심돌 위에 4개의 긴돌을 연결하여 난간을 이루었고 홍예천장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돌이 나와 있다.

■태안사 능파교

조선시대의 다리. 능파각이라고도 불린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이다. 정면1칸 측면3칸의 맞배처마집이다. 〈태안사사적기〉에 의하면 173년(영조 13)에 건립하고 1776년과 1809년, 1923년 4회에 걸쳐 중수했다. 이것은 일종의 다리역할을 겸한 건물로서 계곡의 양측에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약간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두개의 큰 통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건물을 세웠다.

통나무 위로는 1단의 각진 침목(沈木)을 두고 기둥을 올렸는데 기둥은 민흘림이다. 공포는 주심포식으로 내외 1출목이며 특히 행공첨차(行工栱遮)의 간략한 결구를 볼 수 있다. 창방 위에는 평방을 생략하고 창방과 외목도리, 그리고 화반사이에 여러형태의 동물상을 조각하여 흥미있는 의장을 나타냈다.

김중근 기자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鬼)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닫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정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건강보조식품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밝음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水生火)때문에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창주(林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송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덩어리인 우리 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하여 발효 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효소와 미생물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 난치병을 치료하고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을 왕성하게 하는 놀라운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고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이 먹는 하루 세끼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알경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질환,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96.5587】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를 획득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환약 1개월분 :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솔선식(松仙食)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如來治身自然食品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찰나로 돌아가니 苦 붙을 사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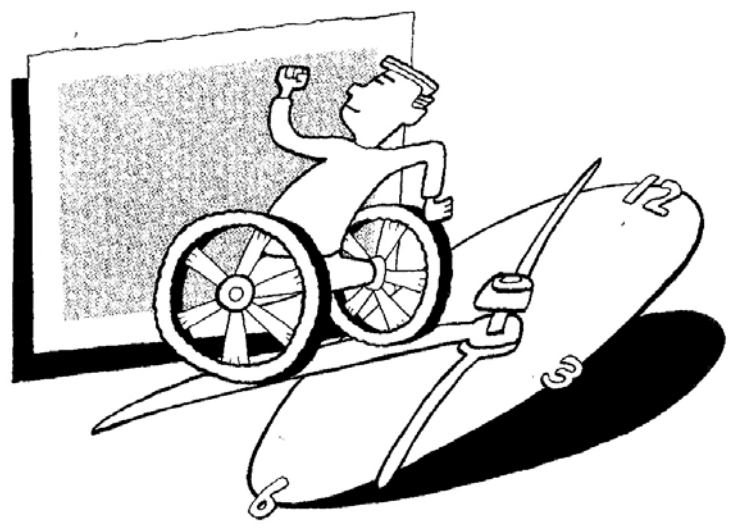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하는 사람에겐 삼재 고액 없어요"
"마음 주장자 흔들리지 않으면 참선입니다"

여러분과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뀝니다. 물론 부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세계의 사람이 사는 데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도 만들어 놓고, 달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개선시키도록 다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자리에다 맡기고 관하면 한마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누구를위해 이름 붙이지 않아도 보살로 화해서 응해 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은 자기 주처에서 하는 것이니 바로 자기 주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처라는 것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겠습니까마는 굳이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일 중에 모두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붙잡을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가 자기의 마음 안에 중심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몸체가 수레라면 정신계의 주장자는 바로 심봉이겠지요. 심봉이 꿰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 심봉이 바퀴를 굴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심봉에서 힘이 배출되기 때문에 바퀴가 이탈되지 않고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조 혜능스님도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주장자를 통해서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통신이 되고 또 이 세상의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다 가설이 돼 있거든요. 서로의 생명들이 모습과 말은 틀릴지라도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어찌 생명과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굴왕신이 내릴 때 집을 지으면 악행이 벌어지고, 삼재가 든 해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공부하는 분에게는 일체 모든 것이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까닭에 굴왕신도 없고 삼재도 없습니다. 악행이라는 말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삼재가 들었든 굴왕신이 내렸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 통신이 되면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한생각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굴왕신도 없고 삼재도 없고, 고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를 빼놓고 타의에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잘되게 해주소서.' 하고 타의에 놓고 빌기만 하니 그 차원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던가요? 예로부터 4대성인들과 역대 조사들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돌이 아닌 줄을 알고, 찰나찰나 공해서 없어지는 줄 알아야 둘 아니게 여여하게 돌이고 낼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부가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어디든 통신이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죠.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통신이 되고 꽃들이 말하는 것도 통신이 되고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답시고 바깥으로 하니까 통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자리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관한다면 저절로 통해서 일체 한마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내 안에다 맡긴다면 누구를 위해서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저절로 통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공덕이며 공심입니다.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주처에다가, 당신 주인공의 주장자에다 일임해서 굴리라고 말입니다. 오는 것을 대처해 막아나가는 것을 '굴린다'고 하며 오로지 들고나는 그 털구멍 한군데서만이 큰 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견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결국엔 무학도에 도달해야만 열반계가 됩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름을 따라서 안에다 모든 걸 계합시키는 겁니다. 어떤 알을 하더라도 그 놈이 이 육신을 움죽거리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만드니까 그 놈이 바로 자기 주장자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자는 바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선장입니다. 왜냐하면 움죽거리지 않는 심봉이 그 힘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돌아가거든요. 자기 몸이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죽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 먼지가 앉을 사이가 어딨으며, 변고가 붙을 사이가 어딨으며, 삼재가 붙을 사이가 어딨으며, 굴왕신이 붙을 사이가 어딨으며, 고(苦)가 붙을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발자취를 떼놓을 때 떼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떼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하는 이치와 같은데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연방 과거로 돌아가는데 팔자운명이 어디 있으며, 삼재액난이 어디 붙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붙어지는 거지 실지로는 붙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몸도 소중하다 하는 뜻은 그 생명들의 의식들이 내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로서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없으면 공부 못하거든요. 내가 있어야 상대도 있고 세상도 알고 또 부딪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하지만 보더라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습니다. 차를 타도 반드시 내리게 되죠, 사람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 만나죠. 이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것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불교가 정말 어렵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인 걸요. 그리고 우리가 아나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연구하고 혜가 넓어지고 창조를 해나가는 것이 (致)이구요. 그러기에 불교라는 것은 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군 국한돼 있는 언어가 아니란 겁니다. 주 을 찾든 주인공을 찾든 각자 자기 마음 속에 중심이 있고 자기로 인해 세상이 벌어진 걸 안다면 모두가 하나로 들어가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각자' 소리를 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 진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마음은 믿지 않고 예수님 형상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에는 사성제도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왜냐? '고집멸도(苦集滅道)' 하지만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착도 없죠. 집착이 없으면 멸할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간편한 걸 여러분이 기복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닥치는 대로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자기 자신을 빼놓고, 즉 자기 뿌리와 싹을 다 빼놓고 타의의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자기까지도 자기의 고깃덩어리를 믿는다면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남을 리드할 수도 있고, 정신계에 원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영혼의 근본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손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근본 자리가 바로 통신처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기다 말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주인공의 마음과 일체제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붙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0)

외줄로 천을 짤 수 있다고 장담하려는가.

"세상은 거대한 한그루의 나무이다. 그 근본은 뿌리, 즉 주인공이요 부처의 당체이다.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가지와 잎들이 나타난 것이 곧 현상계이다. 그러나 이것도 방편으로써 나누어 설명하는 말을 빌렸으니 그러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라고 바로 알아야 한다 각각의 잎을 생명체로 비유할 수 있지만 뿌리와 잎이 본래 따로따로인 것은 아니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혼자 먹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일체는 서로 주고 받으며 공생 · 공식 · 공용 · 공식하며 공체로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나홀로'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개별적 ·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자가발전이란 불가능하다. 우주 또는 현상계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된 동력기관에 불과하다고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각자를 독립된 존재라고 믿고 있다. 나의 육신을 기준으로하여 그 속에 담긴 정신 또는 영혼을 '나만의 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온갖 표현들에 집착한다.

자존심, 개성, 능력, 소득 따위를 통해 '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나'를 더욱 소중한 나로 사랑하려 한다. 성현들이 '나라고 말할 실체는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우리들은 고집스레 '나'라는 그 착각을 붙들고 산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苦인 까닭은 바로 그 '나'라는 착각, 아상(我相)때문이라고 하셨다. 아상이 있으므로써 대상을 취사선택하고 끌어모으고 아끼고 하기에 사랑과 미움이 생기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따르는데 그나마 사랑이든 즐거움이든 영속하는 것은 없으니 결국 괴로움만 늘게 되어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분별하고 집착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나', '나의 것'을 향해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다.



'나'라는 독립된 세계, '나'로 이름하는 개별적인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와 너, 나와 일체의 대상이 다만 하나의 세계로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굳이 '나'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때문에 괴로와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은 닫힌 세계란 없다. 우리들 자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문을 닫아걸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닫힌 세계, 독립된 존재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상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명체라면 외부로부터 부단히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산다. 그래서 세상을 한그루의 거대한 나무로 비유한다. 때로는 거대한 그물로도 본다. '나'는 그 나무의 잎새가 되고 '나'는 그 그물의 한 코가 된다. 말하자면 잎새와 잎새, 잎새와 나무는 한 몸이요 그물과 그물코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잎새나 그물코가 어찌 나홀로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착각일 뿐이다.

'나홀로'란 없다. 이 세상 어떤 일이라도 내가 했다, 네가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건 다만 상대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따라서 내것, 네것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이 현상계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방 식구요 도반인 것이다. 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나를 위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더불어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 내가 사용하는 일체의 도구나 자원, 내가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일체의 음식물들, 내가 일을 하면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먹이고 살리는 상대성의 이치가 그 속에 있다.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면서 공심 공체로 사는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 한것을 나만의 것으로 나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요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마치 '나'라는 씨줄 하나로 날줄 없이 천을 짜겠다고 우겨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 그 일의 결과는 공유이다.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짜낸 공동작품이다. 共業의 산물이다. 어찌 '나'라는 외줄로 천을 짰노라, 짤 수 있노라고 장담하겠는가.

협찬 : 오 병 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놓고 가는데는 이유없이 무조건 예요"

☞ 15면에서 계속

의 마음이 통해서 그 마음자리에서 보살로 화현해서 응해줍니다. 그걸 응신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으면 입력한 대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기의 보디가드가 되는 참 보배가 항상 자신한테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저 나무들을 보세요. 잎이나 가지나 모두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잘라낸다면 그 싹은 다 죽고 말아요.

자기 마음의 주장자가 완벽해서 어떤

"내 할일 다하고 내 가정 지키고 부모도리 다하며 자식도리 다하는게 곧 회향이고 불사입니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앉아도 좌선이요, 서도 좌선이요, 잠을 자도 좌선이고, 일을 해도 좌선이 되는 겁니다. 몸뚱이를 틀고 앉았기만 해서 좌선이 아닙니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요지부동, 자기 주장자가 움쭉거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 그건 참선이 되죠. 어디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신 깨우쳐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손을 낳아도 부모가 그 자손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얘깁니다.

마음 이 바깥으로 끄달리면 중생이고, 모든 걸 안으로 들이며 공부하는 분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생각을 안하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관했다 하면 법신이며 움쭉거리고 화하게 되면 보현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광대무변한 도리를 우리가 이 생활이 아니라면, 이 진리가 아니라면, 또 먼저 공부하고 간 선배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들고 아는 것도 올바로 알아야지 자기를 내놓고 따로 세상이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으뜸입니다. 자기부터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상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존께서도 오직 일심으로 자기 주장자만을 믿고 공부하셔서 과거에 구애없이 살아나온 자기를 찾으신 겁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통신이 되고 상봉이 된 것이죠. 내가 산으로 공부하러 다닐 때 얘깁니다. 어느 날 밤 날은 흐리고 어두워서 어느 묘지 옆에서 자게 되는데 안에서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여기 도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비의 무덤이고 하나는 아들의 무덤이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은 부처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이 무슨 변고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그것을 해결못하고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하, 그렇구나.' 하고선 웃고 일어났어요. 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하나가 되 버려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건 얼마든지 숫자가 백천만 개라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치로구나.' 하고 그때서야 일어났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면 '자'로서의 '법신'이 되는 것이고 움쭉거렸다 하면 화해서 즉 다시 하면 화신이라고도 하지만 '보현신'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다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넘어진 사람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번개같이 들면서 바로 내 손이 먼저 가죠. 그래서 일으켜주는데 이게 바로 보현신이거든요.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가니까 보현신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보현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볼 때 자기가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지를 마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다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왔고, 나왔으니 또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리를 알고 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서 육조스님은 '내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한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의 그런 신념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이며 이 생사윤회 바퀴에 끄달려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당당하고 패기있게 사십시오.

큰스님 처럼 되고 싶은데…

문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기가 입력한 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출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입력하려면 크게 입력해서 크게 출력하자. 이생에 몸 벗기 전에 꼭 큰스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요. 분명히 자성불이 있다고 했으니 이런 입력을 하면 분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을 하되 그 경우에는 내가 판단을 하고 안하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할 때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도 불성이 있고 저 스님도 불성이 있으니까 일체제불이 있고 일체선지식이 있다면 다 통하겠지. 이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력을 하세요. 그럴 때 만약 이게 될까 안될까 언제쯤 될까 하고 많은 이유가 붙고 생각이 붙으면 금반지에 무쇠가 들어가서 좋은 금반지가 못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급한 일로 부산에 가야 한다면, 꼭 가야 할 일이라면 무조건이지, 내가 가야 옳은가 가지 말아야 옳은가 또는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무슨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빌딩에 불이 나면 그냥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나지 다른 궁리가 나겠습니까? 죽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죽 앉혀놨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숨이 끊어지게 생겼을 때는 자식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돈이니 자식이니 하는 것도 숨이 붙어있고 살 때 얘기지 죽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여기 자기 선장의 구멍밖엔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죠.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다 하는 것도 그 마음이 통해서 서산대사가 새가 됐으니 그 새가 자기가 앉고 싶은대로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사대로 통신이 되죠.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다가 두번째는 좀 낫고 세번째는 좀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되구요. 크든 적든 간에 내 앞에 닥친 일은 내가 대처를 하고 잘 안되면 잘 되게끔 돌리는 실천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온 차원이 있어서 그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다 녹아지지 차원이 좁은대로 그냥 있으면 그게 아무리 되게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안되게 돼 있죠.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열심히 하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예요. 달리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입력됐다고 믿었으면 입력한 대로 나오겠지 하고 믿고 편안히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전 어느 신도 얘기가 자식이 삼수를 했다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착을 떼지 못해서 꼭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죠. 왜 그렇게 붙들어서 학교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그 착 떼느라고 혼났어요. 다 떼고 나니까 붙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착을 두면 오히려 자기와 더불어 꽉 붙들려서 자기 근본이 자기 영혼을 리드 못해요. 그러니 붙들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냥 놔 보세요. 마음은 돌이 아니니까 다 전달이 돼서 집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게 되죠.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모습은 여자니 남자니 있지만 마음이야 어찌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리까.

그렇게 물리가 터져서 지혜로와지면 차원이 높아지죠. 차원이 둥글어지면 스스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융통성 있는 마음이 돼서 여기 저기 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중요한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지는 마시란 얘깁니다. 그러나 꼭 뭐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아무리 하찮은 생각이라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그림 · 최주현

아내와 한마음 되지 않아요

문 저는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아내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행을 잘 하면서 관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스님께 죄송스럽구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안 따라주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일도 강제로 하면 부러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더러 날 따라오라 하기 이전에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못느끼다가 어느날 '아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나.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먼저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먼저 따뜻해지고 먼저 녹아지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대의 마음도 둘이 아니지 하고 믿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거리감을 두지 마세요. 나를 안 따라온다 하는 거리감 말이예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하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시고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으시면 스스로 돼요.

천지만물 사랑한다는 뜻

문 언젠가 단전호흡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산책하던 중에 어떤 분이 소나무의 기를 빼앗아 소나무를 죽이는 걸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화분의 나무를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를 주지는 못할망정 어찌 너에게서 빼앗겠는가?' 하며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기운이 콱 밀려와서 그 나무한테로 몰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천지만물 사랑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기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찰나찰나 나투는 일이죠. 이 작용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들고 나는 일인데 굳이 따로 기를 얻겠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나무도 사람에게 있어서 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나무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통한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물질적으로 이 체를 가지고는 물이 한데 불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항상 들고 나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한다면 즉 쉽게 말해서 원자에다가 놓으면 원자에서 수억의 입자로 화해서 조절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엄청난 공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차원이 높아지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차원이 높지 못하면 꺼낼 쓸 수 없는 일이구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신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신계고 물질계고 다 광개치고 딴 형상에다가 빌고 기도하고 그러잖습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자기로부터 소중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무슨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르는 나로부터 알게 되고, 알아서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부 잘되는지 분간 안돼요

문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이 미약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잘 못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그러면 안되죠. 이 공부는 공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도 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생활이 바로 교재이며 공부길에 들어선 겁니다. 인생공부죠. 지금도 여러 가지를 겪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뭘 내가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까. 사실 나의 영원한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종교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예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필까?'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뿌리를 못 믿습니까?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으면 나무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희망 주고싶어요

문 큰스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를 알고 공부하면서 매월 몇번씩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행려병동 등에서 환자들에게 간병도 하고 위문도 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에서 목사님도 오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으로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불교계에서 오시면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쾌유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이 다음 생에는 건강한 몸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관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 가르침 청합니다.

답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기끔만 해준다면 어디로 가더라도 등글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깥으로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일깨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따로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다면 항상 둘로 보는 마음이 생겨서 안되죠. 하나로 계합이 될 수가 없는 동시에 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너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자기 자신 안에 보배를 두고도 남에게 빌어야 되니 거지로만 살아라 이런 거나 뭐 다를바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이익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 안에 주처가 있으니 멀리서 주님을 따로 찾지 말라고 일러주십시오. 또 불자들한테도 당신 마음안에서 부처도 있고 약사보살이 있으니 그 안에서 글어다 쓰라고 말해 주십시오.

세상 일이 수레바퀴 돌 듯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진리죠. 밥을 먹고 또 먹고, 잠을 자고 또 자고,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부모로 끊임없이 돌고 돌죠. 우리가 머리깎고 사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무명초라고 해서 나오는 대로 잘라버리죠. 예전에 원효대사는 설총이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으니까 그 위에 낙엽을 뿌려놓고, 말갛게 쓸어놓으면 또 뿌리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끊임없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죠.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는 이치와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 역시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고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는 것이 세상 진리라는 걸 가르치셨던 거죠.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불사를 한다는 것이 꼭 절이나 크게 짓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도 불사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곧 회향을 하는 것이며 불사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내 앞에 일을 두고 멀리 있는 일을 걱정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길을 가다 배고픈 사람 외면하고 법당에 부처님께 공양올리겠다고 뛰어온다면 산 부처는 이미 죽어버리는데 공양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길을 가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한 마리 보더라도 마음 내주고 바로 내 옆에 산 부처님들부터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라진 것도 붙일 수 있고 패여진 곳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원력이 벌써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성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자기 마음 안에 한생각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있기에 세상있으니 나를 알아야합니다"

"상대보고 따라오라 하기전 나부터 달라져야"

협찬 한마음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한방암정보

02)
700-6366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3

밀교·기공·지압·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향상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철학(명리) 학인모집중

● 인원 : 5명
● 철저한 개인지도로 전문가로서의 말문을 열어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자님께 무료지도함.

032)865-9475
011)765-9475
성원사 용현 포교원 석 천 합장

氣明緩屺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많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적고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장석일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재가불자를 위한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교 임 반 ●
■일용의식 조석예불, 기도, 공일의식, 법회의식
■상용의식 문성, 안택, 개업, 중공의식
■통과의례 돌, 결혼, 회갑, 장례, 성묘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기 초 반 ●
도량석, 종성, 예경, 예공, 천도의식, 특별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 금강경강의 ●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7시>
※ 통신반 운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원장 성마
(불교방송 문화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직법학교 강사)

• 구인구직 •

투자하실 분

◆저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OO개발지역 길목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울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희 성

함께 수행하며 사실분 구함

■ 신심있는 남녀불자
■ 지리산 화개골

현 덕 합장
0595)84-6204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장의·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중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별당/합동봉안/성구위패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타종교인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석왕사 직영 108장례서비스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돕어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저공방으로 받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장의부/영묘각 사무국
24시간365일상담/구좌개서 03216128-108/03216673-404

• 인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필방 •

대신당 필방

인사동
02)
732-7326

대흥당 필방

인사동
02)
732-7326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여행 •

해외허가 제 745호 중국 베이징 해외유학 및 연수안내

기공속성반
침술속성반
한방속성반

※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 대표전화 02)737-0437
북경 사무소 6594-9401~3

• 기타 •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찬불가 작곡 독창·합창 지도함

- 경희대 음대 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수료

불자테너 황영일 합장
02)577-0188
017)558-1969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범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TEL: (02)738-8447~8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학인명모집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 위 치 : 서울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립공원 임야 약3천평 건물5동
◇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천연의 약수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6억원정

※주직: 02)512-3092

◇ 사찰양도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전철역 부근
◇ 건물 : 4층건물의 2층
◇ 건평 : 약 30평
◇ 법당 : 삼전불 · 지장단 · 신중단 · 영단(최고급 시설)
◇ 요사채 : 주방, 거실, 화장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2)202-1123
011)255-3999

◇ 사찰을 찾습니다.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상 요양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장스님(보살절) 절의 예수재 및 천도재를 정상 운영하여 드리겠습니다.

02)943-9942

天葬地秘 (명당자리)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가 함부로 명당을 말하는가.
풍수의 시작과 마지막은
형국을 보는 것이다.
사람의 무가보는 해탈이요.
땅의 무가보는 천장지비이다.

農山 011)573-2700

◆사찰운영하실분

◇ 위 치 : 경희대 입구 회귀역서 2분거리
◇ 평 수 : 4층 · 5층 약 70평
◇ 가 격 : 4천, 월85만원
◆ 특 징 : 최고급 시설완비
◆ 교통편리한 곳임

011)286-2680

■ 사찰(급)

◇ 위 치 : 군산시 공원내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5평
◆ 이민관계로 급처분
◆ 전세도 가능

0664)61-4152
011)579-9865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전세가능-4천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토굴(전원주택)
◇ 위치 : 경북 청도읍(5분거리)
◇ 대지 : 大 208평
◇ 건물 : 신축 30평 주택 (97년 11월 준공), 기타 35평
◇ 특징 : 주변경관 양호, 도로양호,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 (인접토지 확장가능)
◆ 가액 : 7천만원

0542)71-0847

◇ 부산시 진구

◇ 국유지-불화가능함. (대지) : 1천평
◇ 대웅전(27평), 산신각, 요사채 2동(60평)
◇ 울창한 숲속(대웅전 뒷편), 오륙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 가격: 2억 5천(조절가능)

017)585-0067
012)1568-6936
051)647-0067(낮)
(저녁 7시이후-핸드폰으로 연락요망)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내
◇ 법당, 요사채, 산신각(30평)
◇ 부지 : 6만 2천평
◇ 산자수명 지기충만 연수원, 기도처, 고시원 최적지
◇ 창녕군청에서 3분거리
◇ 포장도로 주차장 완비
◇ 토속음식점 2동포함
◇ 매도가 : 2억 8천만원

051)817-1242~4
016)565-3366

경남 통영시 청정1급수지역
"나한기도처"

◇ 대지평수 : 1,200평
◇ 건물 : 46평(요사방 2개, 법당 1개)
◇ 가격 : 2억 2천 (조절가능)

012)1067-0108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보증금 : 2 500만원
◇ 법 당 : 60평

053)943-4170
016)586-3669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입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채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사찰 양도 안내

◇ 사찰부지 : 750평
◇ 대웅전 : 30평(완전목조로 주삼포 단청완료, 법당시설 A급)
◇ 요사채 : 20평(목조), 50평(지하), 방8개, 거실 大2, 산신각 10평(돌벽), 채공실 18평
◇ 특 징 : 문화재급 사찰로 산세 · 물 좋고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서울과 5분거리(금천구 대한전선 다리 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 시 설 : 일체 무료기증
◇ 양도매가 : 17억 5천(절충가능)

02)899-4281

◆ 포교당 양도

◇ 위치 : 대구시내 시장입구
◇ 법당만 30평, 방2
◇ 부엌, 화장실, 옥상
◇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세요.

건물주 053)557-1145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수행처토굴(암자)구함

현재 수행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금전 거래없는 토굴〈암자〉 구합니다.
불심 돈독한 불자님 연락 바랍니다.

석 도 휴
017)565-5619

사찰 전세 운영하실 분

◆위 치 : 수원시
◆법 당 : 15평 삼존불 봉안 및 옥상 전체 사용중
◆요 사 : 35평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기증
◆전 세 : 4,000만원(시세이하)
◆특 징 : 제반 시설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몸만 입주하시면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건물주인이 스님이고 지방으로 이주차 싼 전세가액에 드립니다.

※ 본 도량은 정법도량이므로 무속인, 보살, 일반인 및 대리상은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현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2)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주작능이 없습니다 오해없길 부탁드립니다

◇ 전세 4천
(월세도 가능)
◇ 기도도량

0582)536-2195
무안법사

◆ 포교당 양도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중심가
◇ 법당 : 35평(3층건물 3층) 총 50평
◇ 방 3개, 주방(15평)
- 샤워, 창고, 기타시설
◇ 월 50만원
◇ 싯 가 :
- 보증금 및 시설일체 3,000만원

※ 현재 성업중이며 30여년간 유지된 포교당임

02)488-1569/016)349-1563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7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無),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 포교당

◇ 위치 : 강원도 춘천시내
◇ 건 물 : 3층건물
◇ 법 당 : 18평
◇ 사무실, 요사채, 부엌
◇ 보증금 : 1천만, 월 50만

0351)57-2766

◆ 사찰 건축 및 목제 안내

⊙ 내용 :
사찰건축
사찰조경
단청
목조주택(한옥,황토방)
→ 전문

⊙ 사찰목조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 확보 · 대웅전 12평,20평,24평,34평,54평,108평을 지을 목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건축하실 스님 · 불자님들 연락바랍니다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원주시내 중앙동
◇ 사찰부지 : 176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40평 × 방 5개
◇ 매 가 : 1억 5천

※ 그외 사찰부지 및 전세 사찰 다량확보 연락바랍니다.
※ 사찰양도하실 분 구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주)천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011)735-4168/012)935-4168

날로 확산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

현대불교신문 '법보시운동' 캠페인 1천여불자 동참 ----- 3만구좌 돌파!

「한구좌 1천원」 그늘진 곳에 신문 법보시

우연히 접하게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입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 · 경찰 · 교화기관등에 보급 자동이체 · 온라인 통해

- **대 상 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천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01-0783-830 (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지정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 의 처**: (02)737-8881 · 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1천원 법보시 운동'으로 어려움을 딛고

현대불교신문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신문보내기 법보시운동'이 전국에서 보내주신 불자여러분의 호응으로 3만구좌를 돌파했습니다. 전법의 손길이 닿지않는 군부대 교화기관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 교민시설등에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지어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나를 돌아보며 어려움을 이겨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더 더욱 부처님 가르침이 가슴을 울리며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매월 1천원씩 은행에 자동이체하시면 불법(佛法)이 절실한 이웃에게 따뜻한 법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1천원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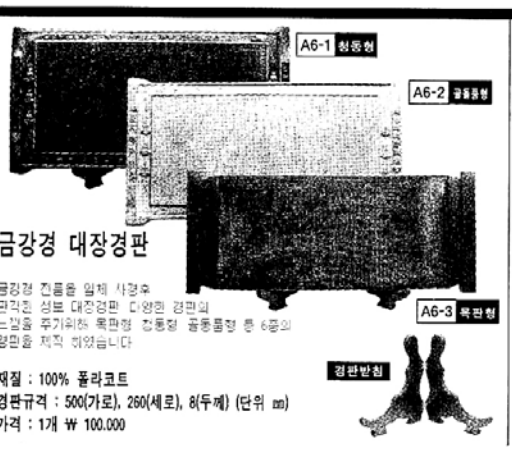
▼ 비지정 법보시 발송현황(총 927곳)

발 송 처	건 수 (곳)	발 송 처	건 수 (곳)
감별소	6	부랑인복지	3
개 인	75	불교병원	13
경찰병원	2	사회복지단체	27
경찰서	242	사회복지단체	46
교도소	59	선원추천	23
교정청	3	소년원	12
구치소 · 감호소	19	신용협동조합	8
국군병원	13	아동복지	41
군법당	196	장애인복지	13
기업복지재단	19	종벌협회	9
노인복지	22	지역복지	22
복지관련대학	43	청소년복지	22
복지협의회	14	기 타	2

▼ 법보시 다구좌 동참자 명단

간종흠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성옥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화 강정희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구필희 국명선 권감남 권미경 권복자
권성행 권순권 권순혁 권현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석 김두영 김목인 김명덕 김명훈 김미란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윤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희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남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승재 김승지 이은숙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여경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 옥 김옥경 김외선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애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 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진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호 김호중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남삼복 남수미 남일우
남중우 남철수 노만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희숙 덕운화 덕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무 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박경선 박광용 박광호 박금숙 박남순
박내순 박명의 박미경 박미정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식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세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박희순 방금순 방명섭 배병진 배성호 배현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 유 백현기 백혜원 법인스님 법현스님 봉철웅 부산지사
부산지원 서귀연 서말희 서병학 서부웅 서울은행 서은아 서정숙
서 준 서 진 서희선 서춘건 서혜빈 진정애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감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손금화 손봉희 손상들 손정숙 손혜숙 손호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심광염 심단희 심효희 심성학 심희주 안성모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희군 양정순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순자 오승종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만 용산구법회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원정옥 유미양 유양상
유은경 유인목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윤경애 윤기수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 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대섭 이덕의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성재 이송자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 씨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영숙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유수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희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학 이재극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희 이지희
이종돈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혁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화숙 이화영 인천신행회 임기남 임명옥 임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종미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희자 장금강심 장
미장결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촉자 장혜기 전체현 전규백 전병
임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승현 전연식 전취자 전정희 전현진 정계
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형 정민
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
태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윤옥 정점오 정정극 정정자 정진옥 정필
순 정학선 정혜정 정혜택 정현동 정혼체 조경자 조남심 조남주 조미
란 조상호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
미 조혜숙 조혜연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옥례 진옥상 진원
중 진제영 질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용옥 차현주 천재경 천현숙 천화
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진 최범순 최빙언 최옥내 최상길 최승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형선
최형선 최희원 추천희 표혜명 하금자 하딩자 하홍옥 한국여성불교
한기순 한미음신원 한명숙 한미수 한빛소 한상현 한숙희 하아름
한천희 한태희 한효신 함광점 함기석 함영숙 함치윤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종환 허찬우 허희숙 현수천 현추월 홍기장 홍명수 홍미경
홍미선 홍미옥 홍미화 홍미희 홍소순 홍은아 홍영순 홍영호 홍태섭
황금철 황기용 황영부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이후 동참자는 추후 계속 발표합니다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문을 일체 사경후
판각된 성보 대장경판 디자인의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하여 목판형 강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격 : 1개 ₩ 100,000

불교 티셔츠

간결한 듯하면서 깊은 메시 비율기 염려나를 한 보기에서 추천된 원형 T 셔츠 타 입체 금형수로 디자인된 면 티셔츠 여름 수준대로 적당 정기 생활로 부분 가공이 가능하며 나의 개성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 성인용 ₩ 6,5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100% 청동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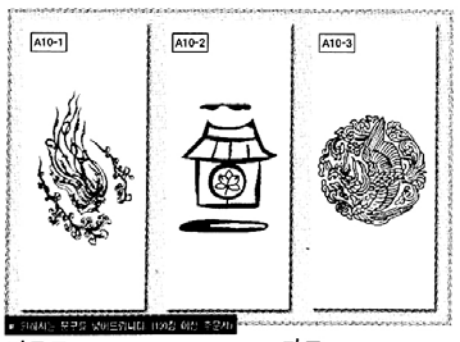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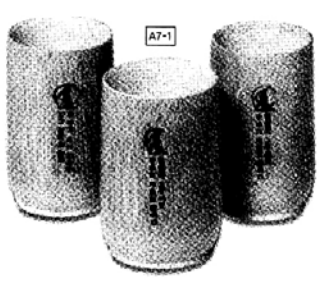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백경이경용)
가격 : ₩ 10,000

사각 그림 벽시계
가격 : ₩ 11,000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질 :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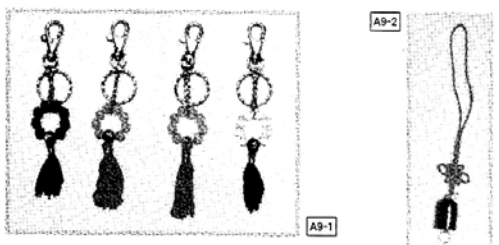
다포
가격 ₩ 800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대나무 잔

원전 지연산 대나무로 가공된 제품 대나무 잔 미디움 가공 인크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가 닷이 일품 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의뢰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날개 ₩ 8,000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날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원은 종스리가 울는 이쁘 이음을 만인리 하주는 제품입니다
내용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날개 ₩ 9,000



팔각오색연등

재질 : pp
의장등록출원 - 98-6490
실용신안출원 - 98-6425

단 신

여름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제2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27~28일 양일간 구룡사(주지 정우스님)에서 개최한다.

찬불가, 게임, 댄스 등 여름불교학교 필수과목의 심화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절'이 되도록 스님과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 교리 △찬불가 및 율동 등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잡았다. (02)738-7360

불교문화유적 탐방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1일 불교문화유적지 탐방을 떠난다.

이번 탐방은 여주 신륵사와 목아불교박물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852-0525

결식학생 도시락 제공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는 최근 부모의 실직으로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중·고등학교 결석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45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02)458-1664

은석초등교 업무전산화

초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던 은석초등학교(교장 이무열)가 스승의 날 선생님께 편지쓰기와 문예 백일장을 컴퓨터로 실시하는등 학교 전산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미루정보시스템과 함께 어린이들의 성적 및 출석관리와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작성 등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운현궁 어린이과거제

운현궁 별시라 불리던 어린이 과거제가 재현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2시 운현궁에서 1864년에 치뤄졌던 어린이 과거제를 재현,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1백50명을 대상으로 휘호대회 형식으로 과거제를 치를 예정이다.

운현궁 별시는 조선 26대왕인 고종이 운현궁에서 어릴 때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과 인근의 어린이들을 불러모아 과거시험을 보게 하고 상을 내린 것에서 비롯된 시험이다.

자연 속에서 심신단련

푸른 하늘, 녹음이 우거진 숲, 파란 바다, 풍경소리, 새소리 속에 일상적인 생활을 잊고 공부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자. 꽉 짜인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불교를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캠프가 여름방학을 맞는 불자 청소년들을 찾아간다.

여름방학 불교청소년캠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대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스님) 등은 여름방학에 맞춰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수련대회, 여름 문화학교 등을 마련한다.

대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문화학교를 7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연다. 총 2백40명이 참가하게 될 청소년 문화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원봉사정책-최용길서기관(문화관광부) △한국의 역사 바로보기-신도성문화체육부장(대전일보) △명심보감 효와 예절 강의-원법스님 △우리문화 한마당, 탈춤, 공동체 놀이-두레민속생활연구원 등의 강의도 마련되어 있어 단순한 놀이만이 아닌 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청교련 인천지부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캠프, 공주지부는 청소년 효 수련대회, 대구지부와 경남지부는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강지연기자

7월24일~27일 고성서 열려
불꽃축제·봉사·사찰순례
— 파라미타 연합캠프 —

파라미타는 제3회 파라미타 연합캠프를 7월24일~27일까지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한다. 관음, 문수, 보현, 지장 등 4개 분단으로 나눠 진행될 캠프에서는 영내·영외·모험·수상활동을 하며 마지막 날에는 파라미타 불꽃축제로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다.

연합캠프는 △영내활동-사경, 단주만들기, 컵등만들기, 불교벽화그리기 △영외활동-화암사 참배, 환경보전활동 △모험활동-수련장 시설 18개 코스 완주 △수상활동-수영(백도 해수욕장) 등을 통해 놀이, 봉사활동, 불교교육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월29일~31일 만인산학습원
역사·예절·민속놀이 강습
— 대전자원봉사센터 문화학교 —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더위도 잊은 채 극기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파라미타 제공〉



◇사경지를 머리에 이고 정대불사를 봉행하는 자리에는 목발을 짚은 학생도 참석해 불심을 다졌다.

"한자 한자 새기며 불법 깨쳐요"

청소년 사경공모전 박진솔양등 450명 수상

파라미타와 교법사단이 주최한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박진솔(은석초등)양 외 5명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을, 박은빈(은석초등)양 외 7명이 총무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450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 시상식이 5월24일 조계사에서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경공모전은 4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청소년 불자들과 교사, 학부모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수상작 가운데 108개의 작품은 조계사에서 전시하고 있다.

고우익교법사(교법사단장)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경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정한 심신을 함양할 것을 기대했다"며 "1만2천여점의 응모작은 잘 보존해 다른 불자들이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

현대감각으로 되살린 우리옷 맵시

생활한복 발표회…수익금 불우이웃 보시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5월26일 연강홀에서 생활한복 발표회 및 음악발표회를 열고 40여벌의 생활한복을 선보였다.

의정부불교연합합창단, 자원봉사연합합창단, 현성여성합창단, 불교연합합창단 등의 찬불가 공연 사이사이로 테마별 한복발표회를 가졌다. 패션쇼는 시대별 한복변천사, 고유의 미를 살린 파티복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와 바자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한복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내놓았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질서유지 시민캠페인 동대부중(교장 우하수) 풍물패 한어울 30명과 파라미타 회원 20명은 5월27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대 체코의 축구 경기에서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 365일 〈21〉 황금(黃芩)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오장육부 중에 쓸개 즉 담랑이라는 장기가 있다. 외서에 보면 담랑이 병들면 나머지 장기가 다 병이 든다고 한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된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몸의 축을 이루는 척추나 관절에 이상이 생겨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이 생긴다.

담랑을 한방에서는 판사라고 일컫는다. 담랑이 약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갈팡질팡하게 되기 때문이다. 담랑이 너무 실하거나 허해도 병이 된다.

이 가운데 너무 실해도 병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여덟 체질 중에서 담랑이 실한 체질은 바로 태음인이다. 태음인은 병의 근원이 담랑이 실한데서부터 시작된다. 담랑이 실하면 담즙이 과다하게 십이지장으로 분비돼 십이지장염을 일으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방귀가 많이 나오며 변비가 생긴다. 오래되면 류마치스관절염도 생긴다.

담랑과 심장은 내외관계 즉 부부지간이 된다는 병리가 있다. 담랑에 병이 있으면 심장에 영향을 줘 협심증이 나타난다. 탐진치 삼독 중에 진에 해당하는 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담이 열을 받으면서 십이지장염, 류마치스관절염,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다.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혈이 생기고, 피가 탁해진다. 피가 탁해지면 뇌신경세포에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건망증이 온다. 얼굴 피부에도 기미가 생긴다. 담랑의 열을 식혀줌으로써 오장육부의 운행이 균형을 유지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담랑에 생긴 열 식혀주는 약초
4~8g 감초와 함께 달여 복용

이와같이 태음인은 성질을 잘 부린다. 담랑이 실하기 때문이다. 노성을 삭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이러한 체질이다. 이럴 때, 황금(黃芩)이란 약초뿌리가 대단히 좋은 약이 된다. 담랑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 한의원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약재 가운데 하나다.

복용법 황금 4g~8g을 감초와 함께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이때 감초는 황금의 반량을 넣어도 좋고 등량을 넣어도 좋다.

새싹들에 문화 정체성 심기

문화관광부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실시

사찰·박물관등 탐방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올 하반기부터 외래문화 개방에 따른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순화와 감성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관, 박물관, 고궁, 문화유적지등 문화 현장을 찾아가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문화를 접해보고 민속놀이 등도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보리·벼타작, 새끼꼬기 △경복궁·덕수궁·선릉·정릉 답사 △남산 식물원, 서울성곽, 봉수대지 답사 △궁중유물전시관·농업박물관·국악박물관 방문, △국립중앙극장 발레·무용등 연습장면과 소품실 견학 △정동극장의 연극관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99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인데 99년 하반기에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도 교육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풍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의 라일락 향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생각 날때면
눈물이 납니다.
라일락
꽃 향기 피어 오르고
그대 그리움으로
눈망울 흐려지면
호수는 강물로 변합니다.
언덕 아래로
빠알간 지붕 보이고
담장 밖으로
5월의 라일락 꽃 향기
하얀 얼굴 내밀며
고개 숙이고 서 있는데

지나는 이의 발걸음
멈추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픔에
그 꽃잎마다
그리움으로 가득 합니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건강에의 신비! 옥
玉山家玉

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여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다(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777-0105 (백오옥)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불자 세상보기

"마음이 깨끗해야 국토가 청정해진다."〈유마경〉 자연이 나와 둘이 아니기에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불교환경운동의 주요이념이다. 이처럼 교리 자체가 환경운동 이념과 다름 없는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어떤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환경과 민족문화 지킴이' 등 대표적인 불교환경단체들은 종단의 무관심과 IMF사태 이후 가중된 재정난으로 더욱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96년 12월 2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출발한 사찰환경보존위는 현재까지 〈환경지침서〉 발간과 2차례의 사찰환경오염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매월 개최하기로 했던 사찰환경워크숍도 지난 3월에 한번 열렸을 뿐이다.

92년 창립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은 96년에 여성분과위원회와 청소년환경지킴이단을 각각 구성해 환경실천운동을 벌여오다 지난해초 사단법인 추진을 위해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꾼 뒤부터 재정난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6월 제16차 전국불교청

■불교 환경운동 실태

단체 구성 10여곳 워크숍 · 생태기행 환경활동 '소극적'

년대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환경과 민족문화 기킴이'는 현재 전혀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대구 녹색환경감시단, 경불련 환경모임, 불교자원봉사연합 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 환경모임 등 소규모 환경단체들도 환경정화나 생태기행 등 정기적인 활동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교육원이 불교환경운동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90년 설립이래 불교환경운동의 이념을 확립해 온 불교환경교육원은 봄·가을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불교귀농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불교환경운동협합은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을 겸임하고 있는 정각스님(미륭사 주지)이 금정산 범어사·선암사 사찰환경권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부산지역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욱스님과 심복사 주지 정견스님은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과 평택환경운동연합을 이끌며 산문 밖에서 활발한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

"먹는 물 걱정하는 세상"

팔당호등 상수원 오염 3급수 전락

정부 사후감독보다 예방정책 절실

6월5일 환경의 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돼 4~5년 뒤에는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내려졌다. 그간 서울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시라"고 TV광고까지 해왔지만, 서울시민의 4.6%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등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5월20일 팔당 물금지역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목표수질인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량과 수질로 나눠 이원화됐던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대기·폐기물·자연환경정책과도 연계, 과학적인 수질관리모델을 도입하고 사후 감독방식에서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저마다 먹는 물을 제대로 공급할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물 공급대책과 이어 94년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 등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실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3~97년 총 17조2천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율을 37%에서 73%로 개선하려 했으나 지난해 하수처리율은 55%선에 그쳤다. 2-3급수인 상수원 수질도 97년까지 1-2급수로 향상시키기 못하고 결국 2005년으로 늦추는 '탁상행정'의 무력감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팔당호 주변에 음식점과 러브호텔 축산시설 등 오염원을 허가하는등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질을 관리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년동안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3.5배나 늘어나고 거주인구(현재 51만3천명)도 28%나 증가(아파트가구수는 13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관련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5월15일 성명을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상수원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나만 안 마시면 그만이라는 유역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상수원이 국민들의 젖줄이라는 인식아래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 하류 2~3km에는 폐수가 고여 상수원관리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불교의 눈 물은 생명수이거늘…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물 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사분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김석중 사무처장은 "지·수·화·풍 4대(大) 중의 하나인 물은 인체의 75%를 차지하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본요소"라며 "각 지방 사찰과 '청소년 환경 지킴이단'을 중심으로 상수원등 주변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 감시체제인 불교녹색전화(Buddhist Green Phone)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교훈교수(국민윤리)는 〈환경윤리〉(민음사)란 책에서 "환경윤리는 결국 자연보존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간교육을 통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때이른 무더위

엘니뇨 원인…오존주의보도 농작물 피해·생태계 혼란우려

엘니뇨 영향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에 모기·벌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생태계 교란 조짐이 일고 있다.

5월21일에는 전북 정읍이 최고 33.2도까지 올라가고 서울도 31.4도를 기록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농·수산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5월22일 '올 여름(6~8월) 기상전망'을 통해 "엘니뇨의 여파로 평균기온(22~26도) 보다 2~3도 높은 고온현상이 이어지겠다"며 "6월 장마 직후부터는 폭염이 시작돼 열대야 현상도 잦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는 5월20일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에 따른 대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과기부 산하 '국가기후계획위원회') 설치와 국가기후법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총리실 산하의 엘니뇨대책반을 즉시 운영하는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보건과 사회·경제적 피해상황 분석과 △정확한 기상예보 △오존주의보 발령시 자동차운행 규제 등 다양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엘니뇨 현상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환자발생=갑작스런 무더위로 인해 신진대사와 생체리듬의 불균형 초래 ▲육상 생태계 변화=이상고온으로 식물뿌리에 기생하는 각종 해충이 일찍 알을 깨면서 나뭇잎 대신 새순을 갉아먹어 식물-곤충-조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수산물·수질피해=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가 5월12일 발령됐다. 석회조류(藻類)의 이상번식에 따른 백화(白化)현상으로 수산물도 격감하고 있다. 남해안에는 적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 피해=이상고온으로 병충해가 예년보다 20~30% 늘어 보리·벼 피해가 예상된다. 마늘·양파 등 겨울에 파종한 농작물은 잎만 무성할 뿐 알이 작게 드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친화 10대 기술

美 태평양북서연구소 선정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국립태평양북서연구소(PNNL)는 향후 10년간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환경기술 가운데 주목할만한 10대 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안전한 물=상·하수 처리과정의 스마트 필터 기술로 음료는 더욱 안전 ▲농업유전학=유전공학을 이용,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감소 ▲경량자동차=휘발유 1리터로 34km이상 달리는 초경량 자동차 등장 ▲재생 에너지=태양력·풍력 에너지 등 무공해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미세기술=마이크로 실리콘칩이 생활·산업분야에서 에너지와 화학물질 사용을 줄임 ▲종이없는 사회=인터넷과 무선통신 사용 증가 ▲생물공정=미생물과 식물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화학·생물제품 증가 ▲재생·재활용=자동차 컴퓨터 플라스틱 종이 잉크는 물론 이산화탄소까지 대기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포착돼 재생된다.

이렇게 들었다

창문을 열기가 겁난다. 도심을 꽉채운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가 연신 오존주의보를 발령케 하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 다음날에는 사망률이 평일보다 7%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또 최근에는 수돗물 안정성 시비가 재현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하천과 강이 신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척추동물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는 국제환경보호운동단체의 최근 조사보고는 경종을 울린다.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부처님께서도 일찌기 환경의 중요성을 설파하셨다. 그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환경 "황막한 길에 숲을 만들어라"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 가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라면, 성읍·부탁·산림·천택(川澤)·원관(園觀)·긍전과, 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굴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과괴치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니건자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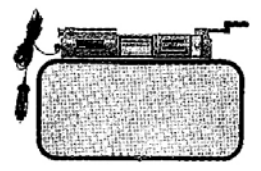
▩산림·광야·타가(他家)·성읍·승방·전목(田木)과 그 밖의 온갖 주인있는 물건을 고의로 불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범망경〉

▩황막한 길에 흙은 우물을 파거나 과수를 심어 숲을 만듦으로써, 늘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부동국(不動國)에 태어난다. 〈열반경〉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불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릎에까지 이른다. 〈세기경〉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로서 배우는 자이며 아직 마음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최상의 경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여기고 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에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올바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즉자적 대자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중아함경 근본법문경〉

새상품 공기정화 보안창



자동차 운전시 햇빛과 불빛을 차단해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며 차내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앞 유리 보호창 '그린토피아'.

특수수지로 만든 랙산필름이 부착된 이 제품은 자동차 운전시 강한 햇빛과 차량의 불빛을 차단해 준다. 또 차내의 담배연기나 먼지, 세균, 각종악취 등을 약 5분이내에 제거해 주고 음이온을 발생시킨다.

(주)세밀전자. 3만8천원. (02)418-0270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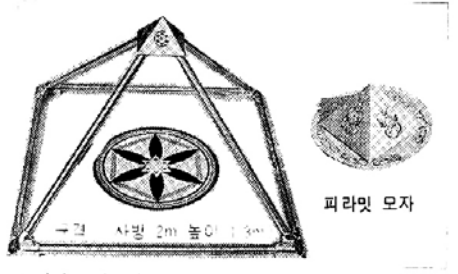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허란야!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 204454〉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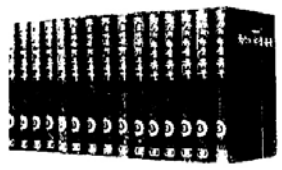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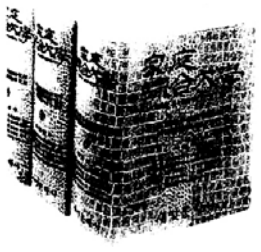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③



②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체재 신국판/백색모조/총n,000여쪽/기린 양장 케이스
박종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 ₩120,000

원로 박종화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가는 지구름이 전 5권
◉ 아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인중 옵들 전 5권

① 체재 4×6배판/백색모조/120아트 칼라화보시진 3,000컷/총 3,000여쪽/기린 케이스케이스/중무게 12.5kg 양구보존

◉ 동의보감의 특징
◆ 목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증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블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청술·지압·미용 수록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얼,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불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돌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뚱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륜,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속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체재 백색모조지 5배판/총3,000여쪽/
대지 칼라자킨 및 흑백사진/세라가죽 칼라카바
표지고급케이스 업구보존 기트 225×세로315×두께95
총무게 15Kg 정가 : ₩980,000

책임감수 홍문화 이박사 김연박원 최원김박이원박원 시재 공기업 시장 정규장

특별할인판매

구입방법

· 정 가 ~~59,000~~
· 특별현금가 : 148,000
· 할부가 : 49,500×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시론

빚 느는 국민가계

지난 해 우리 정부와 IMF간에 체결되었던 양해각서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정부 부실채권 발행 가구당 352만원 부담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화해소를 위해서는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급선무로, 과거 차입위주의 자금조달에 익숙했던 기업들은 재무전략을 전환할 것과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로 문어발식 확장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체제개편을 할 것이며,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투명한 기업경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근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공공자금은 재정과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자율적 구조조정과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윤 영 자
〈한국방송대교수 · 경제학〉

현대생활에서 매사는 돈=자본과 유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3월말 현재 한국의 전 금융기관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86조원, 보험 · 증권 · 종금 · 투신 · 금고 등 비은행계 부실채권은 32조원으로 도합 11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정리대상 부실여신을 100조원으로 가정하고, 이 중 절반을 회수불가능한 자금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비용 중 일부를 재정 및 채권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은 재정의 원천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납세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 구조조정 부담을 전가받게 된다는 말과 같다.

때문에 채권은 훗날 화폐로 회수받을 수 있다 하여도 채권발행에 수반되는 이자는 별도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바로 이 이자부담이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98년도 말까지 발생할 부실채권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국민부담은 1인당 88만원으로 4인가족을 1가구로 계산한다면 가구당 부담은 352만원에 달하는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내년 이후에도 기업부도가 잇따를 경우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삼아 중세봉건체제의 질곡에 반기를 들었던 18~19세기의 정치적인 시민혁명과 경제적인 산업혁명은 그 실행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새로운 모순을 잉태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착화된 사회질서를 일소하여 쇄신시키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고로 개혁의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이해와 양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역지사지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미 조성된 구조조정자금 중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명퇴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폐쇄되는 종금사예금에 대한 이자까지 보상하는 부담까지 졌다 한다. 바로 이 몫도 국민부담이 되는 셈이다.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있는 관료 · 정치권의 무리한 지시에 복종한 금융기관과 여기에 기생하여 성장한 재벌간의 유착고리에서 파생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판에서 화려한 주역을 담당했던 주체들의 책임은 어디에 가고 소외된 자에 불과했던 민초들만 느닷없는 빚잔치에 초대되어 의체부담 1인당 482만원에 덧붙여 내국채무부담까지 2중부담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잘못은 정치 · 경제 · 금융권 책임은 국민 몫이라니

어지러운 경제상황을 두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핵심을 은폐한 채 책임에 대한 공방만이 식상할 정도로 달아오르면서 6 · 4 지자체 선거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밝은 희망의 경지로 뒤바꾸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어제의 과오가 끼친 오늘의 현실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소신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 역시 역시는 되풀이된다는 속언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문화재 진품 해외전시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우리 문화재 1백21점이 84년 미국을 순회전시한 '한국미술 5천년' 이후 최대규모로 해외에 대여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3대박물관 중의 하나인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현지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진품이 대규모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품 문화재의 해외전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구촌에 한국문화 우수성 알린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현지교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월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24일까지 전시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한국실 개관기념 '한국미술전'에 우리나라에서 1백21점의 문화재를 출품 전시해 한국문화의 독창적인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해외전시를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미지의 나라에 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처럼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과 일본은 현재에도 자국의 홍보수단으로 문화재 해외전시를 수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그 나라를 연구하고 찾아오게 하기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유수박물관에 문화재를 출품 전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 문화재를 본 관람객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다루는 직원들은 수집 · 포장 · 운송 · 전시 등 모든 과정에 혼신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손길은 엄숙하기까지 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진품의 해외나들이에 대해 의아해 하며 복제품 전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복제품은 일부 상업적인 목적의 예술품 전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문화교류일 경우 복제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는다. 눈요기꺼리는 될 수 있어도 작품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세계유수박물관이 상설한국실을 설치하면서부터 개관특별전으로 우리문화재 대여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들 박물관의 대여전시는 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유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한국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만약 우리 누군가가 세계인이 드나드는 한 외국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문화재가 어엿한 공간을 차지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면 그의 가슴은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얼마나 부풀어 오를 것인가!

"훼손가능성…복제품전시 검토를"

최화수 〈국제신문 논설위원〉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전에 출품될 국보 9점 등 우리 문화재 1백21점이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이들 문화재는 7개월 이상 장기 해외전시된다. 우리 민족혼이 실린 진품 문화재들을 이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해외반출시킨 당국의 처사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운송과정에서 훼손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문화재의 반출 규모는 '한국미술 5천년전' 이후 최대규모이다. 그 품목도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한국문화를 망라한 것들이다. 특히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주조기법과 조각기술이 절출해 동양조각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들을 그것도 진품을 대량으로 고스란히 내보낸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들 문화재의 안전수송을 위해서 특수포장 등 최선의 준비를 했고, 1천억원의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치밀해도 문화재는 손상되기 쉽고, 보험금이 많아도 한번 훼손되면 원상을 돌이킬 수 없다. 문화재를 제자리에 보존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박물관 관계자도 "피를 말릴 정도로 긴장과 걱정이 된다"고 말했겠는가.

대규모 진품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효과보다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는 것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 선진외국은 극소수의 진품만 출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복제품을 내보낸다. 국내에서 열렸던 '중국문화대전'도 복제품이 60%나 차지했다. 이집트는 "진품은 이집트에 와서 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전시도 자체 소장품 중심이 되도록 하면서 시기적으로 보완할 것만 도와주는 쪽이 바람직했다. 정부도 '한국미술 5천년전' 영국 · 독일 순회전을 끝낸 뒤 더이상 대규모 해외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여론을 수렴하여 한번 정해진 방침이 그대로 지키지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당국은 해외전시보다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들을 찾아오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복제기술도 적극 발전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23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보낼 문화재를 무진동차에 싣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 미국행 방법

특수포장 · 경호원등 보호만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전시회에 출품될 우리 문화재는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한 항공기 3대에 나눠져 23 · 24일 이틀간 미국으로 운송됐다. 아시아나는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를 문화재 훼손이나 탈취 등 돌발상태에 대비, 특수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베테랑조종사를 배치하는 한편 경찰에 지원요청까지 했다. 유물은 유리 금속 종이 등 문화재 재질에 따라 10개로 분류, 특수포장을 했다. 쉽게 해체될 수 없는 목재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특수 포장박스에 넣어졌는데 박스는 개당 1백만원으로 일반 제품보다 50배나 두꺼워 일정한 온도유지가 가능하다. 박스들은 랩(RAP)컨테이너 3대에 나뉘어 탑재된 뒤 아무나 개폐할 수 없도록 납땜으로 봉인됐다. 문화재관리국은 전담직원 6명을 선발, 문화재 운반부터 포장, 탑승, 메트로폴리탄 인도 등에 이르는 모든 수송과정에 동행, 입회했다. 아시아나는 국보급 문화재나 고가품을 노리는 범죄단체들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품명과 포장, 개수 등을 암호로 사용, 미국 현지 관계자들과 교신하기도 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문화재들의 안전수송 및 전시를 위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와 1천억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들은 유물의 실제가격을 보험가의 두배인 2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재 국제교류현황

1970년 日엑스포 22점 첫선

美 · 유럽등 총 81회 나들이

우리나라가 국가간의 문화재 교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EXPO 70'이 처음. 그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22점의 우리 문화재가 대여전시돼 세계인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것은 '한국미술 5천년전', 76년 일본의 도쿄 · 교토 · 후쿠오카(3백48점 · 5개월간), 79년 미국의 워싱톤 · 뉴욕 메트로폴리탄 · 샌프란시스코(2백54점 · 2년5개월간), 84년 유럽의 영국, 독일(3백34점 · 11개월간) 등을 순회전시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가 당당히 제자리를 찾게 됐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순회전시는 같은 동아시아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 설치를 가시화했다.

현재 한국문화재의 해외전시는 총 81회로 일본이 43회로 가장 많았고, 미국 23회 · 유럽 14회 · 대만 1회 순이다. 그중 80년 일본 오사카 등에서 열린 '한 · 일고대문화교류전'에 7백여점의 유물이 출품됐다. 반면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는 총 20회로 실크로드미술전(91년), 스키타이 황금전(91년) 등이 눈길을 끌었을 뿐이다.

이와같은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강대국보다는 약소국가들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한다는 의미 외에 양국간의 우의를 다지며 긴밀한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윤기석 기자〉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7월20일부터 여름수련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설법전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1차 7월20~22일(일반인), 7월24~26일(일반인), 3차 7월28~30일(어린이), 4차 8월1~3일(중고등부), 5차 8월5~7일(고육계 종사자), 6차 8월9~15일(단기출가자). 접수기간은 15일~7월4일. (0523)84-8380.

대둔사 부산포교원 개원

해남 대둔사 부산포교원(주지 도학)은 1~2일 양일간 개원기념 행사를 봉행했다. 1일 오형석 부산의료원 내과과장의 '건강강연회 '성인병의 예방과 검진', 2일에는 대둔사 주지 천둔스님의 '현대를 사는 길'이라는 주제의 고승초청 법회가 진행됐다.

태고종

법륜사 주지에 혜초스님



대륜문도회는 최근 문도회의를 열고 혜초前 총무원장을 법륜사 주지로 선출했다.

진산식은 6월9일 오전11시 법륜사 법당에서 봉행된다.

승주 금둔사 대웅전 낙성

승주 금둔사(주지 지허)는 5월17일 대웅전 낙성 및 본존불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정면 7칸에 측면 5칸의 전통목조양식으로 43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3m, 후불탱화는 높이 4백30cm에 폭 3백50cm 규모다.

전태종

상월대조사 24주 열반재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24주기 열반대재가 5월22일 구인사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

진각종

간부스승 울릉도 순례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5월27~2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종단 간부스승 및 성북구內 진각종 운영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울릉도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종조탄생지 금강원과 여래·흥지·선원·천부심인당 등을 방문했다.

총화종

수진사서 중앙종무회의

총무원(총무원장 남정)은 5월22일 총본산 수진사에서 중앙종무회의를 열고 청소년불교의식교육단체 결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 7~8월 경 수진사에서 하기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불교TV 상임이사로 가입키로 합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한 동장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붕선교종

부산 종무원장 혜지스님



8대 부산 종무원장 혜지스님(낙은사 주지) 취임법회가 5월27일 연제뷔페에서 봉행됐다. 혜지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취임 법회에는 종정 봉해,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삼광사 주지 덕수 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빛고을 신행·문화 공간 탄생

광주 계림동에 능인불교종합회관 문열어

시민선방 · 불교도서관 · 교육장 등 갖춰



◇광주불교능인회가 5월23일 개관한 능인불교회관 전경.

광주지역 불자들의 신행 문화활동과 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불교회관이 마련됐다.

광주불교능인회(회장 김두원)는 5월 23일 천운 대둔사주지, 현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스님을 비롯 이상진 광주불교방송사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인불교회관 개관 및 이전법회를 갖고 제2의 전법활동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번지에 위치한 능인불교회관은 대지1백10평(연건평 300평)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됐다.

능인불교회관 1층에는 새마을금고 해동불교백화점이, 2층에는 여성불교회, 대불청 광주지부 등 각 신행단체 사무실이, 3층에는 대법당 현산선방 불교도서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시민선방으로 활용하게 될 3층 현산선방에는 세계 각국의 불상 3백여점, 다라니 및 불서(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등) 등이 전시돼 있다. 또 지하 1층은 광주지역 불자들이 각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불교능인회 김두원회장은 "21C 불교의 홍망성쇠는 사회복지사업 투자에 있다"며 "포교 및 복지 문화사업과 청정 불국토 건설에 능인불교회관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능인불교회관은 97년 7월부터 본사에 착수, 7개월여만에 개관됐다.

광주불교능인회는 92년 지장불교장의부를 설립해 장의발생시 장의절차 일체를 제공하는 등 장의를 통한 포교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결치고 있다.

현재 지장불교장의부에 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향후 불교장례예식장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화원 산하 봉사단에서는 상가집 교도소 재활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능인불교회는 능인불교회관 건립을 계기로 지장불교장의부를 활성화 시켜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새싹불자 포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일년내내 연등 밝힙시다"

조계종 캠페인…"연말 · 민속명절때도 사용"

부처님오신날만이 아니라 연말이나 추석 등 주요 민속절기마다 이웃들에게 연등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전통등으로 집안을 장엄하는 것은 어떨까.

한지에 곱게 물을 들인 연잎을 말아 만드는 연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이며 민족예술품이다. 조선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봉은사연등도장문'이란 글에서 "봄철의 좋은 밤을 가리어 법석을 절에서 베푸니 천만개의 아름다운 등불이 찬란하기가 광명의 바다 같다"고 예찬했다. 이같은 연등을 1년 내내 만들어 이웃과 나누자는 캠페인이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전통등연구회와 함께 연등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월간 〈법회와 설법〉을 통해 내년 5월까지 12회에 걸쳐 이미 재현한 전통등을 알리고 생활화하기 위해 등 만드는 방법을 도면과 함께 소개한다. 현대감각에 맞는 등도 선보일 예정이며, 불자들의 창작등 제안도 받는다.(02-720-7064) 포교연구실은 연재를 마치고 자료집으로도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연구실 박정규주임은 "연등은 부처님오신날 반짝 비추었다가 사라지는 등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 중생들의 마음 속에 늘 빛나는 등으로 남아야 한다는 뜻에서 연등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中 용흥사터서 채색석불 발견

"당나라 유물"…연꽃무늬 주발 · 유리그릇도

중국 산둥(山東)성 청저우(靑州)시 룽싱사(龍興寺)터에서 채색 석불상과 함께 당나라때 이미 유리그릇이 생산됐음을 드러내는 유리 파편이 발굴됐다.

5월25일 신화통신은 룽싱사 불교그릇 보관창고터에서 당나라 때의 유리그릇 파편을 발견했다면서 그 이전까지는 당나라 때 유리그릇을 생산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다고 전했다.

청저우박물관이 4월부터 발굴한 유물들은 채색 석불상과 유리그릇 조각 외에도 자기주발, 도기항아리, 도자 파편, 개원통보(621년 주조) 등이 있으며 감정결과 모두 당나라 이전의 유물로 밝혀졌다. 특히 10여점의 주발 가운데 한 점은 외부에 활짝 핀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어 불교사원의 생활용 그릇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경주 선도산 개발 '말썽'

문재국 "고분 4기 출토 개발허가 못해"

계명대 "수십억원 투자…불허취소 소송"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주의 문화재 보존에 기로가 될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지구인 경주 선도산 일대에 병원을 짓기위해 지난해 5월 발굴신청을 낸 계명대가 이를 불허한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 '경주 선도산 발굴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

5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린 행정소송은 경주시가 병원건립부지로 매각한 선도산 일대 10만평에서 지난해 4월 신라시대 고분 4기가 발견되면서 야기됐다. 문화재관리국은 부지이전이나 위치변경을 요구하며 발굴을 불허, 공사가 1년째 중단됐지만 경주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자측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계명대측은 "설계변경이나 위치이전을 고려해봤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십억이상 투자한 만큼 병원건립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찰"

부산 혜원정사 도서관 · 예식홀 · 회의실 등 개방

혜원정사(주지 지웅)가 5월28일 만불전 불상 점안식을 가진데 이어 만불전 도서관 예식홀 대회의실 등을 개방,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운영을 표방하고 나섰다.

혜원정사는 연건평 6백60평의 만불전 1층에 위치한 도서관에 불서, 교양도서를 비롯한 7천여권의 도서를 구비, 지역민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또 예식홀과 대회의실을 저렴하게 대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회나 세미나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밝은길 아봐타센터

지금 당신의 변화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 원치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봐타코스에서 과감히 지우시고 늘 원만한 삶의 향상과 발전, 밝은 지혜의 길을 획득하십시오.

코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새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유식과 함께 깨어남을 경험하십시오.

수련기간 6월 7~9일 / 비용 160만원(상담은 무료)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합장

전 화: (02)396-2736 · 휴대폰: 016-228-2358

"용궁사는 태고종 사찰"

인천지법 1심판결

영종도 용궁사는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측과 태고종측의 민사소송 1심에서 태고종측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7부(재판부장 이길수)는 5월15일 조계종 임명 용궁사 주지 석천스님이 태고종과 태고종 임명 주지 법암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용궁사 태고종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조계종 임명 주지들은 실제 취임하거나 용궁사의 불사 및 사찰운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다"면서 태고종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118세 탄공스님 좌탈입망

충북 청원군 탄공선원 주지 탄공스님이 5월25일 세수 1백18세로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부좌 상태로 입적했다.

19세기말 경북 상주군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탄공스님은 4살때 아버지의 권유로 주왕산 대전사에서 불가에 입문했다. 그후 전북 백양사에서 성철스님의 스승인 동산스님과 함께 10년간 수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찰측은 30일 영결식을 갖고 입적모습 그대로 선영에 안장했다.

진각종 대경 대정사

진각종 각계심인당 대경 대정사가 5월26일 5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대경대종사는 1979년 진각종에 입교해 건설부 공무국장, 제8~9대 종의회 의원, 건설부장 등을 역임했다. 발인은 5월28일 충북대 병원 영안실.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 각종 번 · 장엄 번 · 전산(금·은전)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

불교 이미지 통일을 위한

「불자의집」 교패



▣특징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부식이나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반영구적입니다.
▲크기 : 5.5cm×7cm
▲보급가 : 1개당 1,000원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 (02)738-8682

여름불교학교(현수막, 모자, T셔츠, 부채)전문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 譯



494쪽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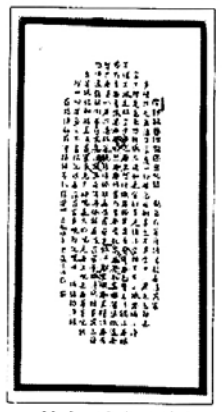
명학(命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 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짖어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筆者의 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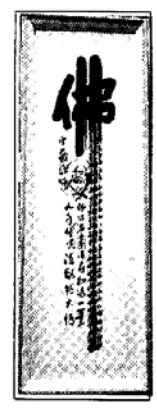
통신판매
- 조흥은행 - 436-04-0546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축 협 - 047-11-12095-316
예금주 · 서 찬 배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 (3층)
전화 (02) 387-8429 전송 (02) 357-7493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특별보시 -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통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불교문화 안내는 포교다"

조계종, 관광가이드 60여명 초청
'우리문화 바로알자' 연수회 실시

전문관광가이드들이 관광객이 되어 사찰에 대한 안내를 받는 이색적인 연수회가 열렸다.

외국인 전문관광가이드와 국제포교사 국제포교사연수생 등 60여명이 5월 28일부터 이틀간 관광객의 입장에서 경주일원의 불교유적에 대한 안내와 강의를 받은 것.

이번 연수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오는 9월로 예정된 경주문화엑스포를 대비해 보다 정확한 불교문화 알리기를 위해 마련했다.

포교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하는 상위 80위권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가이드를 초청대상으로 했다.

경주지역은 불교유적이 대부분인데다 일본관광객들이 많아 불교를 모르고는 가이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참석자들의 호응이 컸다.

'우리 문화를 바로 알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는 강의와 슬라이드 상영, 문화 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화유적답사는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박물관 등에서 이뤄졌다. 첫날 입제식에서 성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효율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전문관광가이드 60여명이 불국사 경내에서 사찰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고 있다.

불교교양대 인가제 도입

조계종 내년 실시…올 포교사고시 11월에

불교교양대학 인가제가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는 22일 인가제 도입방침을 밝히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가제는 포교원에 등록한 불교대학 가운데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학제 2년 이상 △불교입문 등 기초필수과목 78시간 이상 강의 △70명 이상의 수강시설 확보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갖춘 불교대학에 한해 포교원 심의를 거쳐 등록제와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가된 불교대학에는 포교원장과 해당대학장의 공동명의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포교사고시 응시 때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포교원은 신도교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배출이 없거나, 포교원에 학사관리보고를 하지 않는 불교대학은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포교원은 또 올해 포교사고시를 11월 2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실시 방법은 예년과 동일하나 신도증 미발급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각 불교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 가운데 포교사고시 응시희망자는 신도증 신규발급 서류를 9월말까지 포교원에 접수해야 한다.

조계종 군법사 인사파동 '조사'

관련 군법사 출석통보

군법사 인사파동과 관련(본보 175호 보도), 조계종포교원이 경위조사와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는 등 이 사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포교원은 "육군 군법사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초안을 작성해 육본 인사참모본부에 제출한 종단보좌관 김말환법사를 불러 인사경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포교원은 출석요구서를 5월29일 김말환법사에게 보내고 "3일 오전중 포교원에 출석,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종단이 인사와 관련해 군법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파동으로 육본이 인사권을 회수한 것은 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급 장기신청 보직변경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종무관리
'금강장사 포 윈'
투투컴퓨터 SW개발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한 원도우용 통합 종무, 신도관리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사찰전산화 전문회사인 투투컴퓨터(대표 남창동)가 최근 출시한 '금강장사 for win'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신도관리와 인등관리, 영가관리, 회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연도표시와 관련해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곡 닥치게 될 밀레니엄 버그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윈도우95 이상의 컴퓨터면 사용할 수 있는 '금강장사 포 윈'은 기존의 도스용 신도관리 프로그램에 비해 신도·인등·봉사·연등·회계·생일·일정·명함·설법자료·우편물 관리 등 이 프로그램 하나로 사찰종무행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

(02-585-1141, 051-505-2434)

北 금강국수공장 '가동중'
5월말…재해지역 어린이 국수배급
평불협, 밀가루 60톤 조불련에 전달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회장 법타)가 황해북도 사리원에 설립한 금강국수공장이 5월말 가동돼 재해지역 탁아소 인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선 배급을 시작했다.

평불협은 미주본부(회장 도안)를 통해 5월22일 밀가루 60톤 3개월치(1억5천달러 상당)를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했다. 금강국수공장은 하루에 2천2백명분의 국수를 생산해 재해지역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시작하고 금강국수공장은 차츰 임산부와 조불련 회원 불자들에게 배급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평불협은 7월초경 평불협 대표단의 방북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강국수공장 후원 (02)735-0559

종교편향대책위, 부산지검에
'금선사 사태' 공식답변 요청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5월 28일 부산 금선사 사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은 공문에서 △영장제시도 없이 법당을 구둣발로 밟고 다니고 △금선사부설 어린이집 원장 김성경씨(35세, 여)를 원생들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한 것은 교권탄압이며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검사는 5월16일 '하도급업자 2명이 폭력배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찰수사관 12명을 금선사로 파견, 사찰 내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유초스님 등 8명을 강제연행했다.

호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난공훈 예우하자

"27년전 사라진 금불상 찾아라"
창녕 계성중 동문회…비로자나불 추정

1971년 봄 경남 창녕군 계성중 교정에서 발견됐다가 의문속에 사라졌던 금불상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 학교 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종찬(41. 계성중 1회 동창회 부회장) 우영조(41) 강양규(41)씨 등은 학교 교정에서 농장 정지작업을 하던 도중 금불상을 발견, 학교에 맡겼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해서 돌아온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중 자물쇠 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에 있어야 할 금불상이 깜쪽같이 없어진 것.

최근 창녕군청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던 김종찬씨의 귀에 당시 교정에서 발견했던 금불상이 모 사설미술관에 전시돼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는 금불상에 대한 추억이 새삼 떠오르게 되자 동창회를 중심으로 금불상 찾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찬씨의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금불상은 크기가 20~25㎝ 정도로 머리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손가락을 감싸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된다.

목탁소리

대중문화포교사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대중문화 포교사들이 5월28일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회장 이성용)가 마련한 이날 연합 대법회는 불자 문화예술인들이 불법홍포와 대중문화 포교를 다짐하는 재도약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법회에는 회원인 불자예술인들 보다는 자문위원스님들과 내빈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해 아직도 불자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줘 아쉬움이 남았다.

가수를 비롯해 탈렌트, 코메디언, 국악인, 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예술인들. 대부분 많은 이들이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대중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산다. 때문에 그들의 포교활동은 '일당백'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불자 예술인들은 타종교 예술인들에 비해 포교활동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업적 특성상 스케줄을 함께 맞춰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대중문화 포교사들의 활동이 활력을 잃고 있다. 이유는 크게 불자예술인들의 조직관리 미숙과 종단·사찰의 관심부족으로 모아진다.

불자예술인들이 종단이나 사찰에 소속되지 않은채 자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자 예술인들이 조직의 공신력을 확보할 때 보다 넓은 포교 마당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자예술인회가 간과해서 안 될 일은 스스로 법회활동을 하며 신심을 다져나가는 것이다. 봉사활동이나 무료공연등의 기획행사를 통해 불심을 이웃에 회향하는 노력도 보여야 할 것이다.

불자예술인연합회는 현재 8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연예계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불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꾸준한 회원배가 운동을 통해 조직을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할일이 많은 단체인 불자예술인연합회의 안으로 닦고 밖으로 회향하는 보살행을 기대한다.

뉴스 & 뉴스

전화 한통화 포교후원금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이 포교후원전화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관계없이 700-0408이며 한통화당 5천원의 포교후원금이 부과된다. 대구불교방송은 질 높은 포교방송을 제작하는데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053)427-5114

'인권문제해결…' 간담회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은 10일 오후 2시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국민 정부 하에서의 인권문제 해결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타(평불협 회장) 지선(백양사 주지) 진관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스님 등이 참석해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현정권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따른 불교계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쌀 15가마 실직가장에 전달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석담)는 5월 한달동안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펼쳐 온 가운데 10일 서울시 금천구청에 쌀 15가마를 기탁한다. 금천구청은 관내 실직자 가정 30가구에 쌀을 전달한다.

대원불교대 법사단 교육

대원불교대학 법사단(단장 권순)은 6일~7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법사단원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재가법사활동에 대한 전망(강건기교수)·IMF와 불교운동(김원우법사)·대중불교운동을 위한 조직의 정비(신중기법사) 등의 교육을 통해 대원불교대 법사단은 전국조직을 정비하고 대중불교운동 단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이다.

명성여고 북돕기 성금기탁

명성여고(교장 이원주)는 북한동포돕기 성금 1백90여만원을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회장 법타스님) 북한금강국수공장후원회에 기탁했다.

성금 모금에는 불교학생회(회장 도혜진)가 주축이 되어 5월1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이 동참했다.

원각사앞 아파트건설 취소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 앞 고층아파트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다. 〈본보 175호 참조〉

원각사와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는 28일 회의를 갖고 사찰경계로부터 5m 거리에 있는 12층 규모의 1개동을 설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사건25시' 스님 왜곡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송강)는 지난달 26일 KBS-1TV '사건25시' 프로그램에 스님과 사찰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수련·수양•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 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권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 일반 회원은 매주 화·목·토 수련가능
☞ 스님, 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하며 출장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 소정의 실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부여(타 무술 유단자도 환영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불교미술•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6

탁자,묘집,범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판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성동석재불사공예사
■ 미륵불·지장불·석탑 석등
■ 석재 동물상·석재·조형물조각
■ 석재불사에 관한 모든 것
※ 천불·삼천불·만불 조성전문
T.0357)31-8736
011)284-5101
012)321-6044
F.0357)31-5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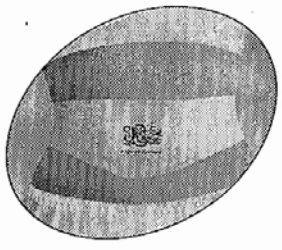
•탈원공고•

● 성 명 : 양재규
● 법명 : 해원스님
● 주민등록 : 180411-1408619
● 승려번호 : 0646-132
선학원을 탈원합니다
1998. 5. 8.

•법회·공연•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대학생: 월·수·금 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일 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국악·전통무용 공 연
경로·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상담·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불교방송 프로개편

제작비 절감 · 재원확충 중시
'신경영…' 등 교양프로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8일부터 IMF에 따른 제작비 절감 및 다변화 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보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BBS시평' '행복 스튜디오' '진리의 향기' '전국연결 620' '신경영, 성공시대' 등의 실생활에 유익한 교양정보 프로를 신설한 것이 특징. 또 다양하고 풍부한 들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세분화 시켰으며 구성력과 질을 높이기 위해 PD 작가제 등을 도입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김양일의 시사대거진'도 'BBS 뉴스 리포트'로 이름과 포맷을 탈바꿈한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들과 만난다.

신설 프로그램

■ '마음을 비우고'(월~일, 05:45)=바람소리, 새소리 등 자연음을 배경으로 스님들이 명상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선을 유도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 'BBS 시평'(월~토, 07:10)=각 분야의 명사들이 초청돼 1일 한가지씩의 주제로 강의한다.

■ '신경영, 성공시대'(일, 07:05)=IMF 위기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인들의 기업 경영 전략과 노하우를 듣는 기업 홍보 프로그램.

■ '행복 스튜디오'(월~일, 11:10)=IMF 시대 가정이나 사회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애환과 사람을 담은 편지와 사연을 소개한다.

■ '진리의 향기'(월~일, 15:05)=불교신행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법공양' 책에서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을 발췌해 노래와 함께 전달해 준다.

■ '전국연결 620'(월~토, 18:20)=각 지방을 연결해 그 지방 소식 및 미담 등을 알려주고 각종 지방정보 등도 퇴근길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제공한다.

■ 'BBS 뉴스리포트'(월~토, 19:00)=뉴스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날의 주요 사건과 소식, 화제거리 등을 제공.

■ '오늘의 스포츠'(월~토, 21:50)=매일 열리는 스포츠 현장 소식과 화제의 스포츠를 집중 분석한다.

■ '우리들의 찬불가'(월~일, 09:55)=법회나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가릉빈가 합창단이 들려준다.



맑은 수행자상 'CF 포교'

청안스님 '스피드 011' 광고 화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포교하는 자세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SK텔레콤 '스피드 011 산사편' TV 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청안스님(62 · 서울 청안사주지).

이 광고는 대나무 숲길을 스님과 함께 걸으며 인생의 조언을 구하던 영화배우 한석규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자 한씨가 민망해 한다는 내용. 그때 스님의 알 듯 모를듯한 미소가 클로즈업 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날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란 멘트가 흐른다.

서울공대 출신으로 26살 때 직지사로 출가한 청안스님은 "1분도 방영되지 않는 광고를 위해 수없이 NG를 반복하며 3일간이나 고된 촬영을 해야했지만 보람있었다"며 "다양화된 사회현상에 발맞춰 스님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011 광고는 요즘 어디서나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대숲과 청정하고 덕높은 수행자의 모습이 유난히 시청자들의 가슴에 잔잔하게 다가오는 차별화된 광고라는 점에서 은연중 불교포교에 톡톡히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주일 기자

신행수기 당선작

나한도량에서 맺은 인연①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산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저 단순하게 가까이 절이 있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회를 만들며 5년간 이끄는 것으로 이어졌다.

길지 않은 삶을 산 나였지만 숨쉬던 일들과 어려웠던 일들이 닥쳐왔다.

고등학교 2학년때의 일이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다. 진단결과 '뇌동맥동맥류'라는 이름조차 희귀한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이 병이 수술을 하더라도 95%가 사망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며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 고통을 참다못해 수없이 혼절하며 신음하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장남이라 은연중에 나를 의지하시는 어머니에게 간곡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저렇게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도 고통을 받을 것만 같으니 설사 돌아가시더라도 고통을 없애드려 편히 가실 수 있게 하자고 말이다. 수술하기로 결정 하고 그즉시 날을 잡았다.

14시간 관음정근 병고의 아버지 살려 "마음밭 갈아 '나' 찾아야지"



그림 · 이준석

수술받은 사람의 95%가 죽는다는 수술. 아버지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미웠고 무섭게 떨렸다. 그때 문득 부처님께 기도하자는 생각이 스쳤다. 단걸음에 부산 감로사로 올라갔다. 주지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법당에서 정근기도를 시작했다. 오직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기원하며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무작정 관세음보살께 의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기도하기를 14시간. 땀으로 흥건해진 몸을 추스리고 병원으로 갔다. 담당의사가 수술결과는 잘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도무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보낸지 2일째 되던 날, 의사의 권유로 임종을 지켜려고 친척들도 모이고 장례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아버지가 움직이며 깨어나셨다. 14시간여를 일심으로 했던 관세음정근은 헛고생이 아니었다.

결국 아버지는, 의사의 표현을 빌자면 기적처럼 깨어나셨고 계속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생명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날로 호전되셨다. 지금은 절에서 기도하시며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가장의 병고로 우리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게 힘들어졌지만, 부모님 모두 독실한 불자가 되셨고 친척들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확신하는등 자연스레 인연불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

특히 나는 이 기도를 계기로 정근을 생활화 하였다. 청년회를 5년간 이끌어 오면서 매주 정기법회 때마다 기도에 대해 교학측면의 공부도 하고 실제 수행도 병행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법회 때는 기도소리가 부처님 전에 가득찼다. 열심히 정근하고 또 정근하였다.

이러한 끈질긴 인연 때문일까,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잊은 채 살았다. 고등학생 때는 철없이 시간이 흘렀고 청년회 시절은 정신없이 뛰어 다니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인연이 닿았다. 친구와의 갈등도, 사랑하는 이와 이별의 아픔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것 역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풀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과 인연도 어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었다. 업불정진은 나에게 생소함보다 점겨운 가락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맑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복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마음의 밭을 가는 농우의 마음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재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소도마카 '수사들의 간청'(부분). 1496년. 올리베또 마조레 수도원 소장.

법 또는 성직자 권위 상징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⑧

주장자

주장자는 수행자들이 주로 짚고다니는 도구이다. 주장자의 윗부분에는 6개의 방울이나 쇠고리가 달려있다. 산속이나 들판을 걸을때 울리는 방울소리를 듣고 벌레나 짐승들이 발에 밟혀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또 짐승이나 뱀 등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좌선이나 설법할 때에도 늘 가까이 해 법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고승들이 짚고 다니다 꽂아놓은 지팡이가 자라 거목이 되었다는 전설의 나무가 사찰에는 많다. 주장자에 달린 6개의 고리는 육도중생들이 모두 해탈하라는 의미로 육환장(六環杖)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에서 역시 지팡이는 지도자나 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다. 성화에서 지팡이를 든 자는 항상 사상(事象)의 중심에 위치한다. 모세는 주장자로 흥해를 가르기도 하고 유랑중 목말라 지친 무리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보조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소장.

한 눈에 평생 살 곳인 줄 알겠더라

수도권의 신(新)청학동에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전통의 산경표(山經表)에 따라 한남금북(한수이남, 금강이북) 정맥이 정통으로 흐르는 곳,
그 가운데 위치한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자연속의 삶을 주장하는 환경공동체, 개성이 독특한 재사 · 기인들이 자리를 틀고 모여 산다.

● 죽산면 용설리 전원마을 사람들 — SBS 이영희 FD/ 황청원 · 김혜정 부부/ 김진해 · 김아라 부부 및 아외극장/ 무용가 홍신자씨 및 아외무대/ 외줄타기 명인 김대균씨집과 연습장/ 컬트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소설가 김정빈씨의 집과 명상원 (주간조선 98년 5월 14일자 사회면 기사중)

도솔전원마을 만의 Know-how

도시인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동심의 고향 마을-도솔전원마을
이상적인 전원 주거지의 신 개념을
안성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실현했습니다.

"(주)도솔"이 만드는 전원주택은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 도솔의 건설철학 ■

누가 집을 잠부로 짓는가?
집구조에 관한 풍수지리학을 보면 양택(陽宅)의 법칙에 있어서 세가지의 요체삼(三要)이 있으니, 이것이 곧 대문과 방 그리고 부엌이다.
대문은 식솔이 출입하는 길이요, 방은 사람이 기거하는 바탕이며, 부엌은 먹고 사는 자본이라 했다. 또름지기 문과 방 그리고 부엌, 이세가지가 각각 제자리를 얻어 문(門)은 방을 탄생(生)시키고, 방(房)은 부엌을 탄생 시키며,
부엌은 문을 탄생시켜서,
삼자가 서로 상극되지 않게 화비(和諧相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집주인의 본생(本生) 즉 운명과 함께 흥하고, 자손이 흥왕하고 복록이 번성되며 수명이 장건장(長建)하게 된다고 했다.
백두대간 도솔산 밑의 풍수적인 최고의 길지(吉地)에서 이 모든 것을 저희 도솔마을 전원주택에서 이루어 보십시오.
수천년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양택의 비전!
집의 구조를 알면 건강과 성공이 보입니다!

ARCHITECTURE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 위치한 도솔마을 전원주택입니다. 저희 도솔마을에서는 IMF의 무거운 짐을 덜고자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주택을 심신이 존속한 불자 다신가구에게만 우선 선착순 분양하고자 합니다. ※불자동호인 환영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로 손 꼽히는 곳-
딱딱드러맞는 안성마춤의 출발지 -

"도솔전원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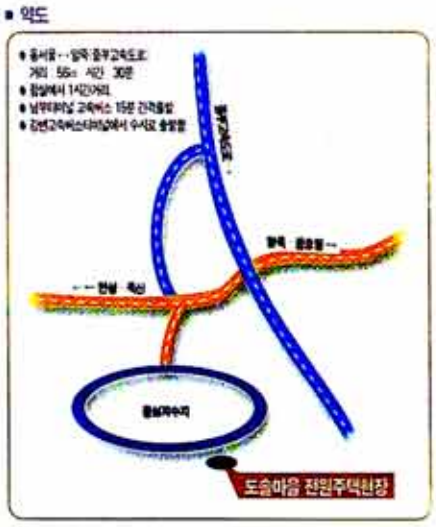
이곳에 최적하고 편리한 전원주택이 출발합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대학야(두원 공업 전문대, 동아 방송 전문대, 안성 산업대, 중앙대)를 비롯 고등학교 7개, 중학교 9개, 초등학교 3개로 최고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과물이 모두 편안한 곳으로 서로 어우러져 삽니다."

■ 약도



■ 분양가격
물지에 따라 평당 65만원~75만원.
분양 계약시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슴

분양사무실 TEL:(02)2811-515~6 FAX:(02)2811-517

주문주택 (株)兜率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420 · 422번지